

개정판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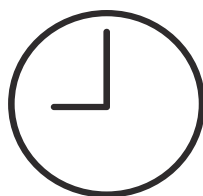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JEJU DARK TOURS
The Unforgettable Past

제주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



목 차

1.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 총론	- 3
2. 제주시 동지역	- 10
관덕정 광장, 4·3해원방사탑, 미 CIC 방첩단 옛터, 박성내, 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 옛터, 오라국민학교 옛터, 월평마을 4·3성터, 제주경찰감찰청 옛터, 제주농업학교 옛터, 제주도립병원 옛터, 제주시민회관, 제주신보사 옛터, 조일구락부 옛터, 주정공장 옛터, 도령마루, 제주비행장, 관음사, 박진경 연대장 추모비, 어승생악 동굴진지, 곤을동 옛터, 삼양지서 옛터	
3. 제주시 조천읍	- 95
조천중학원, 조천지서 옛터, 조천지서 앞밭, 조천민간인수용소 옛터, 너븐송이 4·3기념관, 애기무덤, 순이삼촌 문학비, 옴팡밭,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제주4·3 북촌 주민 참사의 현장, 정지폭낭, 당팻, 9연대/2연대 대대본부 (함덕국민학교) 옛터, 선흘리 4·3 희생자 위령비, 불카분낭, 목시물굴, 도틀굴, 낙선동 4·3성, 와흘리 4·3사건희생자위령탑, 와흘굴, 남매상봉기념비, 교래복받친밭(이덕구산전)	
4. 제주시 구좌읍	- 184
금봉사, 난시빌레, 다랑쉬굴, 세화리 주재소 옛터/세화지서 옛터, 연두망동산, 큰곶검흘굴 (대림동굴), 행원리 4·3희생자 위령탑	
5. 제주시 애월읍	- 213
납읍리 4·3성담(북문성), 비학동산, 빌레못굴, 영모원, 육시우영, 자리왓, 하귀중학원 옛터	

6. 제주시 한림읍 - 239

진아영 할머니 삶터, 한림항 어업조합창고 옛터, 다케나카 통조림공장 옛터, 명월리 고림동(상동) 4·3 성담, 만벵디 공동장지, 월대 옛터 (벵디가름), 웃동네, 생이못, 오소록이 마을

7. 서귀포시 동지역 - 267

시오름 주둔소, 영남동, 정방폭포 및 소남머리, 단추공장 옛터, 법환리 4·3성터, 중문신사터, 중문지서 옛터, 중문리 서북청년단 사무실 옛터, 삼면원혼제단

8. 서귀포시 남원읍/표선면 - 302

의귀국민학교, 현의합장묘(신묘역), 현의합장묘 옛터(구묘역), 남원읍 충혼묘지, 송령이골, 버들못, 한모살

9. 서귀포시 성산읍 - 334

우뭇개동산, 성산지서(성산포경찰서) 옛터, 터진목, 제주4·3 성산읍희생자 추모공원, 서북청년단 특별중대(성산동국민학교) 옛터백조일손지묘

10.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 357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고사포진지,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송악산 일제진지동굴, 셋알오름, 백조일손지묘, 모슬포지서 옛터,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 정문, 무등이왓, 삼밭구석(삼밭구석), 큰넓궤, 임문숙 가족 헛묘, 구역국민학교 옛터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 총론

1. 조사 배경

(사)제주다크투어는 2020년 7월부터 약 3개월 간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이하 유적지) 안내판 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다크투어’(다크투어리즘, Dark Tourism)는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의미한다. 제주에는 일제군사시설(제주도 내 일제 진지동굴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군사유적), 한국전쟁 관련 군사시설(육군 제1훈련소 정문 등 대정읍 일대), 제주4·3 유적지 등 다크투어 유적지들이 있다.

(사)제주다크투어는 2017년 12월 출범 이후 제주4·3 역사의 현장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제주 주민들의 삶은 제주4·3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억의 전승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4·3을 비롯한 제주 역사 유적지에 대한 기록과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번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는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기억의 전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개정판 조사 배경] (사)제주다크투어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 내에 수록한 일부 유적지를 찾아 답사를 진행했다. 일부 유적지의 경우 안내판이 새롭게 설치된 곳(터진목, 정방폭포)이 있었고, 안내판 정비가 이뤄진 유적지(당팻, 정지폭낭 등)도 있었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을 새롭게 발간한다. 그외에 오탈자, 유적지 소재지 오류 등을 잡았다. 표현이 어색한 어휘도 다듬었다.

다음은 사진 교체 및 추가 등 내용을 보강한 유적지이다.

해원방사탑(14쪽), 박성내(20쪽), 제주경찰감찰청 옛터(37쪽), 독립병원 옛터(43쪽), 주정공장 옛터(52쪽) 도령마루(58쪽), 관음사(67쪽), 삼양지서 옛터(92쪽), 애기무덤(113쪽), 순이삼촌 문학비(117쪽), 옴팡밭(121쪽), 정지폭낭(135쪽), 당팻(138쪽), 남매상봉기념비(177쪽), 낸시빌레(188쪽), 영모원(224쪽), 육시우영(231쪽), 만벵디 공동장지(249쪽), 생이뭇(259쪽), 정방폭포 및 소낭머리(273쪽), 의귀국민학교(302쪽), 터진목(339쪽), 백조일손지묘(393쪽)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거나 관련된 제주도 내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소의 역사성, 보존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다크투어의 개념에 부합되는 조사 대상 유적지 100곳을 선정했다. 1932년 벌어진 구좌 해녀항일 운동, 1930년대 알뜨르비행장 건설과 그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의 발포사건으로 시작되는 제주4·3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직접적으로 벌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기억 공간 또한 이번 조사에 포함했다.

2) 조사 방법

다음과 같은 주요 문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유적지의 위치와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마을 향토지, 유적지 관련 책자 등을 참고했다.

보고서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제주4·3평화재단, 2019
- 『제주4·3 유적 I (제주시)』(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2018
- 『제주4·3 유적 II (서귀포시)』(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2019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2019

단행본

- 『4·3은 말한다』 제1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 『4·3은 말한다』 제2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 『4·3은 말한다』 제3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5
- 『4·3은 말한다』 제4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 『4·3은 말한다』 제5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현장조사에서는 유적지 안내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유적지 및 안내판의 위치(위도, 경도, 주소)를 확인했다. 보고서 본문에는 위성지도와 결합한 지적도를 기재했다. 지적도는 토지를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은 것인데 이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사 당시 토지(유적 장소)의 용도를 기록함과 동시에 사유지의 경우에는 매입 필요 토지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는 지적도를 사용했다.

유적지 안내판이 있는 경우, 유적지 안내판의 내용을 기록했다. 유적지에 오탈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기록하여 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다. 또한 제주4·3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했는지,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안내판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점검했다.

-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 코드가 있는가?
-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제주4·3 등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유적지 주소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고 향후 도나 민간 차원에서 이를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했다.

3. 조사 결과

100곳의 유적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7개로 유형화했다. 대다수의 유적지들이 관리 주체나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내용의 오류,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수 없었다.

1) 유적지 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현재 다크투어 유적지로 알려진 곳 가운데 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는 다수 발견되었다. (사)제주다크투어가 조사한 100곳의 유적지 중 28곳에는 유적지 안내판이 부재했다. 대표적으로 제주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표사건이 일어난 관덕정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당시 관덕정의 건축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4·3 당시 대표적 학살터인 제주국제공항에도 4·3에 대해 알리는 안내판이 없다. 공항 안쪽에 유해 발굴 당시 만든 표석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구분	유적지 수(비율)	비고
안내판 있음	73	
안내판 없음	27	<p>제주시 동지역 제주시민회관 미CIC방첩단 옛터 제주도립병원 옛터 제주경찰감찰청 옛터 서북청년단 본부 옛터 제주비행장 제주신보사 옛터 조일구락부 옛터 선홍 불카분당 삼양지서 옛터</p> <p>제주시 한림읍 한림어업창고 옛터 다케나카 통조림공장 옛터</p> <p>제주시 조천읍 조천중학원 옛터 조천지서 앞밭 조천 민간인수용소 옛터</p> <p>제주시 애월읍 하귀중학원 옛터 비학동산(현 학원동민회관) 육시우영</p> <p>서귀포시 성산읍 우뭇개동산 서청특별중대 옛터(성산국민학교 옛 건물)</p> <p>서귀포시 동지역 중문서북청년단 사무실 옛터 중문지서 옛터 시오름주둔소 단추공장 옛터 법환리 4·3성터</p> <p>서귀포시 표선면 버들못</p> <p>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지서 옛터</p>
합계	100	

2) 역사적 사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재한 안내판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인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에는 “1926년부터 10년 동안 건설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알뜨르비행장은 1931년부터 건설되었다.

또 성산지서 옛터의 경우 경찰서로 승격된 시기는 1949년 1월이나 안내판에는 1948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역사적 장소가 항일 운동과 4·3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곳(연두망동산, 세화리 주재소 옛터 등)에는 항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의 안내판은 있으나 4·3과 관련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와흘굴이나 큰곶검혈굴의 경우에도 해당 굴이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주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폭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안내판도 있었다. (옛 지서 터에 세워진 비석 등) 이러한 안내판에는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감금, 취조, 학살한 국가폭력의 역사는 기술되지 않았다. 사전적 의미의 ‘폭도’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국가 보고서에 맞춰 안내판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3) 오탈자 및 번역 오류가 있는 경우

유적지 안내판에 단순 오탈자는 물론, 번역 오류도 적지 않았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생이뫂의 경우, 한글 안내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영문 안내는 다른 유적지(오소록이 마을)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임문숙 일가 헛묘(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경우 헛묘를 ‘Fake Tomb’라고 번역하여 표현했다. Fake는 ‘가짜의, 거짓된’이라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헛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이외에도 영어 철자 오류, 문법 오류를 비롯해 한국어 비문도 다수 발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영어 안내판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주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판도 설치되어야 한다.

4) 인권·젠더·평화 감수성이 부재한 경우

인권·젠더·평화 감수성이 부재한 안내판도 찾아볼 수 있었다. 금악리 오소록이 마을의 경우 토벌대에 쫓기는 주민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젓먹이를 안은 19세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사건의 비극성을 극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하지만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성(젠더)을 부각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방문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 유적지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유적지 안내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내판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었다. 제주도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초록색 4·3 안내판의 경우 시간이 지나자 안내판 필름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안내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보존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유적지 관리 주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6) 유적지 안내판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유적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세워져 해당 유적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구좌읍 동북리 낸시빌레의 경우 실제 유적지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140여 미터가 떨어져 있고 안내판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표기하지 않아서 안내판만 보고는 유적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빌레못굴이나 큰곶검혈굴, 교래 북받친발 등의 경우 큰 길가에서 유적지까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처음 유적지를 찾는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7) 관광약자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이동약자의 정보 접근권이 고려되지 않은 유적지 안내판이 절대다수였다.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약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유적지 안내판 앞에 진입로(경사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유적지도 많아 이동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유적지 특성상 따로 진입로를 만들기 어렵다면 이동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유적지 사진과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관광약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제언

이번 유적지 안내판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유적지 및 유적지 관리체계 개선

첫째, 관련 부서의 유적지 및 유적지 안내판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4·3유적지보존위원회심의위원회(소관부서 4·3지원과)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보존이 필요한 주요 유적지 선정 등 계획 수립에 국한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적지 안내판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도 수립해 유적지 안내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도민들로부터 안내판 오류, 관리 상태 등을 제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도민참여형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유적지 안내판 설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문

도에서 세우는 안내판의 경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인권·평화·젠더 감수성 및 관광약자 정보 접근권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적지 안내판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역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권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설치되었는지,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었는지,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오류는 없는지,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을 갖춘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역사적 사실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적지 및 유적지 안내판 공유 방안 마련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와 유적지 안내판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록된 제주의 인문사회, 역사적 자원들을 개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지석, 물리적 안내판과 같은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웹지도, e-book, 증강현실 안내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서귀포시 동지역

시오름주둔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산 10 일원
위치(위경도)	<p data-bbox="635 517 1155 546">33.291209, 126.515031(출입로, 제6산록교)</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 data-bbox="405 1615 1342 1733">시오름 경찰 주둔소는 1950년대 초반에 만들어짐. 지역 주민들과 인민유격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음. 시오름주둔소 성은 서호리 주민뿐만 아니라 호근리·강정리·법환리 등지의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한 달 만에 쌓았다고 알려져 있음.</p> <p data-bbox="405 1738 1305 1832">삼각형 모양의 주둔소는 한 면의 길이가 40여m로 전체 둘레가 120m 정도임. 높이는 약 3m, 폭은 1m 정도로 남아있으며, 제주도 내 주둔소 가운데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O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국토교통부 (건설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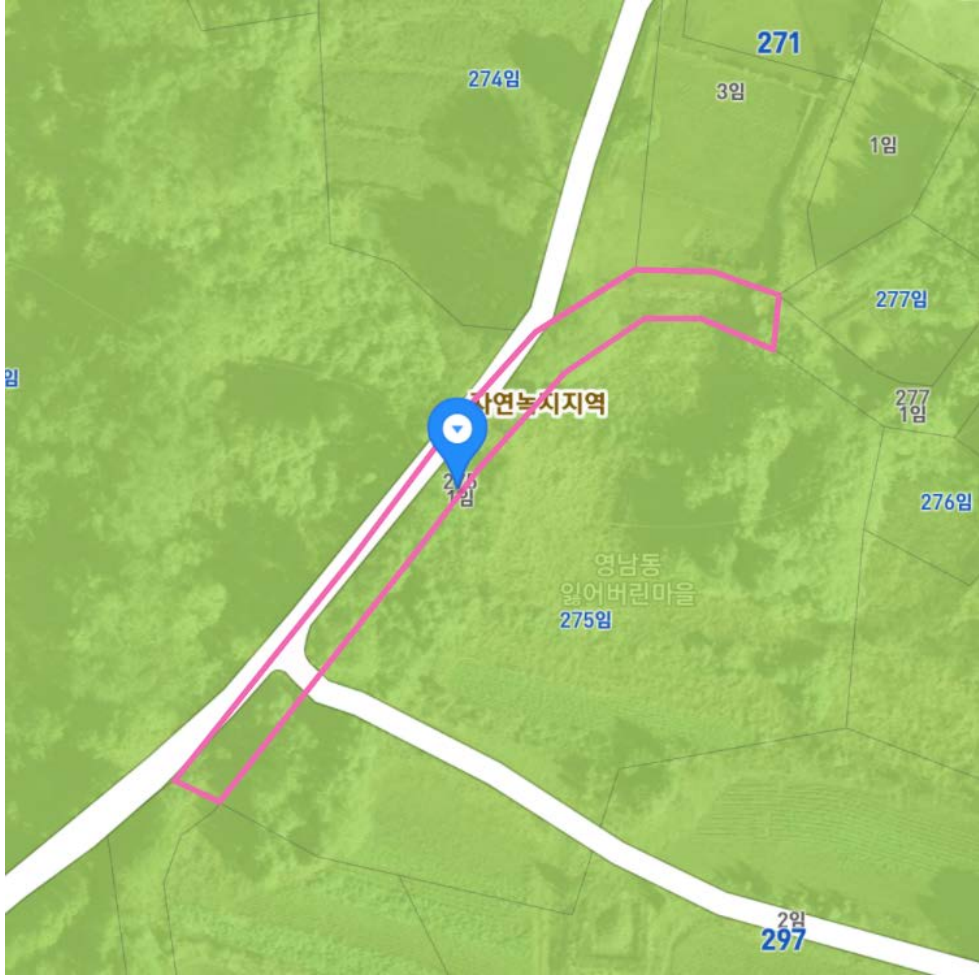
2) 문제점

- 유적지 형태가 잘 남아있고 여타 주둔소보다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한 수준임. 그러나 출입로(제6산록교 입구 부근)에 세워진 표지석 외에는 아무런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주둔소 성담 앞에도 유적지 안내판을 세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영남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남동 275-1
위치(위경도)	<p>33.287454, 126.498959</p> 
조사일	2020. 9. 18(금)
유적지 개요	<p>4·3 당시 영남동에는 16호 정도의 주민이 살았음. 1948년 11월 18일 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따라 소개령이 내려지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근처의 숲이나 궤에 숨어 살았음. 마을이 한라산 밀림지대와 접해 있어 인민유격대와와의 왕래가 있다고 판단한 토벌대에 의해 소개되고 토벌된 것임. 숨어있었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고 그 후 마을은 복구되지 못했음.</p>
유적지 안내판 설명	<p>[한글] 잃어버린 마을 -영남동- 여기는 4·3의 와중인 1948년 11월 20일 경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서귀포시 영남동 마을터이다. 이 마을에는 19세기 중반 무렵 생활이 어려웠던 제주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래 호수가 많을 때는 50여호가 넘기도 했다. 주민들은 감자, 메밀, 콩, 산디(밭벼)를 주식으로 삼았고 목축을 하였으며 마을에는 서당이 있어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재수의 항쟁 등 여러 항쟁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1918년 법정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주민 6명이 일제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중 옥사한 김두삼(당 25세)은 독립 유공자로 추서되어 마을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p>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16가호의 주민 90여 명 중 피신하지 못한 50여 명이 희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주위로 눈을 돌려 화전같이 흔적이 뚜렷한 층계발을 보라. 옛 우물터를 찾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며 영남마을 주민들의 아팠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이곳에 밝은 햇살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2001년 4월 3일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4·3 당시 주민들이 ‘불운을 피하지 못해 희생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가해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당시 마을의 역사적 상황보다는 풍경 묘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이스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남동 마을이 사라지게 된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진압군’임. 사건이 일어난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려면 육하원칙에 맞춰서 내용이 전개되어야 함. 이에 안내판 내용에 누구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마을주민들의 대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서술되어야 함.

정방폭포 및 소남머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3(동홍동)
위치(위경도)	<p>33.244634, 126.573360</p> 
조사일	2020. 9. 18(금)
유적지 개요	<p>정방폭포는 서귀포 지역의 대표적인 학살터였음. 4·3 당시 정보과에서 취조받은 주민들 중, 즉결처형 대상자들 대부분이 희생당한 곳임. 흔히 정방폭포에서 희생당했다고 하는 희생자 대부분이 정방폭포 상단과 이어지는 소남머리에서 총살당함.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1월 22일 안덕면 동광리·상창리 주민 등 80여 명이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에서 집단총살 당함. 이곳에서는 서귀면 서귀리, 남원면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 등 중문면, 안덕면 동광리, 대정리 주민까지 총살당함.</p>
유적지 안내판 설명	<p>[한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Jeongbang Waterfall 명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지정일: 2008. 8. 8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3호 지정구역: 301,972m²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동홍동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수직 절벽에서 곧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폭포이다. 그 규모는 높이 23m, 너비 10여 경의. 영주 10경의 하나인 정방폭포는 여름철 서귀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라보는 폭포수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정방하폭’이라 불렀다. 폭포의 수원(水源)은 정모시라는 못이며, 폭포수가 떨어지는 못에서 북과 장구를</p>

	<p>두드리며 거북이들이 물위로 올라와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진 나라 시황제의 사자 서불이 한라산의 불로장생초를 구하러 왔다가 정방폭포를 지나며 ‘서불과지’라 새겨놓고 서쪽으로 떠났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p> <p>[영문] Jeongbang Waterfall, falling from a cliff, is 23m high and 10m wide. It has unique scener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oriental area. It is called ‘Jeongbang-hapoak’ due to its picturesque scene when viewed from a boat and is one of 10 Scenic Wonders of Jeju Island. The waterfall starts from ‘Jeongmosi’ and it is said that if people play a drum and jang-gu at the point of the waterfall drops, turtles come up to the surface and dance on the water. Jeongbang Waterfall is famous for a legend of ‘Seobul’ who is a legman of Shi Huangdi during the Qing Dynasty and came to Mt. Halla in Jeju Island in search for an elixir of an eternal life. After he failed to find the elixir, he carved ‘Seobulgwagi’ on the cliff of the waterfall and returned to the west.</p> 
<p>유적지 안내판 설명 2 (2021년 5월 31일 추가)</p>	<p>[한글] 4·3 정방폭포 유적지 정방폭포와 소남머리 사이에 있는 해안절벽은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지만, 4·3의 슬픈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4·3 당시 서귀리는 산남지방의 중심지로, 면사무소와, 남제주군청 그리고 서귀포경찰서가 있었다. 때문에 서귀면사무소에 대대본부가 설치되었고 토벌대의 주요 거점지가 되었다. 서귀면과 중문면 일대의 주민뿐만 아니라 대정, 남원, 안덕, 표선면 주민들도 이송되었기 때문에, 당시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전분공장과 단추공장은 수감자로 넘쳐났다. 특히 군부대 정보과에서 취조 받던 주민들 중 즉결처형 대상자들 대부분이 이곳 해안절벽으로 끌려와 희생당했는데, 그 수가 256명으로 산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곳이다.</p> <p>[영문] Jeongbang WaterFall Historic sites</p> <p>Through the site located between Jeongbangpokpo Falls and Sonammeori Hill boasts beautiful coastal cliffs, it also preserves the painful history of the Jeju 4·3 incident, seogwi-ri was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southern part of Jeju. It had the Seogwi-myeon Office, the Namjeju-gun Office, and the Seogwipo Police Station. As suppression of the rebellion by the South Korean army became severe, the area was used as a key military base. a battalion headquarters was set up at the Seogwi-myeon Office. Not only residents of Seogwi-myeon and Jungun-myeon but also those of the other southern districts including</p>

Daejung-myeon, Namwon-myeon, Andeok-myeon, and Pyoseon-myeon were accommodated at prison camps. Starch factories and button factories that were then used as prison camps were flooded with inmates. The residents were interrogated by the military's intelligence division. Most of them were brought to this site for summary execution. It is reported that 256 people were put to death, which is the largest number of victim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island.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O(안내판 신설)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휠체어 장애인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안내판 신설)
기타	정방폭포 대표소 앞에 4·3유적지 안내판 신설 (2021년 5월 31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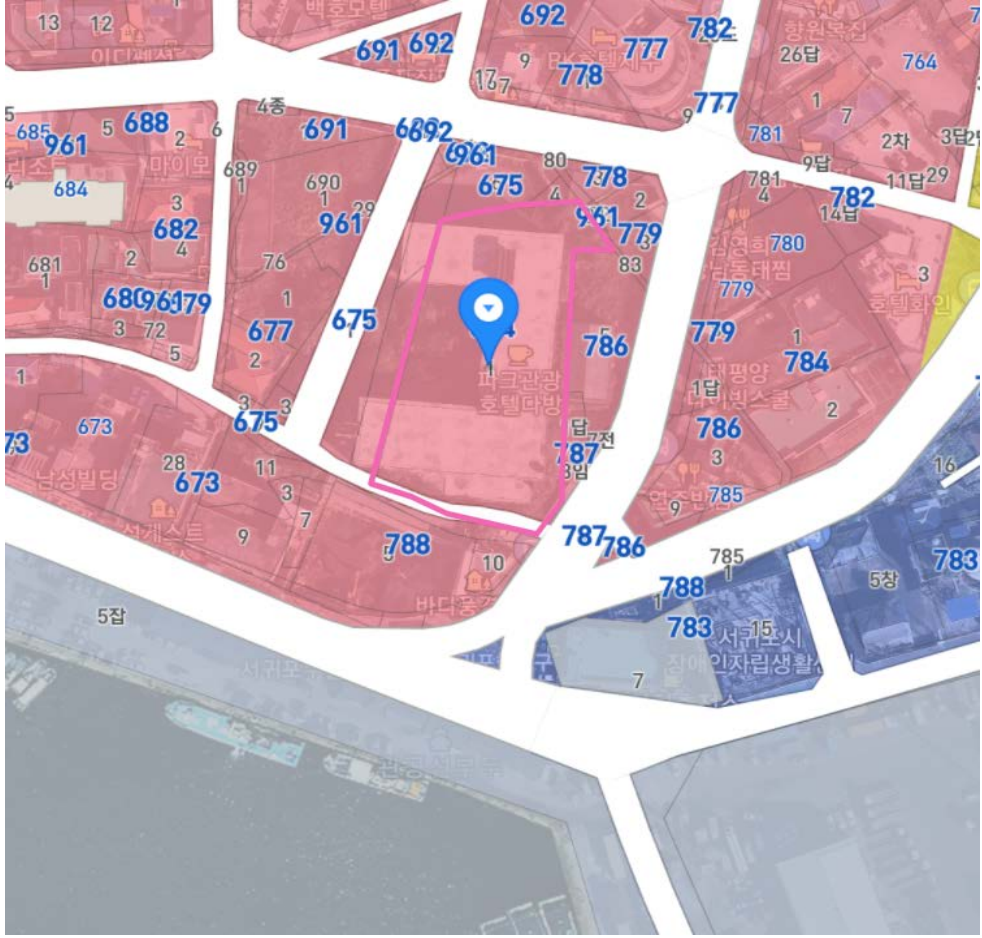
2) 문제점

- 정방폭포와 소남머리는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학살당한 대표적인 학살터임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학살이 있었던 장소라는 설명은 없음. **(4·3안내판 신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3) 개선방안

- 서귀포지역의 대표적 학살터인만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4·3 당시 학살이 일어났던 유적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4·3안내판 신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단추공장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연로41번길 41(서귀동)
위치(위경도)	<p>33.240253, 126.564063</p> 
조사일	2020. 9. 18(금)
유적지 개요	<p>이 곳은 일제시대 때 소라껍질을 이용해 단추를 제조하던 공장이었음. 4.3 당시에는 주민들을 수감하는 장소로 사용됨. 그 중 잘 알려진 사례는 안덕면 동광리 삼발구석 주민들의 이야기임. 1948년 11월 중순 이후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이 시행되면서 삼발구석 주민들도 은신처를 찾아 인근 여기저기를 헤매다 12월경 큰넓궤로 숨어들어갔음. 그러나 토벌대가 큰넓궤를 발견하면서 숨어있던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영실 부근 불레오름까지 피신했음.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토벌대에 잡혀 죽거나, 이곳 서귀포 단추공장에 수감되었음. 이들은 1949년 1월 22일 정방폭포 인근에서 집단 총살.</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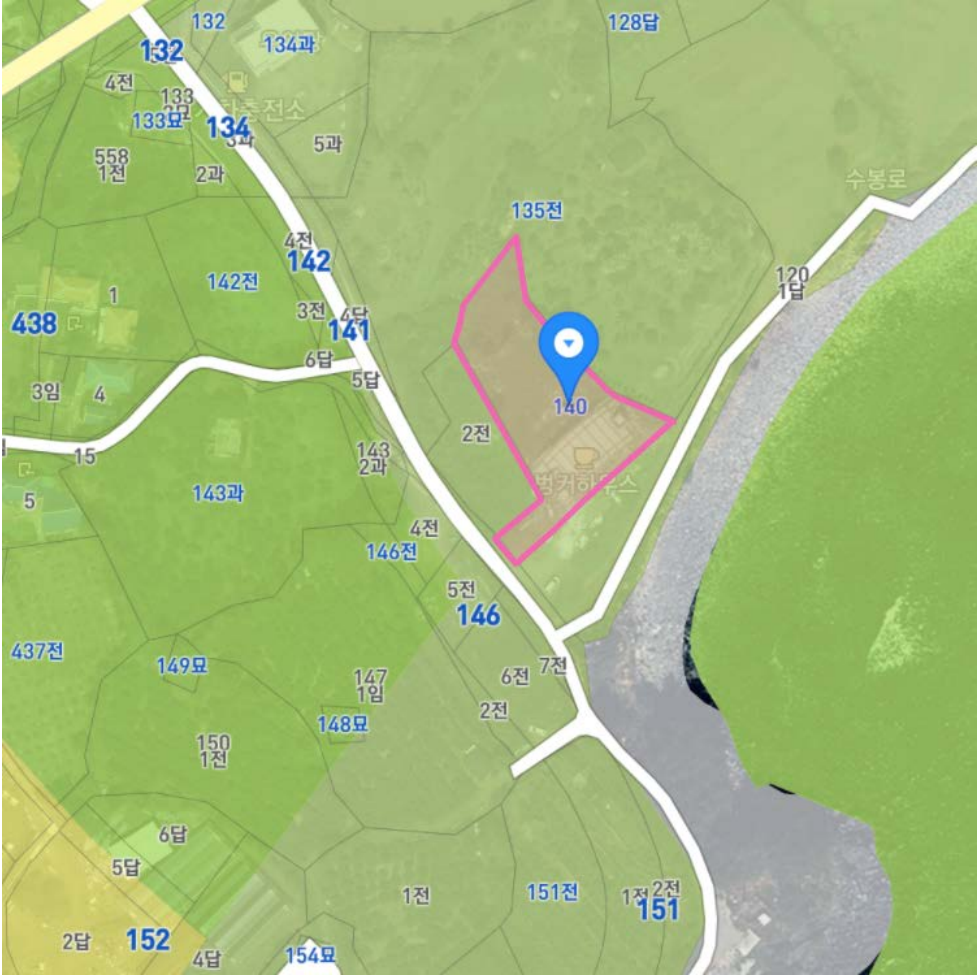
2) 문제점

- 4·3 당시 유적지 원형이 잘 남아있지 않음. 이후 호텔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방치되고 있음.
- 단추공장 옛터는 제주도 주정공장 옛터와 유사하게 서귀포 주민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민간인수용소 가운데 한 곳임. 대표적인 서귀포 지역 민간인수용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법환리 4·3성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41번길 66(법환동)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40537, 126.519174</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법환리 4·3성은 1949년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토벌대는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주민들을 동원해 가축 울타리 돌담과 논밭 경계 돌담까지 옮겨가며 성담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음. 『법환리향토지』(2000)에 따르면 “폭도들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 주민을 동원해 가축 울타리 돌담과 인근 논, 밭 경계의 돌담까지 운반하며 성담을 쌓았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송*심	
기타			

2) 문제점

- 법환리 4·3성터 주변 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점점 더 훼손되고 수풀이 우거져 당시의 흔적을 잘 알 수 없음.
- 법환리 4·3성터는 서귀포 지역 해안마을이었던 법환리 주민들이 4·3 당시 토벌대로부터 성담 건설 노역에 동원되는 등 수난을 겪은 역사의 현장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중문신사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49(중문동 1498-1번지)
위치(위경도)	<p>33.253293, 126.421061</p> 
조사일	2020. 9. 11(금)
유적지 개요	<p>중문 신사터는 4·3 당시 토벌대가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학살했던 장소임. 특히, 1948년 12월 17일, 제2연대와 교체를 앞둔 제9연대 토벌대는 ‘마지막 토벌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에서 주민들을 학살했음. 이날에만 3살 난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20여 명이 신사터에서 총살됨. 현재 이곳에는 중문성당이 있음. 학살이 자행된 장소는 성당 건물 뒷편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고 함. 중문성당은 2018년 10월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4·3기념성당’으로 지정했으며, ‘4·3기념 십자가’를 세웠음.</p>
안내판 설명 1	<p>[한글] 4·3 기념 십자가 제주4·3을 우리 신앙속에서 기억하고, 이를 새로운 평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하여 모든 제주 교구민의 마음을 모아 여기 제주4·3기념 십자가를 세웁니다. 2018년 10월 11일 제주교구 중문성당 교우 일동</p> <p>[영문] 없음</p>



유적지 안내판
2

[한글]제주4·3중문리 신사터(현 천주교 중문성당)
중문리 집단 학살터 중 가장 참혹한 학살극이 벌어진 곳은 중문리 '신사터'이다. '신사터'는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 중문천주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문리 주민 34명을 비롯하여, 강정리 주민 6명, 대포리 주민 1명, 도순리 주민 2명, 상예리 주민 2명, 상천리 주민 5명, 색달리 주민 17명, 하예리 주민 2명, 하원리 주민 1명, 회수리 주민 1명 등 총 71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12월 17일 중문리 주민 20여 명은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80대 노인에서부터 2살 난 아기에 이르기까지 무참히 희생됐는데, 일가족이 함께 집단 총살되는 비극이 많았다.

1. 중문리

중문리 '신사터'에서 집단 총살당한 중문리 주민은 전부 34명이다. 1948년 11월 12일 이유도 모른 채 2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고, 동년 12월 5일 무장대 관련자로 오인 받아 토벌대(경찰, 9연대)에 의해 8명이 희생되었다. 동년 12월 17일 도피자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20명이 토벌대(경찰, 9연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후 동년 12월 22일 1명, 12월 24일 1명, 1949년 1월 5일 1명, 1949년 1월 8일 1명이 무장대 관련자로 오인 당해 토벌대(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2. 강정리

중문리 '신사터'에서 총살당한 강정리 주민은 전부 6명이다. 1948년 12월 10일 임수연의 일가족, 처와 며느리, 손자, 손녀 등 5명은 아들 임경욱이 무장대 관련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병출은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토벌대(경찰)에 의해 집단 총살당했다.

3. 대포리

희생자 임선은 아들 전재평의 행방을 모른다하여 도피자 가족으로 오인 받고, 1948년 12월 15일 중문리 '신사터'에서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했다.

4. 도순리

중문리 '신사터'에서 총살당한 도순리 주민은 2명이다. 희생자 이평연은 1948년 11월 25일 토벌대에 연행된 후 희생되었고, 한봉옥은 12월 1일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토벌대(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5. 상예리

희생자 강시인은 무장대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1948년 11월 17일, 희생자 김경 1949년 1월 5일 도피자라는 이유로 중문리 '신사터'에서 응원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6. 상천리

중문리 '신사터'에서 총살당한 상천리 주민 5명은 일가족이다. 부친 정태옥이 1948년 12월 15일 군인에 의해 연행된 후 총살당한 후, 처 백유생과 딸 3명은 동년 12월 18일 연설이 있으니 모이라고 하여 중문지서에 모였다가 남편 정태옥이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자 중문리 '신사터'에서 총살당했다.

7. 색달리

중문리 '신사터'에서 총살당한 색달리 주민은 전부 17명이다. 1948년 10월 11일 희생자 변상천은 도피생활을 하다가 순경에게 발각되어 연행된 후 총살당했으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행방불명되었다. 동년 11월 11일 희생자 김정수는 무장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문지서에 연행된 후 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동년 12월 5일 고두회 외 1명은 무장대 관련자로 오인 받아 총살당했고, 동년 12월 16일 최기열의 일가족 아들과 딸 등 6명은 남편 송희창이 입산하자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후 토벌대(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이어 12월 17일 강유생 외 6명은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후 토벌대(경찰)에 총살당했다.

8. 하예리

1948년 12월 10일 무장대 관련자로 오인 받고 부부 2명이 중문리 '신사터'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9. 하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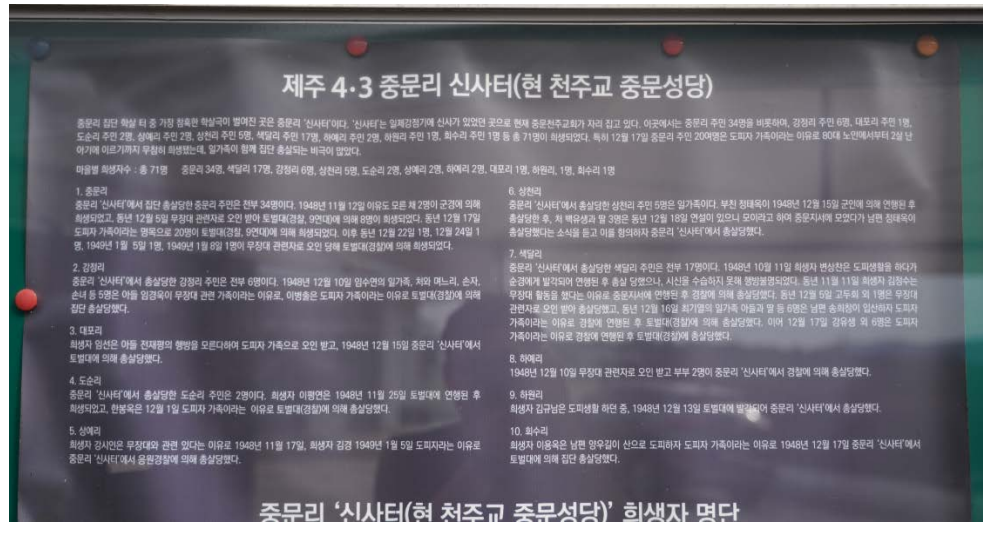
희생자 김규남은 도피생활 하던 중, 1948년 12월 13일 토벌대에 발각되어 중문리 '신사터'에서 총살당했다.

10. 회수리

희생자 이용옥은 남편 양우길이 산으로 도피하자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1948년 12월 17일 중문리 '신사터'에서 토벌대에 의해 집단 총살당했다.

중문리 '신사터(현 천주교 중문성당)' 희생자 명단 (희생자 명단 생략)

[영문] 없음



유적지 안내판
3

제주4·3기념성당
알아야 하는 역사, 기억해야 하는 이름, 제주4·3

제주 4·3 사건의 개요

■ 배경

(사진설명)해방의 감격. 1945년 8월 15일, 35년간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았으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이뤄졌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떠나 살던 7만 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해방 직후 부푼 희망을 품고 고향 제주로 돌아오면서 해방 전 22만여 명이던 제주 인구가 해방 후에는 27만 6천여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치안 활동에 주력하면서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고 토지, 산업시설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면별로 초등학교, 중학원을 설립하면서 자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실제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도내 각 면과 마을 행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군은 1945년 9월 28일 제주에 들어왔고 이후 군정업무를 담당하는 제 59군정중대가 11월 9일 들어왔지만 당시 이미 자치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제주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설명) 7만 인구의 귀환.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떠나 살던 7만 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해방 직후 고향 제주로 돌아오면서 해방 전 22만여 명이던 제주 인구가 해방 후에는 27만 6천여 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하지 않았고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1946년 8월 1일 제주도(島)가 행정구역인 제주도(道)로 승격되면서 경찰 병력이 증강되고 조선경비대 9연대가 창설되는 등 공권력이 강화되자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 강행은 도민들의 불만을 가져왔고 광복 직후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양곡 부족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였고 더구나 전국적인 가뭄 속에서 갑작스럽게 인구가 유입된 제주도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미군정은 보리까지도 거두어들이는 미곡 정책 실패로 생존이 위협받는 경제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발단

인민위원회의 좌익진영은 해방 2주년이 되는 1947년 3월 1일 기념식을 전도민적 행사로 치르기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좌익진영(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미군정 당국이 몇 차례 만나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충남·북 응원경찰 100명을 제주에 급파하며 비상경계에 들어갔고 좌익진영이 주관하는 3·1절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되었습니다.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 여명이 모였습니다. 행사 후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관덕정 부근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차여 다치게 됩니다. 이때 기마경찰이 어린이를 방치하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은 기마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했던 무장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총격을 가하면서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15세 국민학생과 젓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총격에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림설명)발포(강요배 작). 관덕정 광장에서 무장경찰의 발포로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이 총격사건 이후 제주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듬해 4·3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기점이 되었다.

이 발포 사건으로 제주도내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미군정과 경찰이 사태 수습보다 시위 주동자 검거에 주력하자 1947년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 등 도내 156개 기관단체 직업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민의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의 경찰들과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을 동원하여 총파업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가혹한

타압을 하였고 고문으로 사망까지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민심의 분노는 끓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1948년 4월 3일 새벽에 12개 경찰지서와 우익인사와 우익청년단체를 급습하면서 총파업을 통한 항쟁은 무장투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설명)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서북청년회. 제주도가 '붉은 섬'으로 지목되면서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빨갱이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하였고, 이는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전개

미군정은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전라남도 경찰 약 100여명을 응원대로 제주에 급파하는 한편 서청(기독교서북청년단) 단원들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4월 17일 미군정은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9연대에 사태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비해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9연대는 이 사건을 경찰 및 서청과 같은 극우 세력의 횡포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무장대와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4월 말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측 군사총책 김달삼이 만나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뤄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군정 하지 사령관은 무력 진압 방침을 세웠고, 평화협정 직후인 5월 1일 우익청년들이 오라리 마을에 방화를 저지르고 미군정과 경찰이 이를 폭도들의 행위로 조작하면서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고 박진경 중령이 9연대를 지휘하면서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강경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설명)제주에 모인 군경 최고 수뇌부. 1948년 5월 5일 딘 군정장관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욱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 사령관 등 군경 수뇌부를 이끌고 제주를 방문해 비밀회의를 열었다.

무장대는 5월 10일 남한의 단독 선거에서 적극적인 거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소를 집중 공격하고 선거관계 공무원을 납치·살해하는 한편, 선거인명부를 탈취했습니다. 5월 10일 선거 당일에 무장대는 중문-표선-조천 등지에서 투표소를 공격했으며 다수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하여 입산, 선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전국 200개 선거구 중에서 3개의 선거구가 있던 제주도의 북제주군 2개 선거구가 유일하게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미군정은 5·10 선거의 거부를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8,000여명을 검거하는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토벌에 반대하여 9연대 병사들이 집단으로 탈출하였고 6월 18일에 9연대장 박진경이 부하에게 사살됩니다. 미군정은 8,000여명에 달하는 입산자를 붙잡으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대학살

(사진설명) 대한민국 정부 수립.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서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 공포한다. 이 헌법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사진설명)해주대회에 참가한 김달삼. 1948년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북한 정권의 수립을 위해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 1,002명 중에는 김달삼을 비롯한 제주 대표 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9월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조국 분단이 현실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의 소요 사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더구나 김달삼을 비롯한 무장대의 지도부가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는 더욱 정부의 강경 진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9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의 사람들을 모두 폭도로 간주하여 사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었고 결국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1949년 3월까지 참혹한 집단 살상이 발생합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소개령이 내려졌으나 병자, 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소개령을 전달받지 못한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인과 경찰에 의한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방화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더구나 해안마을로 피했던 사람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라지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학살이 주민들을 공포로 빠트려 오히려 주민들이 도피 입산하게 만들면서 수많은 주민의 희생과 사태의 장기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3월까지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중산간 마을 130여곳이 초토화되면서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비검속

1949년 3월부터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주겠다.'는 선무공작을 폈고 이에 따라 많은 입산자들이 귀순했다. 이들은 젊은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 어린이, 노인들까지도 제주읍내 주정공장 등 임시수용소에 가두어졌다. 군당국은 원래의 외유 방침을 무시하고 이들을 강경처리하면서 형량도 죄명도 모른 채 형식적인 군법회의를 거쳐 1,650여명의 귀순자들은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949년 6월 7일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경찰의 작전에 의해 사살되면서 사태가 마무리 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습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심문을 받기 위해 끌려온 수용자들. 귀순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했던 제주항 부근의 주정공장. 산에서 내려온 주민들 가운데 일부 노약자들은 곧 풀려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주정공장 등 수용소에 수개월 동안 감금된 채 철저히 심문을 받았다. 그 사이 오랜 피난생활의 후유증으로 병들어 죽기도 했고 이 비참한 집단수용소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다.

1959년 8월 17일 당시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검속 된 자의 수는 1,120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서귀포, 제주항 앞바다, 제주읍 비행장, 송악산 첫알오름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암매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 7개월 동안 고립된 섬 제주에서 당시 주민의 10분의 1이 넘는 3만 여명의 사람들이(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추산) 희생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계속된 비극

1954년 4·3사건이 종결된 이후 폐허가 된 마을의 복구와 정착사업이 본격화되었으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지어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산간 지대에 살던 주민 절반은 복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새로운 주민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마을'이 제주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은 그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보도연맹원 2만7,000명과 5만여 명의 사건 관련자 가족들이 사찰 당국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은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갖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가 4·3 유가족 7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86%가 공무원 임용시험,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 국·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이나 승진, 군·경찰의 승진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과정이나 일상생활 감시 등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폭력적 대립 속에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이들의 후손들과 가족들도 서로 반목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진설명) 1960년대 복귀 주택 기공식에서 첫 삽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산간 마을 재건사업은 6·25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지금·자재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 후 실시한 '난민정착사업'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사진설명)관덕정 옆에 걸린 이덕구의 시체. 1949년 6월 7일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됐다. 무장대는 이미 와해된 상태였지만 이덕구는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경찰은 제주읍 중심지인 관덕정에 이덕구 시체를 나무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어린 학생들까지 구경하도록 했다.

(사진설명)대전형무소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1950. 7.). 예비검속이 실시된 후 전국 형무소에 수용된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등 수천 명이 한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 이들 중 제주 4·3 관련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설명) 대구 부역자 학살사건(1951. 4.). 왼쪽에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현장을 감독·기록하는 미군의 뒷모습이 보인다. 보도연맹 학살 집행은 국군과 경찰이 했더라도 명령권은 미국사령관에게 있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4·3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사 정권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논의는 약 20여 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1980년 후반 민주화 운동 이후 4·3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일어났고 1987년 시민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4·3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1999년 3월 결성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여 제주 '4·3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의하여 2003년 10월 15일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4·3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24일에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여 4월 1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주4·3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4월 2일 교종 프란치스코의 제주4·3희생자들을 위한 위로메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4월 3일 제주4·3 70주년 국가 추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 명동성당에서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히지노 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되었고 이 미사 강론에서 제주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는 공식적으로 아직 정명을 갖지 못한 제주4·3을 '항쟁'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렇듯 제주4·3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참된 정의와 진정한 평화의 교훈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사진설명)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4·3 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 유족들과 악수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서 2000년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하여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진설명)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사진설명) 천주교 제주교구 '4·3 70주년 특별위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4·3위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2018. 4. 2)/ 교황 프란치스코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주4·3을 기억하는 기도
(내용 생략)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휠체어 장애인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 중문 '신사터'에서 발생한 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음 - 4·3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추가로 있어 중문 신사터 뿐만 아니라 전체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음. - 성당 부지 내에 있는 안내판은 별도의 관리 주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성당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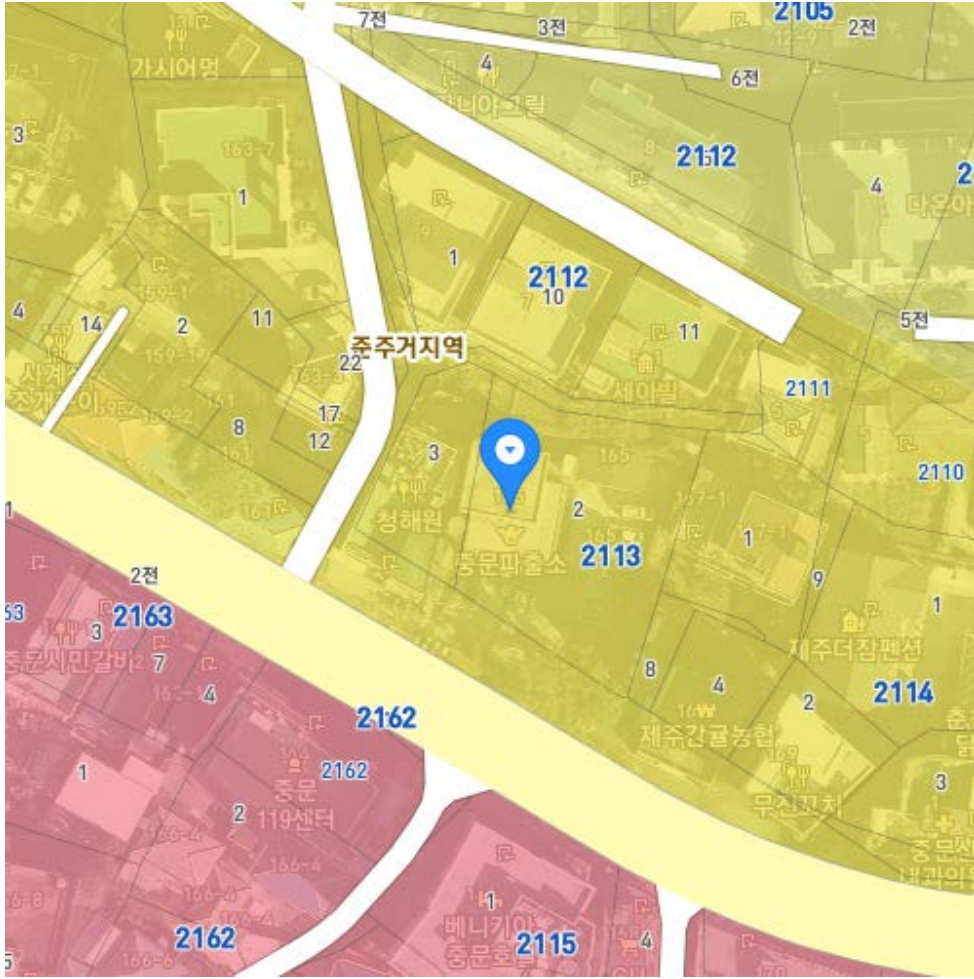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진입로 경사가 급해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혼자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로 입구에도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중문지서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65(중문동 2113-2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52381, 126.422594</p> 
조사일	2020. 9. 11(금)
유적지 개요	<p>중문지서는 4·3이 발발한 이후 인근지역의 토벌대의 총본부 역할을 했음.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대, 서북청년단, 군인들이 지서를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주둔해 토벌을 벌임.</p> <p>앞서 1947년 3월에는 3·1절 발포사건으로 일어난 3·10 총파업에 당시 중문지서 소속 경찰관 6명 전원이 동참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음. 이어 인원을 메우기 위해 온 응원경찰들이 마을 유지들을 구속하자 주민들이 대거 지서로 몰려가 시위를 벌임. 이 시위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향해 총기를 발포,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음.</p> <p>한편 인민유격대는 1948년 11월 5일 중문지서를 습격, 이날 교전으로 중문지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3명과 군인 1명이 사망함. 또 중문면사무소를 비롯해 중문지서 주변 민가 40여 채가 불에 탔음. 토벌대는 이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함.</p> <p>현재 이 자리에는 중문파출소가 있음. 현재 파출소 건물은 2010년대 초에 기존 파출소 건물의 서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며, 기존 건물은 철거됐다고 함.</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경찰청	
기타			


2) 문제점

- 중문지서는 1947년 민중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무력사용에 항의하여 전도적으로 일어난 3·10총파업에 동참한 경찰관들이 근무했던 곳이자, 4·3 발발 직후 토벌대의 총본부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학살을 주도하는 등 4·3을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임.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3·10 총파업 당시 중문지서 경찰관들은 “우리 중문지서 직원 일동은 오늘까지 치안확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봉직하여 왔으나 금번 발포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적 정신은 수포로 화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악독한 명령을 복종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떠난다”는 내용의 담화를 중문지서 앞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직했음. 이는 성산지서에서 군의 부당한 학살 명령에 불복하고 주민들을 석방한 문형순 서장의 정신을 연상케 함.
한편, 이들이 사직한 후 중문지서에서 근무하게 된 응원경찰은 주민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섬. 이는 4·3 당시 경찰의 명(明)과 암(暗)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안내판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중문리 서북청년단 사무실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165-2번지
위치(위경도)	<p>33.252250, 126.421386</p> 
조사일	2020. 9. 11(금)
유적지 개요	<p>이곳은 서북청년단원들이 1947년부터 머물렀던 민가가 있던 자리임. 원래는 2층 건물이 있었다고 함. 서청단원들은 이곳에 머물며 주민과 관공서에 갖은 행패를 부렸음. 특히, 1948년 11월 5일 인민유격대의 중문지서 습격사건 이후 이들 중 일부가 경찰이 되어 마을에 배치됨. 이들이 중문지역 주민들에 대한 학살을 주도함. 2020년 9월 현재, 건물이 철거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해성파크텔'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연	
기타			

2) 문제점

- 4·3 당시 이 장소와 관련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 4·3이 진행되면서 서북청년단은 단순히 금품을 빼앗는 폭력집단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무장세력으로 세력화됨. 이를 위시해 무장한 사설단체원인 서청, 서청 위주의 특별중대 등 세 집단의 서청이 토벌을 주도하게 됨. 제주도 전역에서 서북청년단의 만행이 흔하게 발생했지만, 당시 중문면에서는 지서 순경들도조차 고개를 흔들 정도로 서청의 만행이 극심했다고 함. 이는 공권력을 업은 폭력집단의 세력화가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임. 이에 다크투어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3) 개선방안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삼면원혼제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북로 87(하원동 762-1번지)
위치(위경도)	<p>33.270406, 126.461609</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이곳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유족들이 조성한 공간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과 반정부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음. 서귀포경찰서는 관할지역인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예비검속자를 잡아들여 구금했다가 재판도 없이 해병대에 인계해 학살에 일조함. 희생자들은 서귀포 옛 절간고구마 창고에 구금됐다가 그 해 7월 29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해병대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p> <p>유족들은 2001년 7월 24일 서귀포 휴양림 거린사슴에서 처음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음. 이를 계기로 같은 해 8월 삼면유족회를 결성하게 됨. 2002년 3월부터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위령제단 조성을 진행해 2004년 완공함. 이후 삼면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학살된 날로 추정되는 음력 6월 15일을 추모의 날로 정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음. 이즈음 학살된 민간인은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족을 찾지 못해 우선적으로 확인된 80명의 이름만 위령비에 새겼다고 함.</p>
안내판 설명1	<앞면>

	<p>[한글] 삼면원혼제단의 내력비</p> <p>[영문] 없음</p> <p><우측면></p> <p>[한글] 이 비는 남제주군(군수 강기권)의 지원으로 건립하여 유족을 대표하여 그 고마움을 표한다 유족회장 고흥길</p> <p>[영문] 없음</p> <p><뒷면></p> <p>[한글] 서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때 정부(대통령 이승만)에서는 예비검속령을 발령하여 무고한 양민을 구속학살했다. 제주에서도 각경찰서별로 무고한 양민을 구속하였고 이구속자들을 재판판결도없이 공산주의자취급 제주주둔해병대에 인계학살했다.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다. 제주도에에는 제주, 서귀, 모슬포, 성산포 등 4개소에 경찰서가 있었고 서귀경찰서의 관할은 남제주군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등 3개면이었다. 서귀경찰서에서도 이3개면의 무고한 양민 200여명을 당시 중문면서귀리 587번지 오일시장내 옛 절간고구마 창고에 구금했다가 그해 7월29일(음력 6월 15일)과 8월10일(음력 6월27일) 두차례 제주주둔해병대에 인계 바다에서 학살수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에서 예비검속자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알수없다. 본증증장단(증장 이방춘)이 당시 당시 모슬포주소를 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모르는일이라는 답변이고 또한 해병본대정보과장이었던 고평수는 이 학살사건에 직접관여한것으로 심증이거나 역시 모른다는것이다. 당시 많은 시신이 일본국 대마도에 표류하여 갔다는 소문이 있어 2003년 10월 1일 제주도 4·3유족회에서 대마도 현지에서 위령제봉행시 본증고문김기석씨가 동행 현지에서 탐문한 바 당시 대마도 신문기자 아비유번장씨의 증언인즉 한국 625전쟁때 4·5명씩 사슬에 손이 묶인 시신이 상당수 인양 화장하여 태평양사경내에 남몰하였으며 몇구의 시신은 서산사 뒷산에 매장했다는데 지금은 죽림이 우거져 그 매장장소를 찾을수 없을것같다. 이 시신들이 제주바다에서 표류하여왔음을 입증할수있는 자료는 찾을수 없었다. 분명 여름철 조류여서 제주바다에서 흘러간 시신임이 틀림이없을것으로 심증이되나 입증하지 못하여 유해를 모셔오지 못하고있다. 이시신이 제주인 유해임을 입증할수있는 자료수집에 노력할 것이다. 입은있어도 말못하든 세월 50년이 지난 2001년 7월24일(음력 6월15일) 서귀포 휴양림 거린사슴에서 삼면의 유족들은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8월에 삼면유족회를 결성(회장이방춘) 매년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기로 하고 2002년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지원으로 서귀포시 하원동 762번지1의 528평 부지를 매입 제단조성사업을 시작 2004년에 완공했다. 삼면유족들은 처음끌려가 학살당한 날로추측되는 음력6월15일을 추모의날로하여 매년 이날에 위령제를 봉행한다. 위령비에 학살당한 80합자가 새겨져있다. 그수가 200위가 넘을것으로 추측되나 유족들을 찾지 못하여 모두를 기록하지 못한 한을 금할수 없다. 서기2002년 12월2일 삼면유족회</p> <p>[영문] 없음</p>
--	--



<p>안내판 설명 2</p>	<p><앞면></p> <p>[한글] 삼면원혼위령비</p> <p>[영문] 없음</p> <p><좌측면></p> <p>[한글] 유월의 하늘을 우러르며 저 높은 유월의 하늘 너머로 맷바람 일더니</p>
------------------------	--

하얗게 흩어져오는 구름들을 보는가
구천세계 건너오듯
한라산 영실 숲 계곡을 따라
여기 정기 서린 별바른 터에
그대들 영원한 안식의 자리 펴게 하였도다

육신이야 있건 없건
그대들 소중한 함자의 영전에
혈연의 싹피줄인양
향심지 피워 올리면
우리네 가슴으로 여미져 오더이다
무심한 세월 흘러보내고
저 피안의 바다 건너
소용돌이 쳐오는 물결에 밀려
이제 새삼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들
사유의 푸른 날들과 잊지 못할 추억들

비록 우리네 살림 고단할지언정
형님 아우라 서로 부르며
정겨움 하나로 믿고 의지하던
선량한 이웃들

이제 유월은 오고
불꽃들은 다시 돋는데
어디선가 슬픔의 낯이 된 새들이여
이제 그만 돌아와 울어라

운명의 지침이야 되돌이킬 수 없으되
우리 유족들의 지성 모아
여기 빗돌을 세우고
참 역사 증언의 글귀들을 새겨놓음이니
유월의 하늘 다시 우러르며
그대 원혼들의 제단에 엮드려
명복의 잔을 올리오니
부디 고이 영면하소서


정우 김용길 헌시

<우측면>

[한글]

서기 1950년 6월 25일 이땅에 전쟁이 발발 화약 냄새가 가득한 그날부터
삼면(서귀면, 중문면, 남원면)의 님들은 연유도 모른 채 끌려가 예비검속령으로
구금(서귀포 587번지 당시 서귀포 오일시장 내 창고)되었다가 그해 7월 27일(음력
6월 15일)부터 수차례 트럭에 실려나간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님들의
족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오늘까지 백방으로 님들의 족적을
찾으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유족들은 정성을 모아 제주도의 지원으로
서귀포시 하원동 762의 1번지 528평의 부지를 매입 원혼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무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이곳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문민정부에서 주창하던 역사 바로세우기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주도
4·3특별법 입법으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의 명예회복은
물론 4·3 위령 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 즈음하여 제주도에서도
삼면원혼의 넋을 달래고 우리 유족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위령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님들의 유지를 기리는 마음 한이 없사옵니다.
원혼이시여 이 제단에 고이 안식하옵소서. 명복을 빌며 삼가 이 비를 세웁니다.

서기 2002년 4월 5일

	<p>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지원으로 삼면유족회가 세움 초산 김기석 계 나석 현민식 씬 [영문] 없음</p> <p><뒷면> 희생된 원혼의 함자를 비에 새김에 있어 그 위수는 상당할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나 5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족들이 고향을 떠나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어 유족 모두를 찾지 못하여 같이 돌아가신 분 모두의 함자를 새기지 못함이 애석하오나 찾는 데로 추가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주소를 당시 주소로 새깁니다.</p> <p>중문면 (명단 생략) 서귀면 (명단 생략) 남원면 (명단 생략)</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3</p>	<p>[한글] 삼면원혼제단</p> <p>[영문] 없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3면(중문면, 서귀면, 남원면)의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유해를 찾기 위한 유족들의 노력, 유족회 설립 경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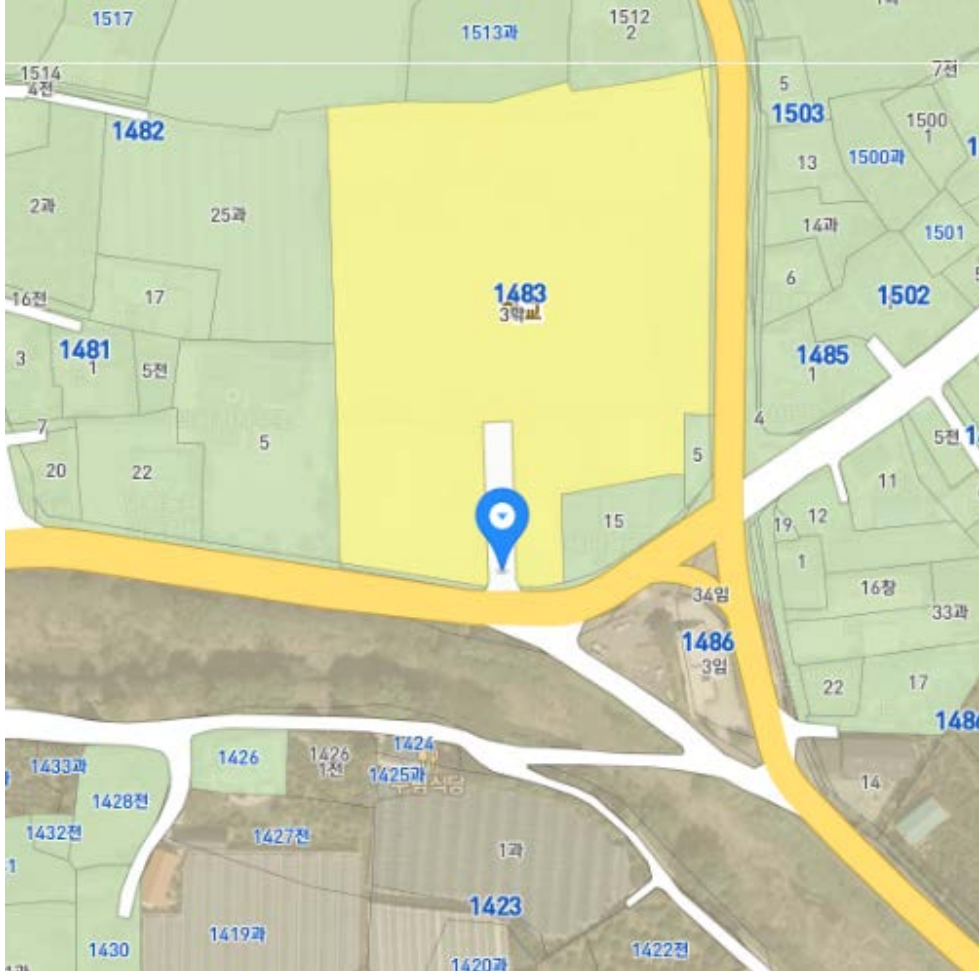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7.서귀포시 남원읍/표선면

의귀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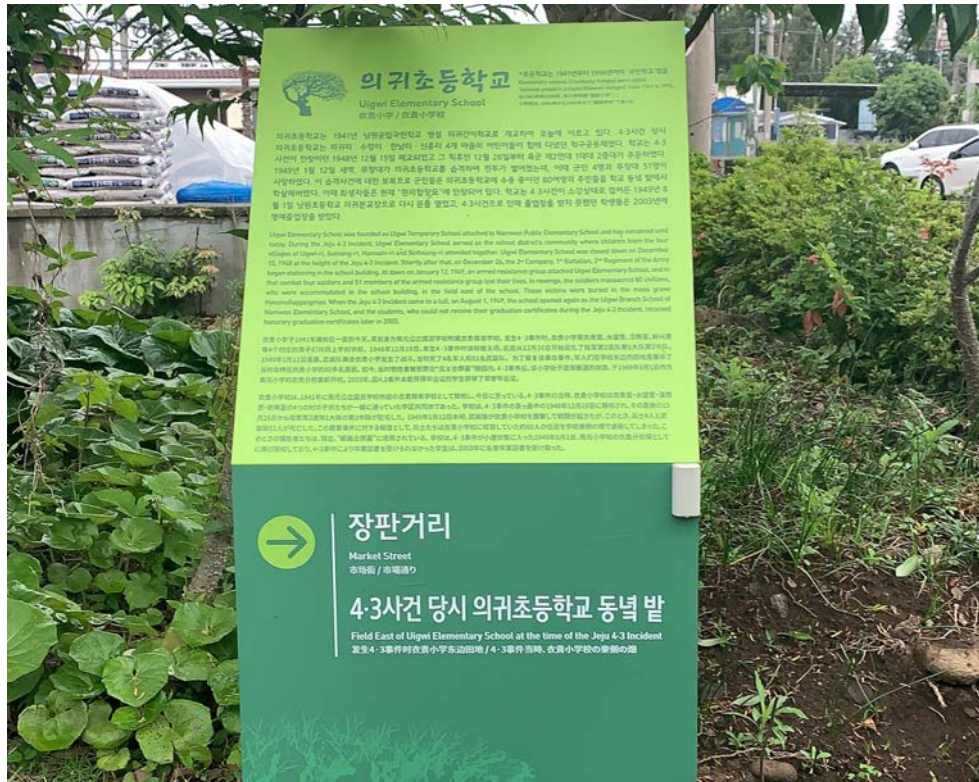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의귀리 1483-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09949, 126.714157</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제2연대 1대대 2중대가 1948년 12월 26일부터 1949년 1월 20일까지 주둔한 장소임. 인민유격대는 1949년 1월 12일 새벽 6시 30분께 의귀리에 주둔하고 있는 2연대 2중대를 습격했다가 패퇴했음. 토벌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주민 80여 명을 학교 인근 밭으로 끌고가 사살함. 이날 희생된 주민들은 현재 현의합장묘에 안장되어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의귀초등학교 *초등학교는 1941년부터 1996년까지 ‘국민학교’였음. 의귀초등학교는 1941년 남원공립국민학교 병설 의귀간이학교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는 의귀리·수망리·한남리·신흥리 4개 마을의 어린이들이 함께 다녔던 학구공동체였다. 학교는 4·3사건이 한창이던</p>

1948년 12월 15일 폐교되었고 그 직후인 12월 26일부터 육군 제2연대 1대대 2중대가 주둔했다. 1949년 1월 12일 새벽, 무장대가 의귀초등학교를 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때 군인 4명과 무장대 51명이 사망했다. 이 습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은 의귀초등학교에 수용 중이던 80여명의 주민들을 학교 동녘 밭에서 학살해버렸다. 이 때 희생자들은 현재 "현의합장묘"에 안장되어 있다. 학교는 4·3사건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1949년 8월 1일 남원초등학교 의귀분교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고, 4·3사건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2003년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영문]

Uigwi Elimentary School * Elementary schools (Chodeung Hakgyo) were called 'national people's schools (Gukmin Hakgyo)' from 1941 to 1996.

Uigwi Elementary School was founded as Uigwi Temporary School attached to Nanwon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has remained until today. During the Jeju 4·3 Incident, Uigwi Elementary School served as the school district's community where children from the four villages of Uigwi-ri, Sumang-ri, Hannam-ri and Sinheung-ri attended together. Uigwi Elementary School was closed down on December 15, 1948 at the height of the Jeju 4·3 Incident. Shortly after that, on December 26, the 2th Company, 1st Battalion, 2nd Regiment of the Army began stationing in the school building. At dawn on January 12, 1949, an armed resistance group attacked Uigwi Elementary School, and in that combat four soldiers and 51 members of the armed resistance group lost their lives. In revenge, the soldiers massacred 80 civilians, who were accommodated in the school building, in the field east of the school. Those victims were buried in the mass grave Hyeonwihapjangmyo. When the Jeju 4·3 Incident came a lull, on August 1, 1949, the school opened again as the Uigwi Branch school of Nanwon Elementary School and the students who could not receive their graduation certificates during the Jeju 4·3 Incident, received honorary graduation certificates later in 2003.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020년 9월 조사 당시 훼손이 심각했던 '의귀초등학교' 안내판이 안내판 시트지 교체로 개선되어 있었음. (2021년 5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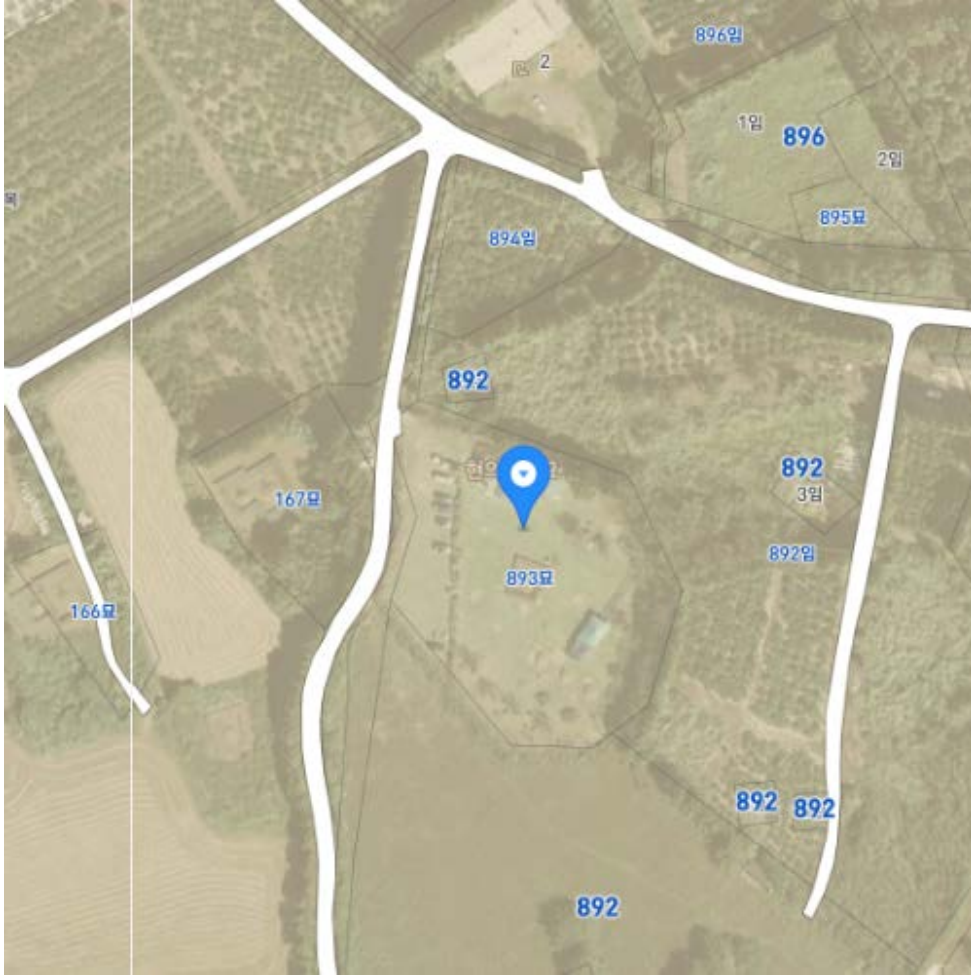
2) 문제점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이 학교 정문 화단에 있어 이동약자의 경우 접근이 어려움.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이동약자들도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 위치를 조정해야 함.

현의합장묘(신묘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6242-56(수망리 893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27621, 126.701675</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이곳은 1949년 1월 12일 의귀국민학교 인근 밭에서 토벌대(2연대 군인)에 의해 학살된 주민들의 유해를 안장한 묘역임. 이곳에 모셔진 유해는 원래 제3의귀교 인근 구묘역(남원읍 의귀리 765-7번지)에 안장되었으나 2003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해 발굴 및 추도식을 갖고 현재의 신묘역으로 안장함.</p> <p>토벌대는 1949년 1월 12일 새벽 의귀국민학교에서 인민유격대의 습격을 받고, 이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에 수용되었던 주민 80여명을 학교 인근 밭으로 끌고가 학살함. 당시 희생된 주민들의 시신은 몇 개월 간 방치됐음. 이후 경찰의 명령을 받은 민보단은 성안에 있는 공터에 시신들을 옮겨와 세 개의 구덩이를 파고 매장했음. 이곳이 현의합장묘 구묘역임.</p> <p>이후 십여년이 흘러 유족들은 구묘역에 봉분을 쌓고 산담을 쌓는 등 정비를 하고 해마다 성묘를 했음. 이후 1964년 '삼묘동친회'를 결성하고, 이어 1983년에는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묘비를 세움. 20년 후인 2003년 9월에는 현재의 신묘역으로 이장함.</p>
안내판 설명 1	[한글] 현의합장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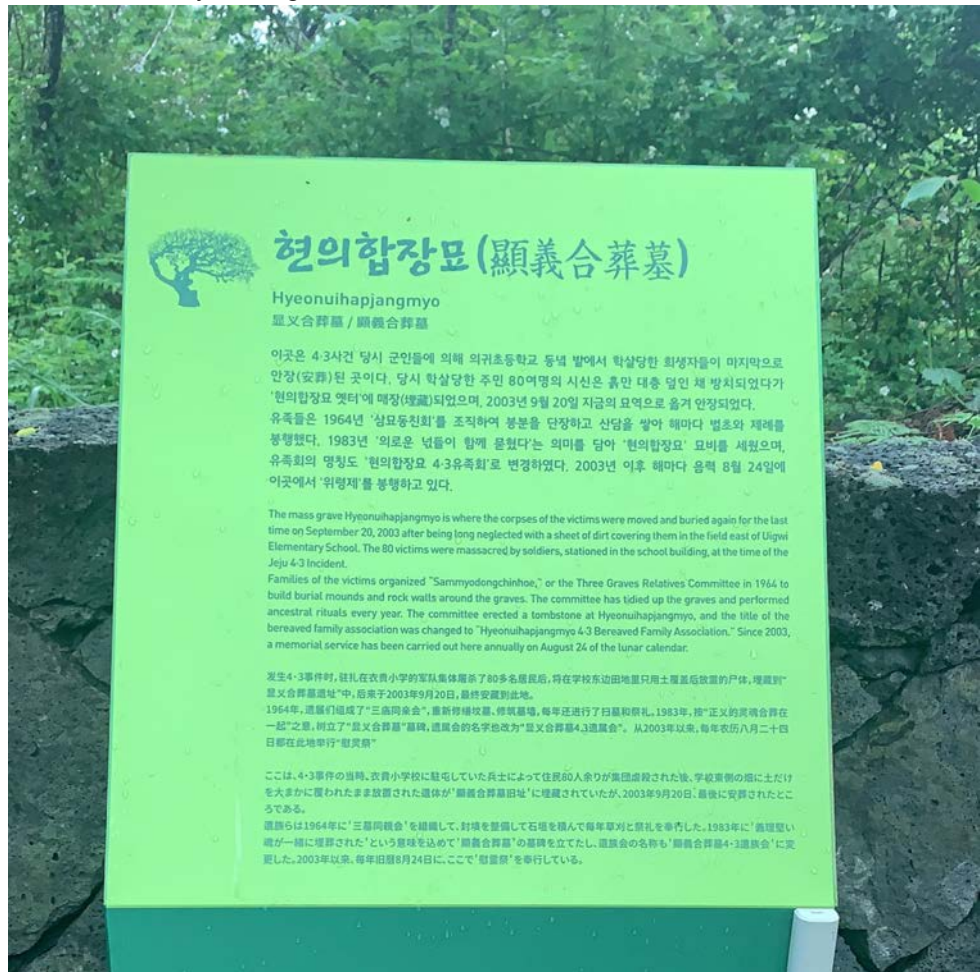
이곳은 4·3사건 당시 군인들에 의해 의귀초등학교 동녘 밭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안장된 곳이다. 당시 학살당한 주민 80여명의 시신은 흙만 대충 덮인 채 방치되었다가 '현의합장묘 옛터'에 매장되었으며, 2003년 9월 20일 지금의 묘역으로 옮겨 안장되었다.
 유족들은 1964년 '삼묘동친회'를 조직하여 봉분을 단장하고 산담을 쌓아 해마다 별초와 제례를 봉행했다. 1983년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다'는 의미를 담아 '현의합장묘' 묘비를 세웠으며, 유족회의 명칭도 '현의합장묘 4·3유족회'로 변경했다. 2003년 이후 해마다 음력 8월 24일에 이곳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영문]

Hyeonuihapjangmyo

The mass grave Hyeonuihapjangmyo is where the corpses of the victims were moved and buried again for the last time on September 20, 2003 after being long neglected with a sheet of dirt covering them in the field east of Uigwi Elementary School. The 80 victims were massacred by soldiers, stationed in the school building, at the time of the Jeju 4·3 Incident.

Families of the victims organized "Sammyodongchinhoe" or the Three Graves Relatives Committee in 1964 to build burial mounds and rock walls around the graves. The committee has tidied up the graves and performed ancestral rituals every year. The committee erected a tombstone at Hyeonuihapjangmyo, and the title of the bereaved family association was changed to "Hyeonuihapjangmyo 4·3 Bereaved Family Association." Since 2003, a memorial service has been carried out here annually on August 24 of the lunar calendar.



<p>안내판 설명2</p>	<p>[한글] 현의합장묘 내력 전대미문의 비극 '4·3'은 기어이 이곳 한라산 남동쪽 자락에도 피바람을 몰고 왔다. 의귀리 약 300명, 수망리 100여 명, 한남리 100여 명 등 수많은 인명이 사태 중에 희생되었고,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80여 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학살되는 참사까지 발생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었다. 의귀·수망·한남리에 대한 초토화작전은 다른 지역보다 열흘 쯤 앞선 1948년 11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토벌대는 이곳 중산간 지역에 집집마다 불을 지르면서 학살도 서슴지 않았다. 순식간에 삶을 잃은 주민들은 불타버린 집주변과 돌담 밑에서 기거하거나 산으로 숨어들었다. 당시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2연대 1대대 2중대는 수색 중에 발견되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가 하면 일부는 학교 안에 임시로 수용했다. 토벌대는 수용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고문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학살도 일삼았다. 이에 무장대는 이들 주민의 안위를 도모함과 동시에 토벌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949년 1월 10일(음력 1948년 12월 12일 새벽) 의귀국민학교를 습격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미리 간파한 토벌대의 화력에 밀린 무장대는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채 퇴각했다. 이 사건이 발미가 되어 학교에 수용 중이던 주민 80여 명은 1월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동쪽약 200m 지점(의귀리 1506-6번지)의 밭으로 끌려가 학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구실로 군인들이 양민들을 보복 살해해버린 것이다. 학살 현장에는 죽은 어미의 젖을 빨다 지쳐 쓰러져간 갓난아기의 뉘도 있었다. 시신들은 원만한 수습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일부는 유족이 거두어 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신들은 흙만 대충 덮은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썩어가던 시신들은 그 해 봄 의귀·수망·한남리 주민들이 의귀리 중심지에 성을 쌓게 되면서 한남리 민보단원들에 의해 '개탄물' 동쪽(의귀리 765-7번지)으로 옮겨졌다. 세 개의 구덩이에 던져져 '멜저 담뭇' 매장되고 만 것이다. 사태가 끝나자 유족들은 인고의 세월은 건디며 점차 묘역을 가다듬어갔다. 1964년 12월에 부모형제가 묻힌 땅을 사들인 데 이어, 1968년 봄에 봉분을 단장하고 산담을 쌓아 해마다 벌초와 제례를 행해왔으며, 1983년 봄에는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다는 의미로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라는 이름의 묘비를 건립했다. 그런데 마을길을 몇차례 넓히면서 묘역이 도로에 돌출되는 상황에 이르자 새로운 유족조성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유족들은 2002년 6월부터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으고 관계 요로에 간청한 끝에 수망리 '신산묘(아래아)루' 지경 (893번지)에 새 묘역 부지 5722m²를 마련해 이장케 됐다. 사건발생 54년 만인 2003년 9월 16일 이장을 위해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서쪽 봉분 17구, 가운데 봉분 8구 동쪽 봉분 14구 등 총 39구 (남자 15구, 여자 7구, 청소년 추정 2구 포함한 성별 미상 17구)가 다수의 유물과 함께 확인됐다. 그러나 어린이의 유골을 비롯한 수많은 유골들은 이미 세월의 더께에 흩어져서 가뭇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유족들은 한 구 한 구의 유골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세 봉분의 흙 한 줌씩을 함께 옮겨 넣음으로써 흩어진 유골들을 대신했다. 통곡과 오열 속에 발굴된 유골들은 봉분별로 화장하여 양지바른 이곳, 지세 좋은 자리에 고운 잔디 입혀 2003년 9월 20일 안장됐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기 2004년 10월 7일</p> <p>희생된 넋들 의귀리 (명단 생략) 수망리(명단 생략)</p> <p>[영문] 없음</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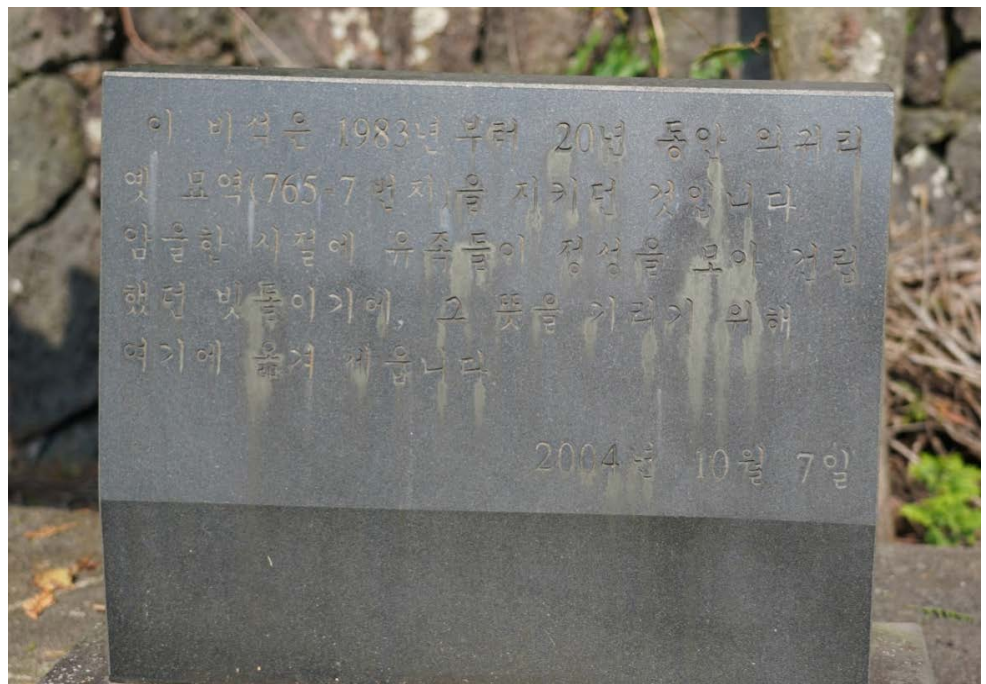


안내판 설명3

[한글]
 이 비석은 1983년부터 20년 동안 의귀리 옛 묘역(765-7번지)을 지키던 것입니다. 암울한 시절에 유족들이 정성을 모아 건립했던 빗돌이기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여기에 옮겨 세웁니다.

2005년 10월 7일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4

[한글]유난히 매섭고 시렸던 무자·기축년 그 겨울 곰도 범도 무서워 잔뜩 웅크려 지내면서도 따뜻한 봄날 오려니 했더니이다. 아, 그랬는데... 거동 불편한 하르방 할망, 꽃다운 젊은이들 이름조차 호적부에 올리지 못한 물애기까지 악독한 총칼 앞에 원통하게 스러져 갔나이다 허공 중에 흩어진 영혼, 짓이겨져 뒤엎킨 육신 제대로 감장하지 못한 불효 천년을 간다는데 무시로 도지는 설움 앞에 행여, 누가 들을까 울음조차 속으로만 삼키던 무정한 세월이여! ‘살았지만 살아져라’ 위안 삼아 버틴 세월이여! 앙상한 어웁발 방앗불 질러 죽이고 태웠어도 뿌리까지 다 태워 없애진 못하는 법 아님니까 봄이면 희망처럼 뼈죽이 새순 돋지 않던가요 참혹한 시절일랑 제발 다시 오지 말라 빌고 빌며 뒤틀린 모진 역사 부채로 물려줄 수는 없다며 봉분 다치고 잔디 입혀 해원의 빛돌 세우나니 여기 발걸음한 이들이여! 잠시 옷깃을 여미어 한 가닥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보듬고 가신다면 헛된 죽음 아니라 부활하는 새 생명이겠나이다

서기 2004년 10월 7일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안내판 1] 2020년 9월 조사 당시 안내판 표면에 균열이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기 전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안내판 시트지 교체로 개선되어 있었음. (2021년 5월 촬영)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묘역 입구 시멘트 포장길로 들어서면 풀밭이 나오는데, 이동약자는 묘역 안쪽으로의 접근이 어려움.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현의합장묘 옛터(구묘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765-7번지
위치(위경도)	<p>33.312531, 126.719834</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이곳은 1949년 1월 12일 의귀국민학교 인근 밭에서 토벌대(2연대 군인)에 의해 학살된 주민들의 유해를 안장했었던 옛 묘역임. 현재의 묘역(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6242-56)으로 이장된 시기는 2003년 9월로 그 이전까지 50여년간 희생자들의 유해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었음.</p> <p>토벌대는 이날 새벽 의귀국민학교에서 인민유격대의 습격을 받고, 이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에 수용되었던 민간인 80여 명을 학교 인근 밭으로 끌고 가 학살함. 당시 희생된 주민들의 시신은 몇개월간 방치됐음. 이후 경찰의 명령을 받은 민보단은 성안에 있는 이곳으로 시신들을 옮겨와 세 개의 구덩이를 파고 매장했음. 이후 십여년이 흘러 유족들은 이곳에 봉분을 쌓고 산담을 쌓는 등 정비를 하고 해마다 성묘를 했음. 이후 1964년 '삼묘동친회'를 결성하고, 이어 1983년 이곳에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묘비를 세움. 이후 2003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해 발굴 및 추도식을 갖고 현재의 신묘역으로 유해를 옮겨 안장함.</p> <p>현재는 이곳에는 옛 묘역에 대한 설명이 있는 안내판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허비가 세워져 있음.</p>
안내판 설명 1	[한글]

현의합장묘 옛터

이곳은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에 주둔했던 군인들에 의해 주민 80여명이 집단학살 당한 후 학교 동북 발에 흙만 대충 덮인 방치되었던 시신들을 옮겨 3개의 구덩이에 매장한 곳이다.

2003년 9월 16일 세 구덩이의 유해를 발굴하였는데 수습이 힘들 정도로 엉클어져 있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서쪽 구덩이 17구, 가운데 구덩이 8구, 동쪽 구덩이 14구 등 총 39구의 유해와 50여 점의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다. 발굴 직후인 9월 20일 수망리 '산산마루' 지경에 새 묘역을 비로소 안장했다.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유해도 다수 있어 '흙 한줌'으로 대신했다. 2010년 5월 19일 '현의합장 영령유허비'를 세워 억울한 희생자들이 묻혀있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영문]

Old Burial Ground of Hyeonuihapjangmyo

The old burial ground of Hyeonuihapjangmyo is where the corpses of 80 civilians were moved and buried in three pits by villagers, after being massacred by the soldiers stationed at Uigwi Elementary School and left to rot with a sheet of soil covering them in the field east of Uigwi Elementary School. The corpses in the pits were excavated on September 16, 2003.

During the excavation, the corpses were tangled to the extent that they were difficult to collect. It made people think about how tragic the massacre was. A total of 39 corpses, including 19 in the west pit, eight in the middle pit and 14 in the east pit, were excavated along with 50 articles left by the deceased.

Shortly after the excavation, on September 20, the corpses were at length buried at a new burial site that was prepared at the "Sinsan Moru" ground in Suman-ri. Some of the corpses had turned into dust, and a fistful of dust was buried for them instead.

On May 19, 2010, "Hyeonuihapjangmyo Memorial Stone for the Dead" was erected to mark the place where the mortified victims were buried.




안내판 설명2

<앞면>

[한글]
현의합장영령유허비

[영문]
없음

	<p><뒷면></p> <p>[한글] 이곳은 4·3 당시에 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12일, 의귀초등학교에 수용되었던 80여명의 의귀리, 수망리 주민들이 국군 제2연대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고 나서 그 이듬해 봄 세개의 구덩이에 ‘멜젓담뭇’ 매장되었던 옛 터이다. 이름 석 자 얻지 못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예순이 넘은 부모형제의 시신조차 제대로 감장하지 못한 아픔을 속으로만 삭이던 유족들은 그 후 묘역을 마련하고 단장하며 반세기가 넘도록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던 이곳에서 추모의 옷깃을 여며왔다. 그러던 차에 수망리 신산묘(아래아)루에 새로운 유택을 마련하고 2003년 9월 16일 이장과정에서 서쪽 봉분 17구, 가운데 봉분 8구, 동쪽 봉분 14구 등 총 39구 (남자 15구, 여자 7구, 청소년 추정 2구 포함한 성별 미상 17구)가 다수의 유물과 함께 확인 되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다수의 유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현의합장 명령들이 54년동안 머물렀던 이곳에서 피를 머금고 자라는 풀 한 포기 흙 한 줌 이 시대를 증언하고 있기에 이곳에 발걸음 한 이들이여! 그대들 가슴에 인권의 소중한 품고 가시길 기원하며 이 비를 세운다. 2010년 5월 19일 현의합장묘 4·3 유족회 회장 양봉천 외 회원 일동 근립 비명글씨: 운암 신창규 비문 : 시인 강덕환</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3</p>	<p>현의합장묘 전경 1.현의합장묘 옛 모습(1950년 봄~2003년 9월) (사진 생략) 2.현의합장묘 이묘 후 모습(2003년 9월~2019년 3월) (사진 생략)</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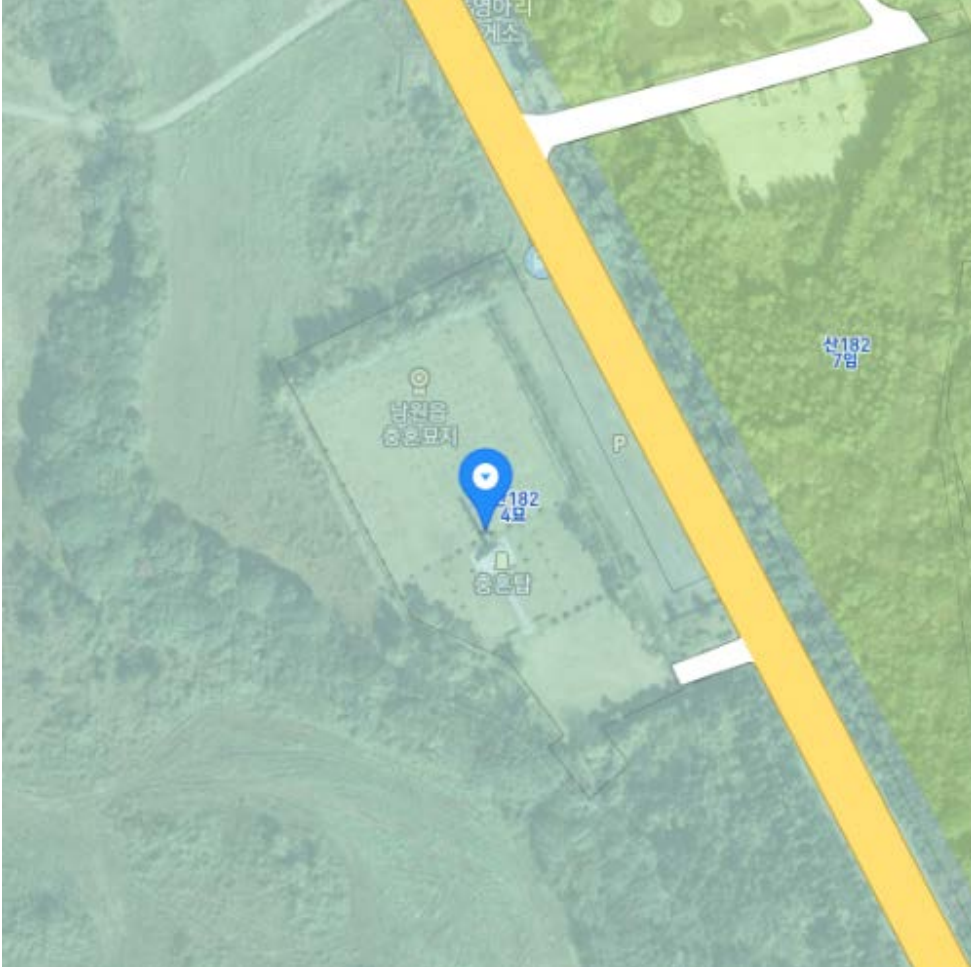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 오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남원읍 충혼묘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973(수망리 산 182-4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59735, 126.691765</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1991년 2월 조성된 남원읍 충혼묘지에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 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들이 안장되어 있음. 또 제주4·3 당시 인민유격대와 토벌대 간의 벌어진 '의귀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을 비롯해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 숨진 경찰과 민보단원 등 민간인들의 추모비도 있음.
안내판 설명 1	<p>[한글] 남원읍 충혼묘지 현황</p> <p>조성개요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973 면적 : 9,421m² 안장가능기수 : 215기 주요시설 : 충혼탑, 묘역 등 조성년도 : 1991년 2월</p> <p>묘역별 안장 현황(2020. 01. 01 현재 기준)</p>

(표 생략)
 관리부서 및 연락처
 부서 : 남원읍사무소 주민복지팀
 연락처 : 064)760-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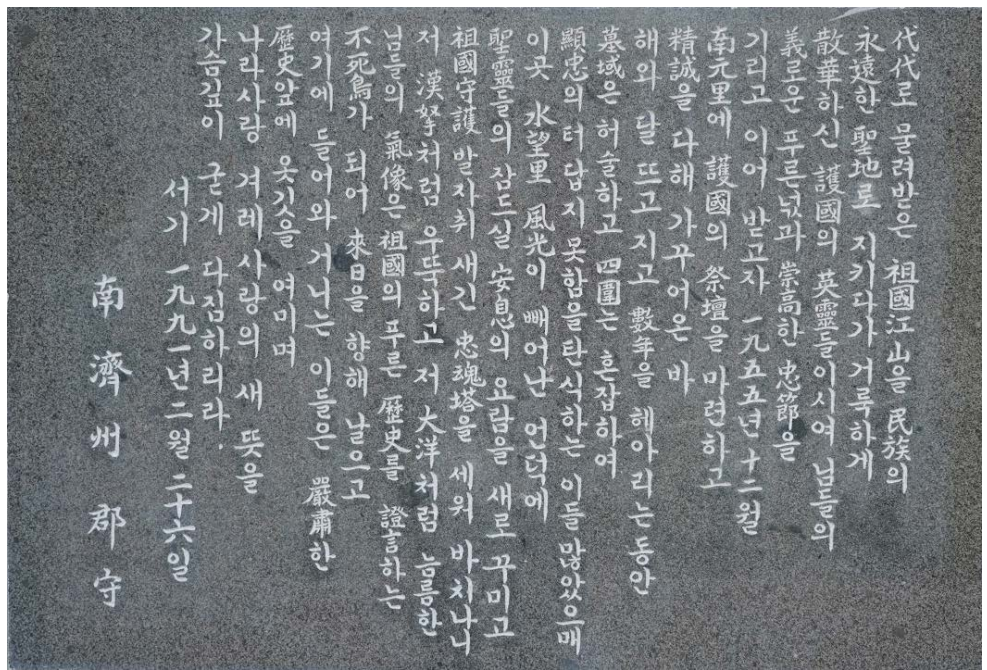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2

[한글]
 대대로 물려받은 조국강산을 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지키다가 거룩하게 산화하신 호국의 영령들이시여 님들의 의로운 푸른녘과 송고한 충절을 기리고 이어 받고자 1955년 12월 남원리에 호국의 제단을 마련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바 해와 달 뜨고 지고 수년을 헤아리는동안 묘역은 허술하고 사위는 혼잡하여 현충의 터답지 못함을 탄식하는 이들 많았으며 이곳 수망리 풍광이 빼어난 언덕에 성령들의 잠드실 안식의 요람을 새로 꾸미고 조국수호 발자취 새긴 충혼탑을 세워 바치나니 저 한라처럼 우뚝하고 저 대양처럼 너른한 님들의 기상은 조국의 푸른 역사를 증언하는 불사조가 되어 내일을 향해 날고 여기에 들어와 거니는 이들은 엄숙한 역사앞에 옷길을 여미며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새 뜻을 가슴깊이 굳게 다짐하리라 서기 1991년 2월 26일
 남제주군수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3

[한글]한시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망리에 와라 와서 잠조름한 햇살 속
우뚝 서 저 님들의 모습을 보라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들도
수망리에 와라 와서 푸르디 푸르게 빛나는
저 바다를 보며 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라

우리들의 자유는 말씀만은 아니나니
공허한 관념도 부질없는 논의도 아니나니
오직 행복, 거룩한 신념에 불타는 행동일뿐...

그러기에 제주 동백보다 더 붉은 목숨을
뒤척이는 저 바다보다 더 푸른 젊음을
아프게 아프게 조국산하에 바쳤나니

오, 님이시여,
탐신을 쓰다듬고 내리는 햇살 속
잠잠하게 웃으시는 님들이시여

당신들의 주신 그 뜻 잊지 않으려고
고개 숙여 다짐하며 새겨봅니다
조국이여, 겨레여, 자유여, 영원하라고

윤석산 시
[영문]

없음

獻 詩

自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水望里에 와라 와서 잠조름한 햇살 속
 우뚝 선 저 너들의 모습을 보라
 自由의 소중함을 잘 이는 사람들은
 水望里에 와라 와서 푸르디 푸르게 빛나는
 저 바다를 보며 너들의 말씀을 들어보라
 우리들의 自由는 말씀만이 아니라
 공허한 觀念도 부질없는 論議도 아니라니
 오직 行動·기록한 신념에 붙다는 행동일뿐...

우, 남이시여,
 塔身을 쓰담들고 내리는 햇살 속
 잠잠하게 웃으시는 남들이시여
 당신들의 주신 그 뜻 잊지 않으려고
 고개 숙여 다짐하며 새겨봅니다
 相國이여, 겨레여, 자유여, 영원하라
 尹 石 山 詩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p>총훈탑 우측 편에 1949년 1월 12일 새벽 의귀국민학교에서 일어난 토벌대와 인민유격대의 전투 중 사망한 군인 4명의 총훈비를 비롯해, 보초를 서다 인민유격대에 의해 희생된 민보단원들의 추모비도 세워져 있음. 전체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은 없으나 개별 비석의 경우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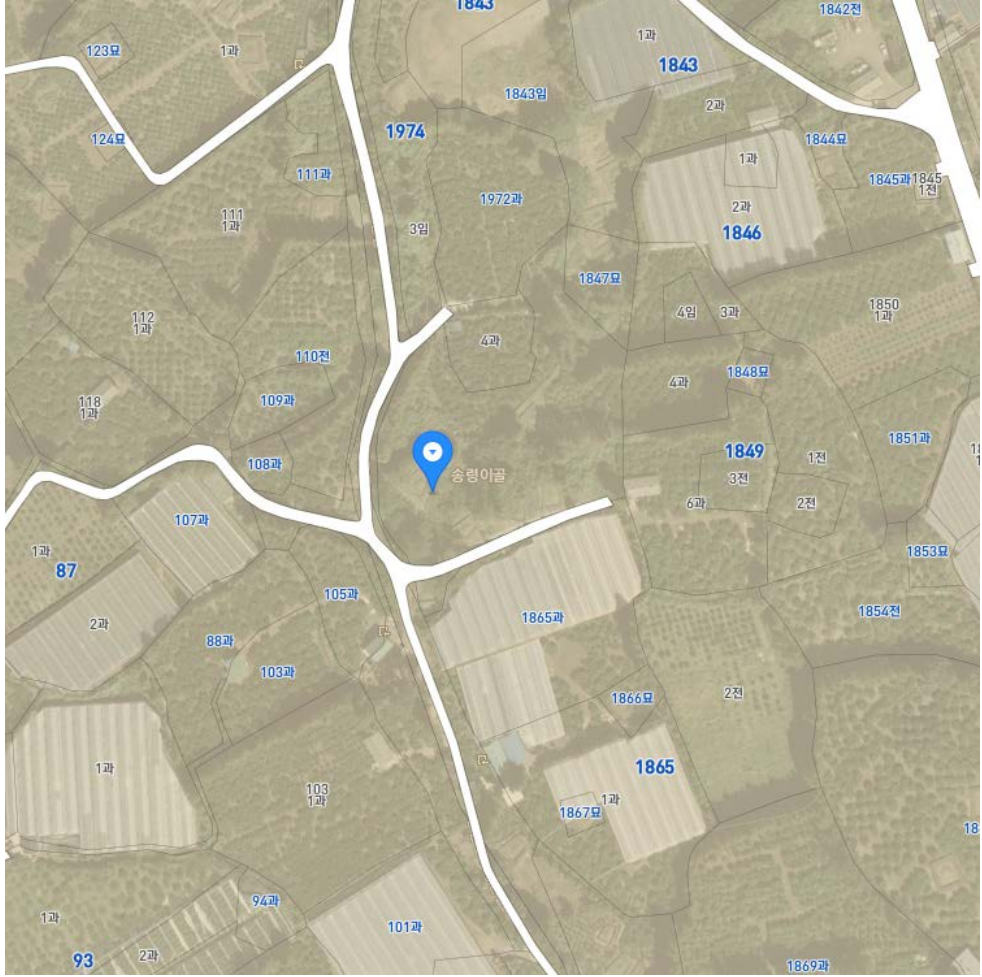
2) 문제점

- 이곳은 이른바 ‘의귀 전투’로 불리는 토벌대와 인민유격대 간의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 4명의 추모비가 있는 장소임. 양측 전투 전사자, 전투 이후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가 ‘현의합장묘’, ‘충훈묘지’, ‘송령이골’ 등 한 지역 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추모되고 있어 4·3 당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죽은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장소임. 그러나 이와 관련한 내용이 안내판에는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이동로가 풀밭과 석재 블록으로 되어있어 이동약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움.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

송령이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974-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14751, 126.705081</p> 
조사일	2020. 8. 15(수)
유적지 개요	<p>1949년 1월 12일 의귀국민학교 교전에서 사망한 인민유격대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곳. 이 날 전투로 군인 4명이 전사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인 51명의 인민유격대가 교전 중 사망했음. 이들의 시신은 학교 옆에 방치됐다가 나중에 이 곳 송령이골로 옮겨져 집단 매장됨. 2004년 5월 14일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4·3연구소를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현의합장유족회와 더불어 이곳을 벌초하고 표지판을 세우고 천도재를 치렀음. 이후 매년 8월 15일, 제주지역 단체들이 이곳을 찾아 벌초를 함.</p>
안내판 설명(진입로)	<p>[한글] 송령이골 이곳은 4·3 당시 의귀초등학교 전투에서 사망한 무장대의 시신이 묻힌 곳이다. 1949년 1월 12일 새벽, 무장대는 의귀초등학교 주둔부대를 공격했으나 2시간여의 전투에서 51명의 사망자를 내고 퇴각했다. 이 때 사망한 무장대 시신은 초등학교 뒷밭에 휴만 대충 덮인 채로 방치되었다가 그해 봄 토벌대의 지시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일부 시신은 가족이 찾아간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시신은 세 개의 구덩이에 매장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p>

2004년 '생명평화탁발순례단', '4·3연구소', '현의합장묘 4·3유족회' 등이 '생명과 존엄'과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담아 천도제를 지냈고 그 후 시민사회단체 등이 매년 8월 15일에 별초를 하고 있다.

[영문]

Songryeonggol

Songryeonggol is where the corpses of members of the armed resistance group were buried after losing their lives in the Uigwi Elementary School combat. At dawn on January 12, 1949, the armed resistance group attacked the forces stationed at Uigwi Elementary School, and after a two-hour combat, they retreated with a death toll of 51 members. The corpses of the deceased were left to rot with a sheet of soil covering them in the field at the back of the school building until the next spring when they were moved to and buried in the current burial grou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repression forces. Some corpses were retrieved by families, but the majority of them were buried in three pits at the time and they have remained there until toda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Life Peace Medicant Pilgrimage Group", "4·3 Research Institute" and "Hyeonuihapjangmyo 4·3 Bereaved Family Association" carried out cheondo-je, a Buddhist ceremony offered to the deceased in 2004, with the values of "sanctity of life" and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Afterwards,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organizations have tidied up the grave site annually on August 15.



안내판 설명2

[한글]
속냉이골 의귀사건

모든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옛말에 '적의 무덤 앞을 지나더라도 먼저 큰절부터 올리고 가라'고 했다.
바로 이곳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의 와중에 국방경비대에 의해 희생된 영령들의 유골이 방치된 곳이다.
당시 국방경비대 제2연대 1대대 2중대는 남원읍 중산간 마을 일대의 수많은 주민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의귀초등학교에 수모하고 있었다. 1949년 1월 10일(음력 48.12.12) 새벽 무장대들이 내습, 주민 피해를 막아보려 했지만 주둔군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 희생되고 말았다.
이 때 희생된 십수 명의 무장대들은 근처 밭에 버려져 썩어가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곳에 묻혔지만, 내내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덩불 속에 방치돼 왔다.
우리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은 우익과 좌익 모두를 이념대립의 희생자로 규정한다. 학살된 민간인 뿐만 아니라 군인·경찰과 무장대 등 그 모두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때 희생된 내 형제 내 부모였다.
 '평화의 섬'을 꿈꾸는 제주도, 바로 이곳에서부터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순례단은 생명평화의 통일시대를 간절히 염원하며, 모성의 산인 지리산과 한라산의 이름으로 비치된 묘역을 다듬고 천도재를 올리며 이 뜻을 세운다

2004년 5월 13일
 생명평화 탁발순례단 일동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버들못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715-2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2942, 126.82411</p> 
조사일	2020. 9. 29(화)
유적지 개요	<p>1948년 12월 22일, 표선국민학교에 수용됐던 가시리 주민들 중 도피자 가족 76명이 총살된 곳. 이날 희생자들의 주검은 흙으로 덮어놓고 1년 정도 방치되었는데 가시리가 재건되면서 유족들이 시신들을 하나 둘씩 찾아갔음. 인근에 우마급수용 연못이 있고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이라는 데서 '버들못'이라는 지명이 유래함.</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O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고*우	
비고			

2) 문제점

-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이 한날 한시에 76명이나 군경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유적지임에도 이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와 점자 안내판 설치가 고려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한모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96(안내판 위치)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2474, 126.83893</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4·3 당시 표선면, 남원면 일대 주민들이 희생됐던 일상적인 총살장이었음. 당개, 표선 백사장 등으로도 불리며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곳임. 특히 표선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 곳에서 집단학살. 1948년 12월 18일 토산리민 200여 명이 약 일주일여 걸쳐 희생됨. 성읍리의 남로당 간부 조몽구의 가족들이 총살. 앞서 17일에는 세화1리 청년들이 “토벌하러 가자”는 군인의 명령에 따라나섰다가 한꺼번에 16명이 희생.</p> <p>이 곳에서는 대규모 집단총살뿐만 아니라 간간이 한두 명이 끌려나와 총살되는 등 표선면사무소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총살이 집행. 또 모래사장이 널리 펼쳐 있어서 특정한 곳에서만 총살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모살 이곳 저곳에서 총살이 집행됨.</p>
안내판 설명	<p>[한글] 제주 4·3 유적지(표선 한모살) 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번지 일대 제주 4·3사건 당시 표선면, 남원면 일대 주민들이 희생됐던 일상적인 총살장이었다. 이 곳은 ‘당개’, ‘표선 백사장’ 등으로도 불리며 넓은 모래사장이</p>

펼쳐진 곳이다. 마을이 초토화 된 후 산간도피 중이던 주민들이 현장에서 붙잡히면서 대부분 이 곳에 끌려와서 총살당했다. 특히 이 곳에선 가족 단위로 피신했던 산간 주민들의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이 곳이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총살장이 된 것은 표선리에 소재한 면사무소에 군부대가 상주했기 때문이며, 면사무소 앞에는 임시로 움막을 지어 유치장으로 활용하였고 유치장에 끌려 온 주민들 대부분은 이 곳에서 총살당한 것이다. 또한 이 곳에서는 대규모 집단총살뿐만 아니라 간간히 한두 명씩 끌려나와 총살되는 등 표선면사무소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총살이 집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모살> 유적지 안내판 ©카카오맵 로드뷰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 안내판이 도로 연석 너머 안쪽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약자의 경우 안내판 글자를 읽기 쉽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진입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유적지 안내판을 이동해 이동약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8.서귀포시 성산읍

우뭇개동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03-1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62700, 126.936932</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우뭇개동산은 1949년 1월 2일 2연대 군인들과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오조리 주민 20여 명을 ‘다이너마이트 사건(또는 던지기약 사건)’을 빌미로 집단 총살한 곳임. 토벌대는 주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자신들을 죽이려했다는 이유로 학살했음. 위치는 성산일출봉 매표소 옆 무대가 조성된 공간 일대임. 해방 이후 일본군이 버리고 간 다이너마이트는 고기잡이용으로 쓰이기도 했음. 또 1948년 겨울철부터 각 마을마다 민보단 등을 꾸렸을 당시 다이너마이트는 인민유격대의 공격에 대비한 마을 경비용으로 마을 초소마다 보관돼 있었음. 2연대보다 앞서 제주에 주둔했던 9연대는 마을 경비 목적으로 주민들의 다이너마이트 사용을 허가했음.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연대가 주민들을 학살한 것임. 희생자는 마을 이장, 민보단장 등 20여명으로 알려져 있음. 희생자 대다수는 오조리 주민이었고, 성산리 주민도 일부 있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2) 문제점

- 성산일출봉은 연간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동시에 4·3 당시 수십명의 주민들이 학살을 당한 역사를 지닌 곳임. 특히, 학살의 발みが 된 ‘다이너마이트 사건’은 당시 제주에 파견된 군 토벌대가 제주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자비하게 주민들을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4·3 당시 우뚝개동산에서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사건’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성산지서(성산포경찰서)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53(성산리 227-2)
위치(위경도)	<p>33.464396, 126.934344</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성산지서는 제주4·3이 발발한 1948년 4월 3일 새벽 인민유격대의 습격을 받은 12개 경찰서 중 하나임. 당시 성산지서에는 총 14명의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습격 당시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함. 인민유격대 40여 명이 99식 총 2정을 갖고 습격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응사하자 모두 퇴각해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함. 4·3이 발발하기 전인 1948년 2월경에는 이 지역에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이때 동참한 많은 사람이 지서에 끌려가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함.</p> <p>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제주에서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음. 성산포경찰서(1949년 2월 개칭)에도 예비검속을 총살하라는 군의 지시가 하달됐으나, 당시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이 명령을 거부해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건졌음.</p> <p>현재는 성산파출소가 자리하고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성산지서 추모·표지석 이곳 성산리 227-2번지는 4·3당시 제2지구(서귀포) 경찰서 성산지서 옛터이다. 1948년 4월 3일 0시 55분 경 99식 총 2정과 기타 살상무기를 갖춘 폭도 40여 명이</p>

성산지서를 습격했다. 당시 지서에는 5명의 경찰관 외에 철도 경찰관 9명 등 14명이 소속돼 있었다. 이날 김양수 순경이 당직 중에 폭도들이 총격을 가하자 김순경이 응사하여 폭도들은 모두 도망갔다. 후일 폭도들은 2정의 총이 모두 고장이 나고 경찰의 난사로 퇴각했다고 밝혔다. 김순경은 무기고에서 실탄을 장전한 뒤 사이렌을 울리며 비상을 알려 성산면장 등이 달려왔으나 폭도들은 도망간 뒤였다. 성산지서는 1948년 1월 18일 제 4지구 경찰서인 성산포 경찰서로 승격됐다. 1957년 7월 26일 경찰서가 폐쇄되고 서귀포경찰서 성산지서로 환원됐다. 4·3당시 순직한 경찰관과 무고한 주민들을 추모하고자 이 비를 세운다.
2016년 10월 28일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제주4·3경찰 유족회

후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6·25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자유논객연합
사단법인 건국이념보급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O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성산지서의 경찰서 승격 시기는 안내판에 기재된 1948년이 아니라 1949년 1월 18일임.
- 안내판에는 ‘폭도’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에서 ‘폭도’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를 의미함.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이에 명백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폭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4·3 당시 경찰과 군인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주민들이 학살 당하는 등의 내용이 누락됨.
-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벌어진 예비검속은 제주4·3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임. 두 사건 모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임. 그런 점에서 예비검속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형순 서장이 군의 명령을 거부하고 민간인 학살을 막은 일은 주목할 사건임.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안내판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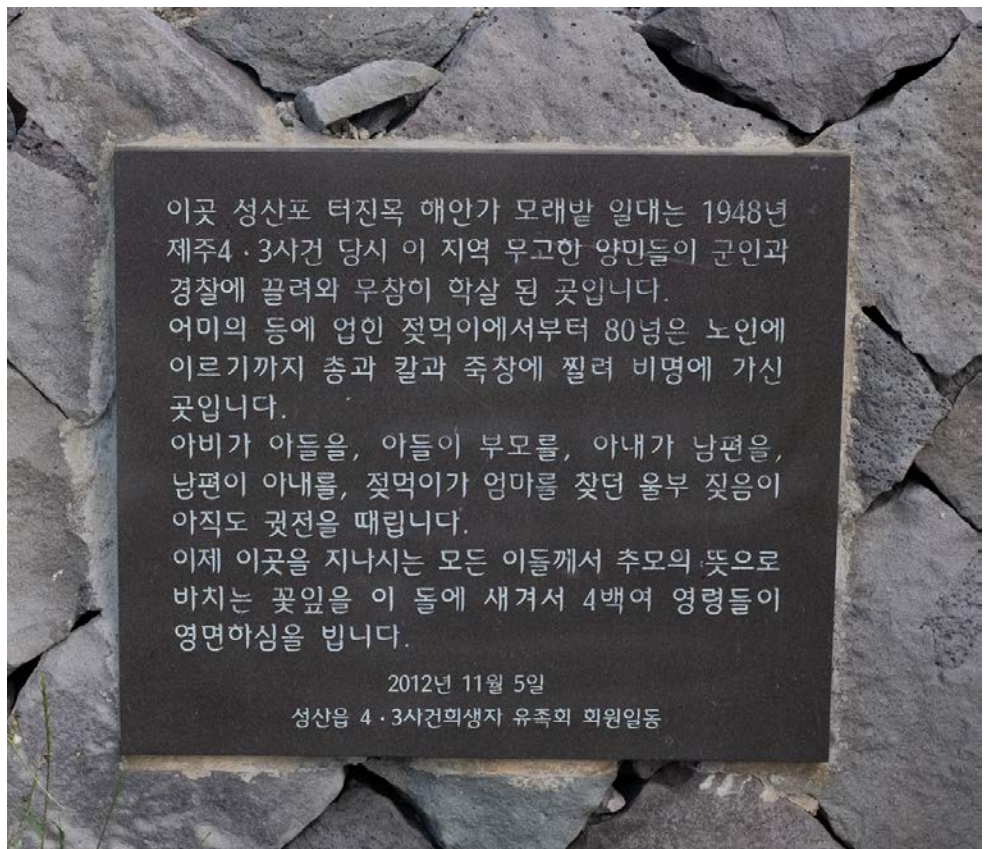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
- 성산지서 승격 연도 오류를 수정해야 함.
- ‘폭도’라는 단어 대신 ‘무장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참고해 예비검속 당시 문형순 서장의 이야기, 성산지서에서 주민들이 겪은 고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터진목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89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57956, 126.929080</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p>터진목은 4·3 당시 토벌대의 민간인 학살이 횡행한 시기였던 1948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1949년 2월까지 성산면과 구좌면 일대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임. 서북청년단 특별중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끌고와 인근 감자공장 창고에 수감해 고문을 하다 터진목에서 학살함. 4·3 당시 터진목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학살됨. 이곳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주민의 숫자는 190명에 달함. (당시 성산면 전체 학살자는 400여 명으로 기록됨)</p> <p>'터진목'이란 지명은 터진 길목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1940년대 초까지 이곳은 물 때에 따라 길이 열리고 잠겼던 곳임. 현재는 공사를 통해 제주도 본도와 이어진 상태임.</p> <p>현재는 주로 광치기해변으로 불리며, 해돋이 명소로 유명함. 이곳에는 터진목에 대한 설명이 적힌 표지석(안내판2)이 있음. 바깥쪽 일주도로변에도 터진목에 대한 설명이 있는 표지석(안내판1)이 있고, 바위로 쌓은 낮은 석벽에는 추모시가 새겨진 석판(안내판 3, 4)이 있음.</p> <p>해변 한켠에는 '제주4·3 성산읍희생자 추모공원이 마련되어 있음. 이 추모공원에는</p>

	<p>추모의 글과 희생자 명단이 있는 제주4·3성산읍희생자의령비와 추모시가 적힌 표지석이 있음.</p>
<p>안내판 설명1</p>	<p>[한글] 제주4·3 성산읍지역 양민 집단학살터 표지석 이곳은 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성산읍을 비롯한 인근 구좌읍, 표선면, 심지어 남원읍 양민들까지 무참히 학살당한 곳이다. 당시 이곳에서 학살당한 성산읍 양민들만 400여 명이나 되며 특히 희생된 양민들 중에는 유족이 없이 모래밭에 묻혀버리거나 바닷물에 떠밀려가 버린 시신도 허다했다. 것처럼 뼈아픈 역사의 현장을 그간 아무런 표석도 없이 방치된 채 무수한 왕래의 발길과 거친 파도에 유실됨은 물론 심지어 관계 당국이 무관심속에 도로 확장이라는 미명아래 역사의 현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우리 유족들은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함은 물론 오가는 이들로 하여금 분향·묵례의 자리라도 마련코자 건너편 서쪽 언덕에 건립된 추모비와 함께 여기 비극의 현장임을 알리는 조금만 표석을 마련한다. 2012년 11월 5일 성산읍 4·3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일동</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2(안내판5로 교체, 2021년 5월 18일 확인)</p>	<p>[한글] 제주4·3유적지(터진목)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터진목' 일원 성산일출봉이 불쑥 솟아올라 제주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이 곳, 터진목은 4·3당시 성산면 주민들이 끌려와 학살당한 한과 눈물의 땅이다. 성산리는 4·3 당시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특별중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죽음과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서북특별중대의 존재는 성산면 지역주민들에겐 악몽이었다. 그 곳에 한번 잡혀가면 살아오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성산초등학교 건물에 주둔하면서 숙식을 해결했고, 불잡아 온 주민들을 수감하고 취조하는 곳은 초등학교 바로 앞 담장 너머에 있었던 감자창고를 이용했다. 4·3의 비극이 강렬히 스쳐갔던 이곳 성산포에는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긴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의 의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6·25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예비검속 명령을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란 이유를 달아 죽음의 명령을 거부하여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살렸다. 성산일출봉과 마주하는 이곳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죽어간 주민들과 제주4·3의 역사를 생각하자.</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3</p>	<p>[한글] 이곳 성산포 터진목 해안가 모래밭 일대는 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이 지역 무고한 양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와 무참히 학살 된 곳입니다. 어미의 등에 업힌 젓먹이에서부터 80년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과 칼과 죽창에 찔려 비명에 가신 곳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젓먹이가 엄마를 찾던 울부 짚음이 아직도 귓전을 때립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시는 모든 이들에게서 추모의 뜻으로 바치는 꽃잎을 이 돌에 새겨서 4백여 영령들이 영면하심을 바랍니다. 2012년 11월 5일 성산읍 4·3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원일동</p> <p>[영문] 없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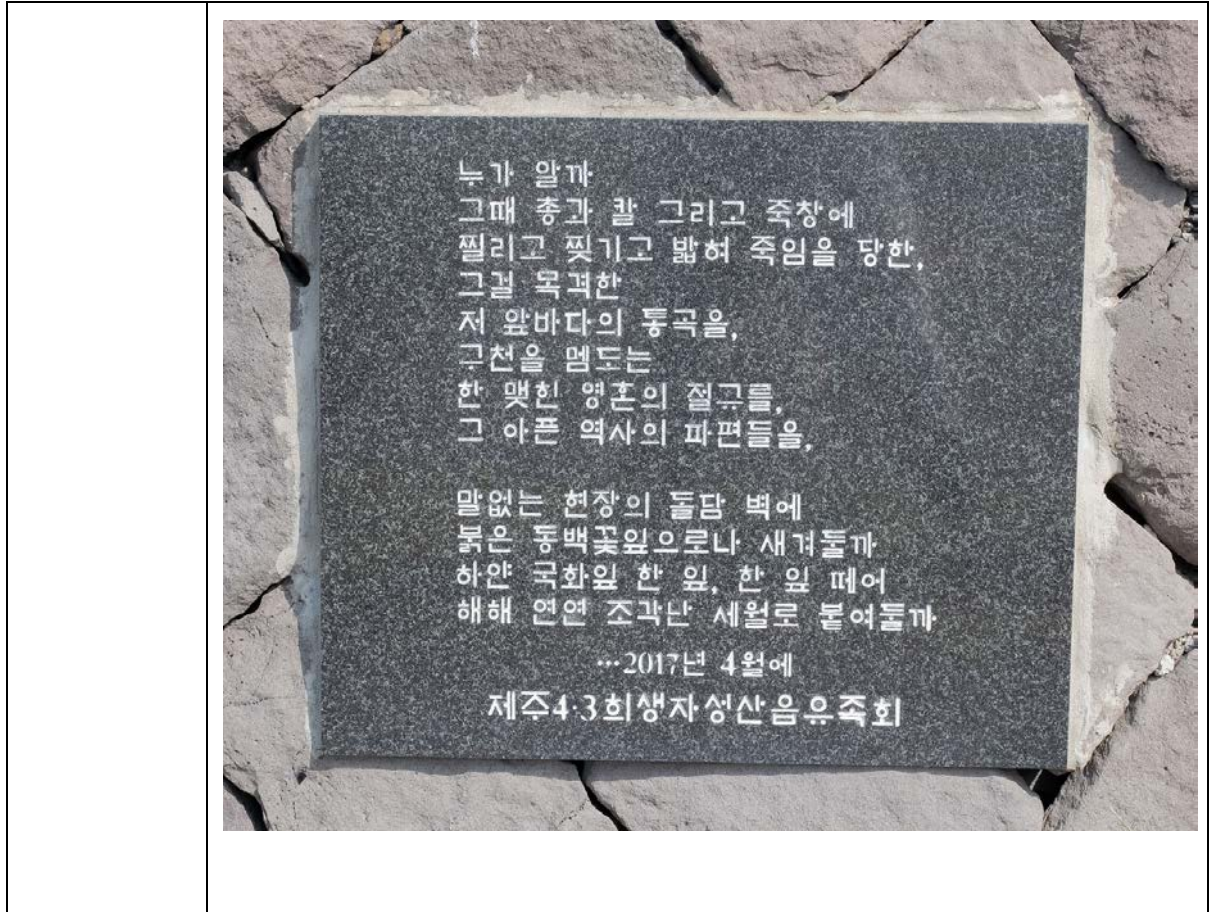
안내판 설명 4

[한글]
 누가 알까
 그때 총과 칼 그리고 죽창에
 찔리고 찢기고 밟혀 죽임을 당한,
 그걸 목격한
 저 앞바다의 통곡을,
 구천을 멎도는
 한 멧힌 영혼의 절규를,
 그 아픈 역사의 파편들을,

 말없는 현장의 돌담 벽에
 붉은 동백꽃잎으로나 새겨들까
 하얀 국화잎 한 잎, 한 잎 떼어
 해해 연연 조각난 세월로 붙여들까

 ...2017년 4월에
 제주4·3희생자성산읍유족회

 [영문]
 없음



<p>안내판 설명 5</p>	<p>[한글] 4·3유적지 성산터진목 유적지 영주10경중의 제1경인 성산일출봉과 마주한 이곳 성산포터진목은 4·3 당시 성산면 지역주민들이 토벌대에 끌려와 학살당한 한과 눈물이 서린 현장이다. 4·3당시 성산포에는 서북청년으로 구성된 특별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특히 서청특별중대가 이곳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산면 지역 일대는 죽음과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은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만큼 이들에게 한 번 잡혀가면 그것이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학살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며 그 숫자 역시 4백여명에 이른다. 성산일출봉과 마주하는 이곳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4·3사건 당시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주4·3의 아픈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p> <p>[영문] 없음</p>
------------------------	--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안내판 2 훼손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터진목' 유적지는 위에 기록한 주소를 비롯해 광치기 해변 전체를 가리킴. <안내판 2>가 <안내판 5>로 교체되어 있음. (2021년 5월 18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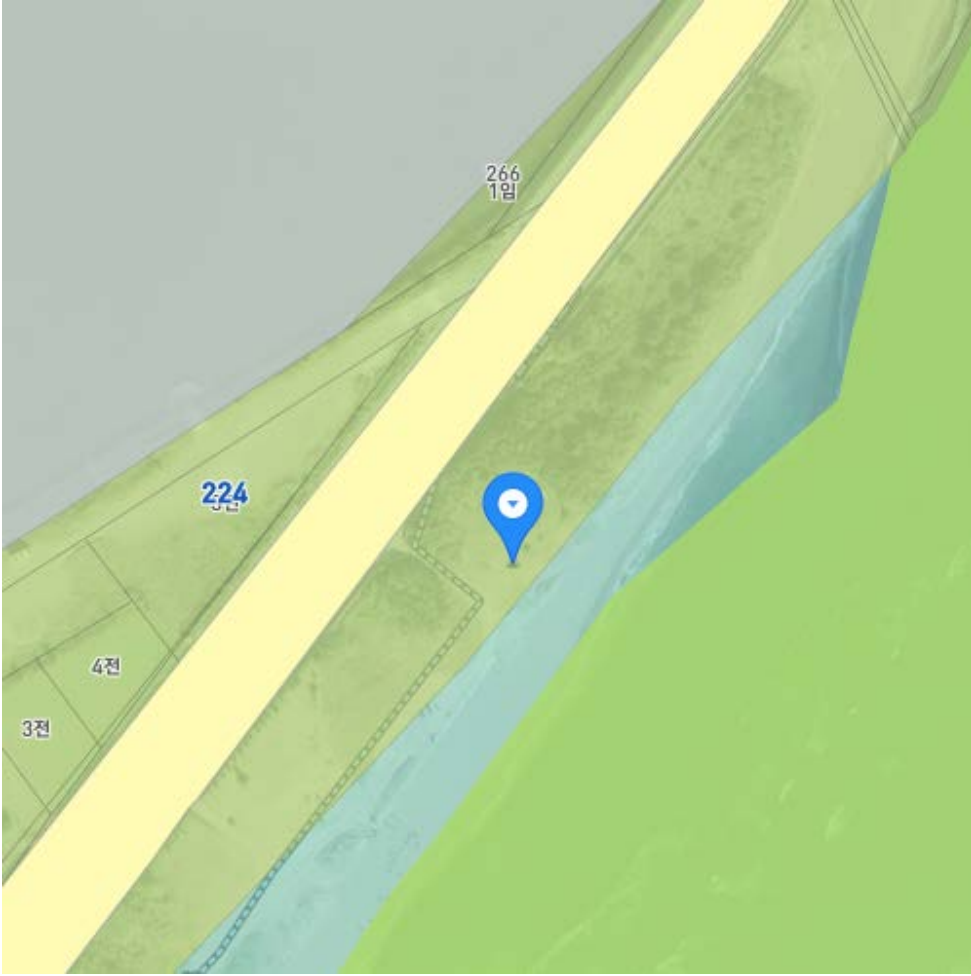
2) 문제점

- <안내판 2>의 경우 글자가 벗겨지는 등 관리 상태가 좋지 못함.(안내판 교체)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터진목이 모래로 된 해변인 만큼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터진목’은 현재 광치기해변으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4·3 당시에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대표적인 학살터이기도 함. 방문객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위치에 있는 <안내판1>의 경우 학살의 주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치기해변 주차장에 추가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자 중요한 4·3 유적지이니만큼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4·3 당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해야 함.

제주4·3 성산읍희생자 추모공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광치기해변(고성리 224-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56597, 126.928018</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4·3 당시 터진목을 비롯해 성산읍지역에서 희생된 400여명의 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조성된 추모공원. 이곳에는 제주4·3 성산읍희생자위령비와 표지석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해 11월 5일 희생자 위령제가 봉행됨.
안내판 설명1(앞면)	<p>[한글] 제주4·3 성산읍희생자위령비</p> <p>[영문] 없음</p>



**안내판
설명2(뒷면)**

[한글]
성산읍 4·3 희생자

성산리
(명단 생략)

오조리
(명단 생략)

시흥리
(명단 생략)

고성리
(명단 생략)

수산리
(명단 생략)

온평리
(명단 생략)

난산리
(명단 생략)

신산리
(명단 생략)

삼달리
(명단 생략)

신평리
(명단 생략)

신천리

(명단 생략)

추모글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큰누이 작은누이 삼촌 조카 그리고 그 때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이시여! 그해, 이 터진목 해안 모래밭 앞 절 소리는 이른 봄부터 그렇게 거칠도록 울더이다. 저 건너 광치기 큰 영 밀으론 파도소리마저 모질더이다. 어디 그뿐이더까. 뒷 바다 조개 밭으론 전에 없던 멀치 때가 섬으로 밀려와 썩어 문드러지더이다. 그 때, 밤물결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늙은 황소처럼 눈 껌벅이는 소섬머리 등대불과 까칠한 밤하늘 달그림자와 간간이 스쳐 지나가는 갈매기 울음 소리마저 그토록차갑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모르겠더이다. 그해 가을, 이 터진목 앞바르 바닷가 노을은 파랑계 질러 있고 순 하디 순한 숨비기나무 잎새 들마저 초가을 바닷바람 사이에서 덜덜덜 떨고, 거칠게 밀려오던 파도 또한 덩달아 숨죽이던 그때의 가을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가을이더이까.

저희는 들었습니다. 콩 볶듯 볶아대던 구구식 장충소리를, 미친개의 눈빛처럼 시퍼렇게 지나가던 징 박힌 군화 소리를,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당신의 형과 아우와, 당신의 삼촌과 조카와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 그리고 함께 있던 이웃들이 저 건너 조개 밭에 밀려와 썩어가던 멀치 떼처럼 널 부러진 채 죽어가는 것을,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저들이 쓰아대는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며 늙은 어머니를 구해내던 어느 이웃집 아들의 죽음도, 젓먹이 자식만은 품에 꼭꼭 껴안고 처절히 숨져가던 어느 젊은어미의 한 맺힌 죽음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피 토하듯 부르다가 눈을 감던 모습도 코 흘리게 어린 우리는 기어이 그 모든 걸 보고 말았습니다. 서럽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울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빛으로 하여 팔려가던 검은 발갈쇠의 마지막 눈빛에서 이별의 아픔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 울고, 열 살 누나가 학교를 그만 둘 때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알게 되어 울고, 땀범벅 주름 범벅으로 한여름 조발 가운데서 김을 매느라 해를 쬐던 노역의 소년이 목이메어 더욱 더 울고 헤어터진 고무신과 맨발의 가난이 혹한의 추위마저 잊게 해서 울고 또 울던 우리가 학교 운동회 날 남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잘도 달리는데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 뜬 한 조각 구름의 손을 잡고 혼자 달릴 수밖에 없는 설움으로 눈물도 말라버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날 그 자리에 간밤 뉘 혼백 다녀갔는지 숨비기나무 잎에 내린 밤이슬이 눈물처럼 고였습시다. 고인 눈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모습이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꺼이꺼이 울던 갈매기도 하얗고 하얗게 날아오르고 거칠던 물살도 모로 누어 출렁이는 오는, 당신이 가신지 예순두 해, 그 동안 변변한 표석하나 새겨놓지 못한 부끄러움이 크던 우리가,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한 해 한 번 가느다란 향 줄기 지퍼올리는 일이 고작이던 우리가, 그때 가신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 비로소 조그만 제단을 여기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때 함께 가신 모든 이들의 모습이 이 제단에 향처럼 피어 오릅니다. 힘겹던 세월의 주름살도 향과 함께 이 제단위로 지워집니다.

미움도 원한도 모두 사라집니다. 저 바다 해녀의 숨비질 소리마저 당신의 혼령인양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헤엄쳐 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상생의 소리로 합장합니다.
찬란한 햇살처럼.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이 제단 앞 반짝이는 모래알처럼...
부디 영면하옵소서....

2010년 11월 5일

성산읍4·3희생자위령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중훈
 성산읍4·3희생자유족회장 한광금
 위원 정중성 강계현 정순호 홍용재 오성익 정봉우
 운영위원 강대수(고문) 강승진 고승권 김동진 김성옥 김영복
 김정길 송대성 신영보 오길수 오문현 오영부 오원희
 오종구 정덕삼 정준웅 한봉서 홍승삼 홍부삼

제자(題字) 석산(昔山) 강창화(姜昌和)

제작(製作) 임춘배(任春培) 교원(敎援)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3

[한글] 추모공원 조성 기념비
 과거를 잊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제주4·3의 아픈 역사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그래서 더욱 보존해야 할 이 곳 성산읍 4·3희생자 학살 현장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뜻을 모았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기약하고자 함이다.
 우리 유족들은 물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로 부터 한푼 두푼 모아진 단성은 급기야 이곳에 조그만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이분들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리기 위해 한분 한분의 명단을 새겨 둔다.

2015년 11월 5일
 성산읍4·3희생자 유족회

-성금 기탁자-
 (명단 생략)



안내판 설명4

[한글] 섬의 우수
 섬의 우수
 강중훈

여기 가을 햇살이
 예순 두해 전 일들을 기억하는 그 햇살이
 그때 핏덩이 던 할아버지의 주름진 앞이마와
 죽은 자의 등에 업혀 목숨건진
 수수깡 같은 노파의 잔등위로 무진장 쏟아지네
 거북이 등짝 같은 눈을 가진 무리들이 바라보네
 성산포 '앞바르 터진목'
 바다 물살 파랑게 질러
 아직도 파들파들 파들파들 떨고 있는데
 숨비기나무 줄기 끝에
 철지난 꽃잎 몇 조각
 핏빛 태양 속으로 목숨 걸듯 숨어드네
 섬의 우수 들불처럼 번지는데
 성산포 4:3희생자위령제단 위로
 뉘 집 혼백이양 바다갈매기 하얗게 사라지네.

섬에는 우수가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마음 갑갑하게 만드는 이유다. 오늘날 제주에는 달콤함과 떼움,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다. 초록과 검정, 섬의 우수, 우리는 동쪽 끝 성산 일출봉 즉 '새벽 바위'라 불리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다. 바위는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한 검은 절벽이다. 한국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첫 해돋이의 마술적인 광경의 축제에 참석하러 오는 곳이

바로 여기다.
 1948년 9월 25일(음력) 아침에 군인들이 성산포 사람들을 총살하기 위하여 트럭에서 해변으로 내리게 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게 이 바위다. 나는 그들이 이 순간에 느꼈을, 새벽의 노르스름한 빛이 하늘을 비추는 동안에 해안선에 우뚝 서 있는 바위의 친숙한 모습으로 하얀 그들의 눈길을 상상할 수 있다. 냉전의 가장 삭막한 한 대목이 펼쳐진 곳이 여기 일출봉 앞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 군대와 경찰이 양민학살(인구의 10분의 1)을 자행한 진부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이 잔인한 전쟁의 기억은 지워지고 있다. 아이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자신들 부모의 피를 마신 모래에서 논다. 매일 아침 휴가를 맞은 여행객들은 가족들과 함께 바위 너머로 솟는 일출을 보러 이 바위를 오른다. 숙청 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을 잃은 시인 강중훈씨 조차 시간의 흐름에 굴복했다. 그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그의 시 한편이 그 9월 25일의 끔찍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그걸 뛰어넘을 필요성도 알고 있다.

유럽최대잡지<GEO>2009년 3월호 게재된 "제주기행문"중에서
 J.M G.LE Clezio-2008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프랑스)

[영문]
 없음
 *불문 있음



안내판 설명 4

[한글]
 터진목 4·3유적지

[영문]
 Teojingmok Historical Site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추모공원 인근이 모래 및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이동약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주도로변에 있는 <안내판 4> 인근(33.456503, 126.927569)에 유적지의 설립 경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서북청년단 특별중대(성산동국민학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79-4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6286, 126.93247</p> 
조사일	2020. 9.29(화)
유적지 개요	<p>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약 3개월 간 주둔했던 곳. 이곳은 원래 성산동국민학교 건물이었음. 정확한 주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4·3 당시인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 개시 기간 전후로 약 3개월간 주둔한 것으로 추정됨. 30~40여명의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바로 옆 감자창고에서 붙잡아 온 성산면, 구좌면 주민들을 고문, 취조함.</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O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홍	
기타			

2) 문제점

- 성산동국민학교 옛터는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1948년 11월부터 3개월간 주둔한 곳임. 성산동국민학교와 인근 민간인수용소 구금된 성산면, 구좌면 주민들이 이곳에 주둔했던 서북청년단에 의해 고문과 학살을 당했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이곳이 4·3 당시 악명높았던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주둔했던 곳이며 이 곳에서 성산면, 구좌면 주민들이 고초를 당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7.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알뜨르비행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70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04335, 126.271678</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일제시기 일본이 중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 기지. 이 기지는 1926년 구축 계획이 세워졌으며, 1931년부터 1935년까지 1차 공사가 진행되어 활주로 등 약 18만평 규모로 완공됨.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알뜨르 비행장의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지자, 중국 난징 등을 공격하기 위해 1937~1938년 2차로 확장 공사를 추진해 40만평 규모로 기지를 확대함.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는 미군의 알뜨르비행장 상륙을 막기 위해 진지화를 추진했으며, 1944년 10월 3차 공사를 진행해 비행장 규모가 66만여 평으로 확대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평화와 인권을 되새겨 보는 역사교육 여행(다크투어리즘) (지도 생략) 제주 다크투어리즘 성지 알뜨르 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격납고'는 '비행기나 비행선을 넣어 두거나 정비하는 비행장용 군사시설이다.</p>

알뜨르비행장에는 일본군의 자살 공격에 동원되는 '제로센'을 숨기기 위하여 격납고가 조성했다. 알뜨르비행장의 격납고는 단일 비행장 시설로는 일본 본토 다른 비행장과 비교해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9기의 격납고가 온전히 남아있다.

1.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알뜨르비행장 지하 벙커는 활주로와 격납고가 집단적으로 조성된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지하 벙커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 약 30m, 너비 약 20m 장방형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 입구에서 중심부 공간까지의 길이가 약 7m이며 오른쪽으로 2층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통로 중간 지점에 지상부와 연결되는 통로 3곳이 설치되어 있다. 통로 내부 벽면에는 철제 사다리가 녹이 슨 상태로 몇 개 박혀 있어, 이곳을 통해 지상부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하 벙커는 비행대 지휘소 또는 통신시설 등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셋알오름 동굴 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송악산 북쪽 세 개의 알오름 중 두 번째 오름에 설치된 군사시설이다. 이 진지는 길이가 1,220m에 이르는 미로형의 대형 동굴로, 입구가 여섯 군데 나 있다. 「제주도 항공기지 위치도」에는 이 시설이 어뢰·통신·연료·화약 등을 저장하고, 고사포를 지휘하는 용도로 표기되어 있다. 오름 정상부에는 고사포 진지 2곳과 벙커 1곳이 남아 있는 등 '셋알오름' 전체가 하나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다.

진지가 구축된 '셋알오름'은 송악산 북쪽 3개의 알오름 가운데 동쪽의 동알오름, 서쪽의 셋알오름 사이에 있는 오름이다. '셋알오름'의 '셋'은 '사이' 또는 '둘째' 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어다.

3.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알뜨르비행장 '고사포 진지'는 일제강점기에 미군 항공기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군사 시설이다. '고사포'는 항공기를 사격하는 데 쓰는, 양각이 큰 포를 말하는데, 달리 '고각포'라고도 한다.

1937년 중일전쟁 초기에 구축된 '고사포 진지'는 1943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포대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때 사정거리 20km에 이르는 미군 B29 폭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형 고각포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 설치됐던 포대는 폭파 제거되었으나 콘크리트 포상 흔적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4.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송악산 동굴 진지는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연합군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송악산 해안에 구축된 군사시설이다.

이 진지는 연합군 함대를 향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자살 폭파 공격을 위하여 구축된 동굴 13곳과 벙커 2곳, 그리고 관측 용도로 구축된 동굴진지 1곳 등으로 이루어졌다.

동굴 진지가 구축된 송악산은 태평양상으로 곳처럼 돌출되어 있어 제주 서부와 남부 해상을 조망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 일대는 태평양전쟁 때 연합군 상륙 작전의 가장 유력한 예상 지역으로서,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결7호 작전의 최전방이었다. 인근에는 알뜨르비행장이 건설되어 있어 연합군에게 점령당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는 요충지였다.

다크투어리즘

'다크투어리즘'이란 전쟁이나 테러, 인종 말살, 재난처럼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느끼는 여행이다.

제주 지역의 다크투어리즘 장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사 기지화를 위한 군사시설과 4·3사건의 잔혹한 현장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제주의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로, 역사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크투어리즘의 세계적인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꼽을 수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생체실험실·고문실·가스실·처형대·화장터와 함께 희생자들의 머리카락과 낡은 신발, 옷가지 등을 담은 거대한 유리관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과 나치의 잔학상을

기록한 영화 관람 등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정읍 상모리 아래쪽의 너른 벌판에 제주도민 등을 동원하여 건설한 군용 비행장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비행장을 전초 기지로 삼아 약 700km 떨어진 중국의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오무라 해군 항공대의 많은 전투기를 '알뜨르'에서 출격시켰다. 그러나 1938년 11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중국 본토로 옮겨졌고, '알뜨르비행장'은 연습 비행장으로 남았다. '알뜨르비행장'은 '마을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뜻을 갖고 있는 상모리 '알뜨르'에 조성되어서 붙은 이름이다. *알뜨르란 제주어 표기법상 「'알':아래, '드르':벌판」으로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의미로 '알드르'임.

[영문]

Hangars of Altteureu Airfield

The hangars were built by the Japanese in Altteureu Airfield near Songaksan Mountain, Daejeong-eup, Seogwipo-si to hide their Zero-Sen fighters used for kamikaze during the Pacific War. It is said that this Altteureu Airfield had more hangars than any other single airfield in Japan. Nineteen hangars built at that time still remain.

1.Undergruond Bunker of Imperial Japan at Altteureu in Moseulpo Port, Jeju
The bunker was built between the runway and the hangars in Altteureu Airfield supposedly for the airbase wing command post or communications facilities. It is a rectangular structure 30m long and 20m wide.

There are three paths leading to the ground level. Rusted steel ladders still remain, leaning against the wall inside one of the paths. It is guessed that they were used to see the status of the ground level.

2.Tunnel Fortification of Imperial Japan on Sedaroreum Volcanic Come, Jeju
These tunnel fortifications were installed in one of the three volcanic cones in the north of Songaksan Mountain by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is a 1,220m-long large maze tunnel, Which has six entrances. A record left by the Japanese refers to it as fortifications for keeping torpedoes, communication equipment, fuel, and ammunition and for commanding anti-aircraft guns.

Still remaining at the top of the cone are two anti-aircraft emplacements and a bunker.

3.Anti-aircraft Emplacement of Imperial Japan on Sedaroreum Volcanic Cone, Jeju
The anti-aircraft emplacements in Altteureu Airfield are military facilities built by the Japanese to protect against air attack from the US in 1937. When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roke out. In 1943, the original ones were replaced with concrete structures supposedly equipped with updated guns with a shooting range of 20km against American B-29 bombers.

4.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Along the Coast of Songaksan Mountain, Jeju

These tunnel fortifications were installed along the coast of Songaksan Mountain by the Japanese toward the end of the Pacific War to fend off approaching American naval ships.

These fortifications are composed of the 13 tunnels and two bunkers which were built for suicide troops assigned to attack the Allies' naval ships using small boats, and a tunnel for observation.

Songaksan Mountain, where the tunnel fortifications are located, is on a mini cape. Thus, the position offers advantages for observing approaching ships. During the

Pacific War, the place was said to be one of the leading candidate sites for the Allies' landing operation. Thus, It, along with nearby Altteureu Airfield, was a strategic position that had to be protected from occupation by the allies.

Dark Tourism

Dark Tourism (also black tourism or grief tourism) refers to tourism involving travel to site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death, disaster and tragedy.

Dark tourism destinations in Jeju Island are military facilities including Altteureu Airfield built by the Japanese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and the site of the incident of Civilian Massacre on April 3, 1948.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in Poland, where approximately four million Jews were massacred by the Nazis, is a leading destination of dark tourism. At present, the site displays a lab where medic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living bodies, a torture room, a gas chamber, a hanging scaffold, and a cremation facility, along with hair, shoes, and clothes left by the victims. Visitors learn important lessons from the displayed objects and films about atrocities perpetrated by the Nazis.

Altteureu Airfield

Altteureu Airfield is a military airfield built by the Japanese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in the field near Sangmori, Daejeong-up, Seogwipo-si. The Japanese forced locals to work on the construction. Up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the 1937, Japanese fighters of the Omura Naval Aviation Unit made sorties from this airfield to attack Nanjing, China 700km away.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Shanghai in November 1938, the aviation unit was relocated to China and this airfield came to be used for training pilots. The name Altteureu is a Jeju dialect of Korean referring to a wide field.



안내판 설명 2

알뜨르비행장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정읍 상모리 아래쪽의 너른 벌판에 제주도민 등을 동원하여 건설한 군용 비행장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 비행장을 전초 기지로 삼아 약 700km 떨어진 중국의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오무라 해군 항공대의 많은 전투기를 ‘알뜨르’에서 출격시켰다. 그러나 1938년 11월 일본군이 상하이로 점령하자 오무라 해군항공대는 중국 본토로 옮겨졌고, ‘알뜨르 비행장’은 연습 비행장으로 남았다. ‘알뜨르비행장’은 ‘마을 아래에 있는 너른 벌판’의 뜻을 갖고 있는 상모리 ‘알뜨르’에 조성되어서 붙은 이름이다.

※알뜨르란 제주어 표기법상 ('알':아래, '드르':별판)}으로 아래에 있는 너른 별판의 이미지로 '알드르'임.

[영문]Altteureu Airfield

Altteureu Airfield is a military airfield built by the Japanese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in the field near Sangmori, Daejeong-up, Seogwipo-si. The Japanese forced locals to work on the construction. Up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 the 1937, Japanese fighters of the Omura Naval Aviation Unit made sorties from this airfield to attack Nanjing, China 700km away.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Shanghai in November 1938, the aviation unit was relocated to China and this airfield came to be used for training pilots. The name Altteureu is a Jeju dialect of Korean referring to a wide field.



안내판 설명 3

[한글]

알뜨르비행장 일제전적지

일제는 모슬포에 관동군 전초기지의 해군 항공대를 창설했다. 나중에 전황이 서서히 불리해질 즈음 카미카제 기습특공항공대로 연합군에게 자폭기습을 여러 차례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모슬포는 군사도시로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가 되었고, 제주도 서부지역 일제 수탈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모슬포 비행장에 있었던 아카돔보는 일본군의 자랑이었으나, 이들 비행기가 이착륙하도록 비행장을 만들었던 것은 가련한 우리 선대들로서 나라 잃은 서러운 민초들이었다. 모슬포 비행장 건설에 도내에서 연인원 15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전해진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전투기 격납고를 건설했다. 이 유적은 제주도를 일본군의 출격 기지로 건설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지상 건축물로, 진지를 구축하려 했던 인공 동굴은 많이 있으나, 많은 지상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유일하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뜨르 비행장을 수호하기 위해 대공화기를 배치하고, 탄약고를 설치하여 해군공격어뢰정이나 특공비행기의 탄약을 보관했다가 무장시켜 출격시키곤 했다. 이곳 첫알오름은 훗날 6.25 동란의 와중에 예비검속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억울하게 학살되기도 했으니, 오늘날 백조일손묘역이 생겨난 원초지도 된다. 되찾은 나라에서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한 여러 번의 아픔을 간직한 모슬포 알드르는 우리 후손 모두에게 그 당시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자료제공 '강병대 그리고 모슬포' 편저자 김웅철, 고증 육일훈정훈동지회

이승만 전대통령 모슬포공항 도착연설

송악산 외륜일제 동굴진지

일본군 아카돔보

알뜨르비행장 원경

격납고 군(群)
 첫알오름 고사포(알드르비행장 방어용진지)
 패전 일본군 무기수합 폐기작전

[영문]
 Aldr airport-the old battle field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



안내판 설명 4

[한글]
 첫알오름 4·3 유적지

[영문]
 Seotal oreums Historical Site



안내판 설명 5

[한글]
 다크투어리즘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약도 생략)

[영문]
Dark Tourism

Dark Tourism (also black tourism or grief tourism) refers to tourism involving travel to site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death, disaster and tragedy.



안내판 설명 6

[한글]

알뜨르의 제로센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가 중국대륙의 남경 폭격을 위해 1926년부터 10년 동안 건설한 데서 비롯된다.

비행장의 격납고들은 패전의 기운이 역력해지던 1944년, 미군의 일본본토 진공루트 7개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일제의 본토방어계획 중 '결7호' 작전의 가미가제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곳 알뜨르에는 일제의 전투기를 감추기 위해 시설된 당시의 격납고 총 38개소 중 20개소가 현재까지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온전하게 남아 있다.

이 작품은 일제의 태평양전쟁기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전투기인 제로센을 실물크기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2010년 <경술국치 100년 기획 박경훈 개인전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의 출품작 중 하나다. 전시 당시의 작품제목은 <애국기매국기>였다.

작가 : 박경훈, 강문석

재료 : 철

크기 : 길이x높이x폭 / 날개없기 : 9m x 3m x 11m/21m²

[영문]

Zero-Sen, Japanese Wartime Fighter Aircraft in the Alddreu Airfield

The Alddreu airfield was developed by Imperial Japan constructed for 10 years from 1926 for the purpose of air raids on Nanjing of China.

The hangars were built in 1944 when Japan's defeat became apparent.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DM) made a homeland defense plan that includes the 7 Decisive Operations in anticipation of the 7 air raiding routes. The hangars in Alddreu were built to protect Kamamaze suicide aircraft unde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n the Alddreu field, the concrete structures of the 20 hangars, out of a total of 38 hangars built at that time to conceal the IMJ's fighter aircraft, still remain intact.

This piece is an actual re-creation of the most widely known IMJ's Zero-Sen during the pacific War. It was exhibited in Park, Gyeong-Hoon's solo exhibition, "We See Asia in Alddreu" in 2010, to remembe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Gyeongsul Gukchi," national disgrace. Gyeongsul Gukchi refers to the day of national

humiliation, in the 47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the Year of the Dog, when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also known as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Was made by representatives of the Empire of Japan and the Korean Empire in 1910.

The title of this work for the exhibition was, "Aegukgi Maegukgi," meaning "Patriot Aircraft and Traitor Aircraft."

Artists : Park, Gyeong-Hoon, Kang, Moon-Seok

Material : Iron

Size : 9m Length x 3m Height x 11m Width / Wing area 21m²



알트르의 제로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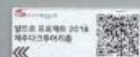
알트르비행장은 일제가 중국대륙의 남경 유격을 위해 1926년부터 10년 동안 건설한 데서 비롯된다.
 비행장의 적납고들은 패전의 기운이 역력해지던 1944년, 미군의 일본본토 진공루트 7개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일체의 본토방어계획 중 '길7호' 작전의 가이가제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미국 알트르에는 일제의 전투기를 감추기 위해 사설된 당시의 적납고, 총 38개소 중 20개소가 현재까지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증진하게 남아 있다.
 이 작품은 일제의 태평양전쟁기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전투기인 제로센을 상공크기로 한상화한 작품으로, 2010년 <경술국치 100년 기행 박경훈 개인전 '알트르에서 아시아를 보다'>의 출품작 중 하나다. 전시 당시의 작품제목은 <애국기매국기>였다.

작가: 박경훈, 강문석
 재료: 철
 크기: 길이×높이×폭 / 날개넓이: 9m×3m×11m / 21m²

Zero-Sen, Japanese Wartime Fighter Aircraft in the Alddreu Airfield

The Alddreu airfield was developed by Imperial Japan constructed for 10 years from 1926 for the purpose of air raids on Nanjing of China.
 The hangars were built in 1944 when Japan's defeat became apparent.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IJM) made a homeland defense plan that includes the 7 Decisive Operations in anticipation of the 7 air raiding routes. The hangars in Alddreu were built to protect Kamakaze suicide aircraft under the "Decisive Operation No. 7".
 In the Alddreu field, the concrete structures of the 20 hangars, out of a total of 38 hangars built at that time to conceal the IJ's fighter aircraft, still remain intact.
 This piece is an actual re-creation of the most widely known IJ's Zero-Sen during the Pacific War. It was exhibited in Park, Gyeong-Hoon's solo exhibition, "We See Asia in Alddreu" in 2010, to remembe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Gyeonggul Gukchi" national disgrace. "Gyeonggul Gukchi" refers to the day of national humiliation in the 47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the Year of the Dog, when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also known as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was made by representatives of the Empire of Japan and the Korean Empire in 1910.
 The title of this work for the exhibition was, "Aegukgi Maegukgi," meaning "Patriot Aircraft and Traitor Aircraft."

Artists: Park, Gyeong-Hoon, Kang, Moon-Seok
 Material: Iron
 Size: 9m Length x 3m Height x 11m Width / Wing Area 21m²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해당 없음	일제시기 유적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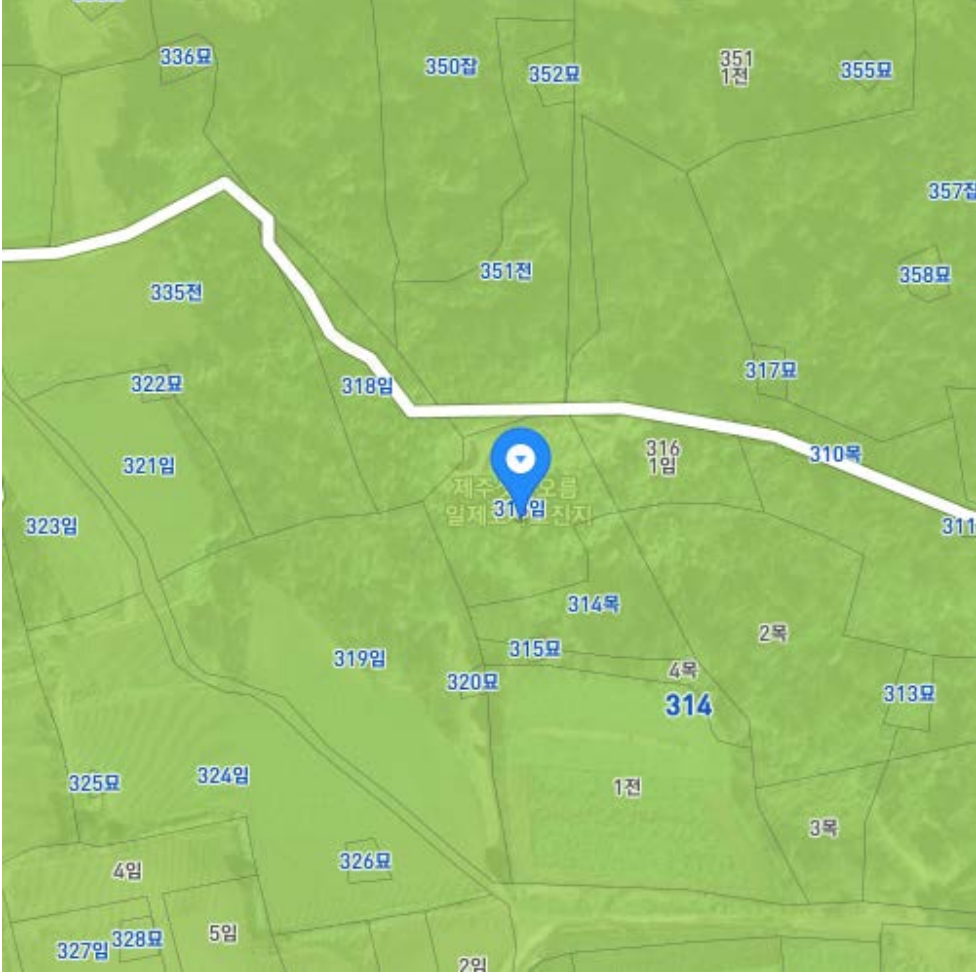
2) 문제점

- 2020년 9월 초순에 제주에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안내판4>가 훼손됨.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알뜨(드)르'의 영문 표기법인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설명을 보는 외국인들이 헷갈릴 수 있음. <안내판 1, 2>에는 "Altteureu", <안내판 3>에는 Aldr, <안내판 6>에는 "Aldreu"로 표기되어 있음.
- <안내판 6>의 내용 중 " 일제가 중국대륙의 남경 폭격을 위해 1926년부터 10년 동안 건설"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사실과 다름.

3) 개선방안

- 정기적인 안내판 관리가 이뤄져야 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역 고유명사에 대한 영문 표기법을 통일해야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알뜨르비행장은 1926년 건설 계획이 수립됐으며, 실제 공사는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이뤄졌음. 1937~1938년에는 중일전쟁이 발발, 중국 난징을 공격하기 위한 2차 공사가 이뤄졌음.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4년 10월에 마지막 3차 공사가 추진됨. 이를 바탕으로 안내판 내용을 수정해야 함.

셋알오름 고사포진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6
위치(위경도)	<p>33.205429, 126.284376</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2차 세계대전 말기에 셋알오름 일대에 일제가 구축한 고사포 진지.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알뜨르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했음. 고사포는 항공기를 사격하는데 쓰는 포임. 알뜨르비행장 확장공사와 맞물려 1944년부터 종전 시까지 구축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측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사포진지 알뜨르비행장 ‘고사포 진지’는 일제강점기에 미군 항공기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군사 시설이다. ‘고사포’는 항공기를 사격하는데 쓰는, 양각이 큰 포를 말하는데, 달리 ‘고각포’라고도 한다. 1937년 중일전쟁 초기에 구축된 ‘고사포 진지’는 1943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포대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때 사정거리 20km에 이르는 미군 B29 폭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형 고각포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 설치됐던 포대는 폭파 제거되었으나 콘크리트 포상 흔적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p> <p>[영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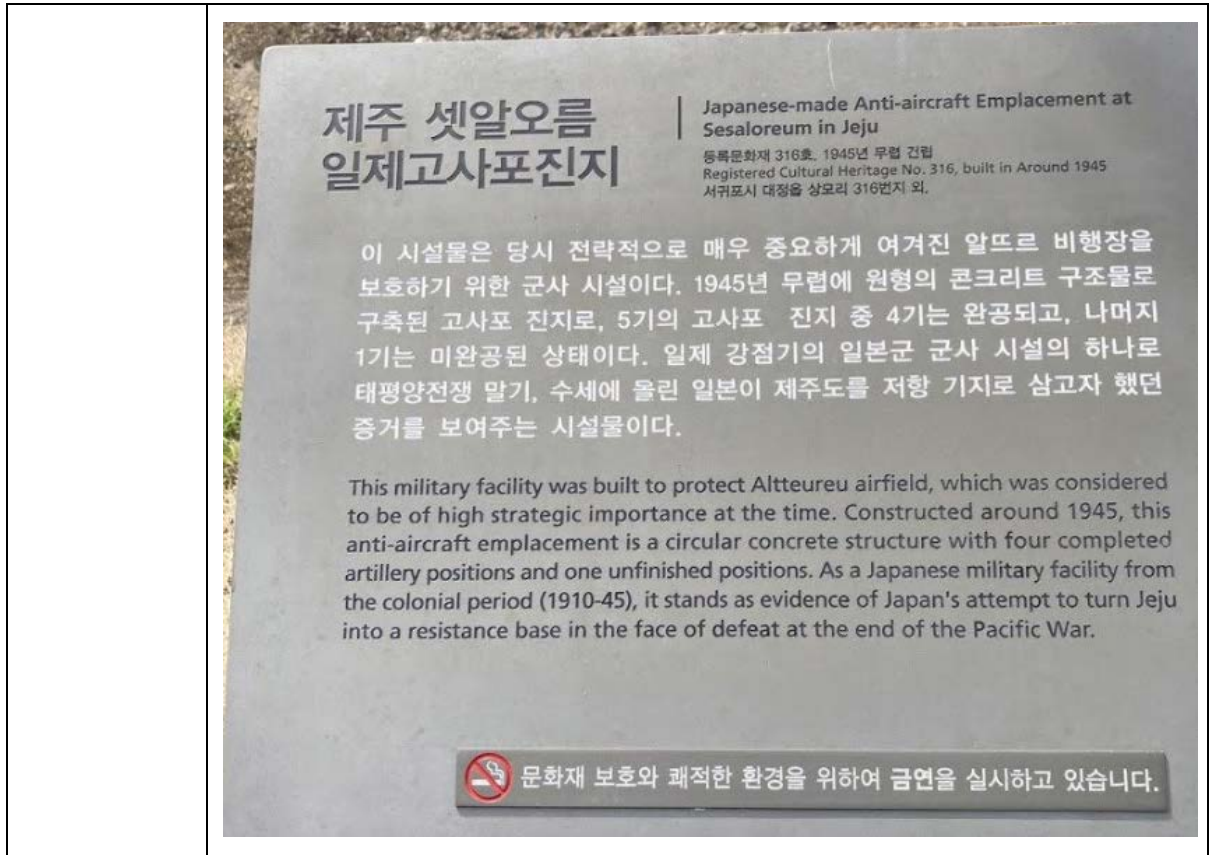
Anti-aircraft Emplacement of Imperial Japan on Sedaroreum Volcanic Cone, Jeju
 The anti-aircraft emplacements in Altteureu Airfield are military facilities built by the Japanese to protect against air attack from the US in 1937, when the the second Sin-Japanese War broke out. In 1943, the original ones were replaced with concrete structures supposedly equipped with updated guns with a shooting range of 20km against American B-29 bombers.



안내판 설명 2

[한글]
 제주 셋알오름 일제고사포진지
 등록문화재 316호, 1945년 무렵 건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6번지 외
 이 시설물은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일뜨르 비행장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시설이다. 1945년 무렵에 원형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축된 고사포 진지로, 5기의 고사포 진지 중 4기는 완공되고, 나머지 1기는 미완공된 상태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군사 시설의 하나로 태평양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 기지로 삼고자 했던 증거를 보여주는 시설물이다.

[영문]
 Japanese-made Anti-aircraft Emplacement at Sesaloreum in Jeju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316, built in Around 1945
 This military facility was built to protect Altteureu airfield, which was considered to be of high strategic importance at the time. Constructed around 1945, this anti-aircraft emplacement is a circular concrete structure with four completed artillery positions and one unfinished positions. As a Japanese military facility from the colonial period (1910-45), it stands as evidence of Japan's attempt to turn Jeju into a resistance base in the face of defeat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해당 없음	일제시기 유적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문화재청 웹사이트에는 5기의 진지 중 2기가 완공되고 3기가 미완공 되었다고 기록되었지만 현장 유적지 안내판에는 5기의 진지 중 4기가 완공, 나머지 1기가 미완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영문 안내의 경우 단어 중복 기재 등 오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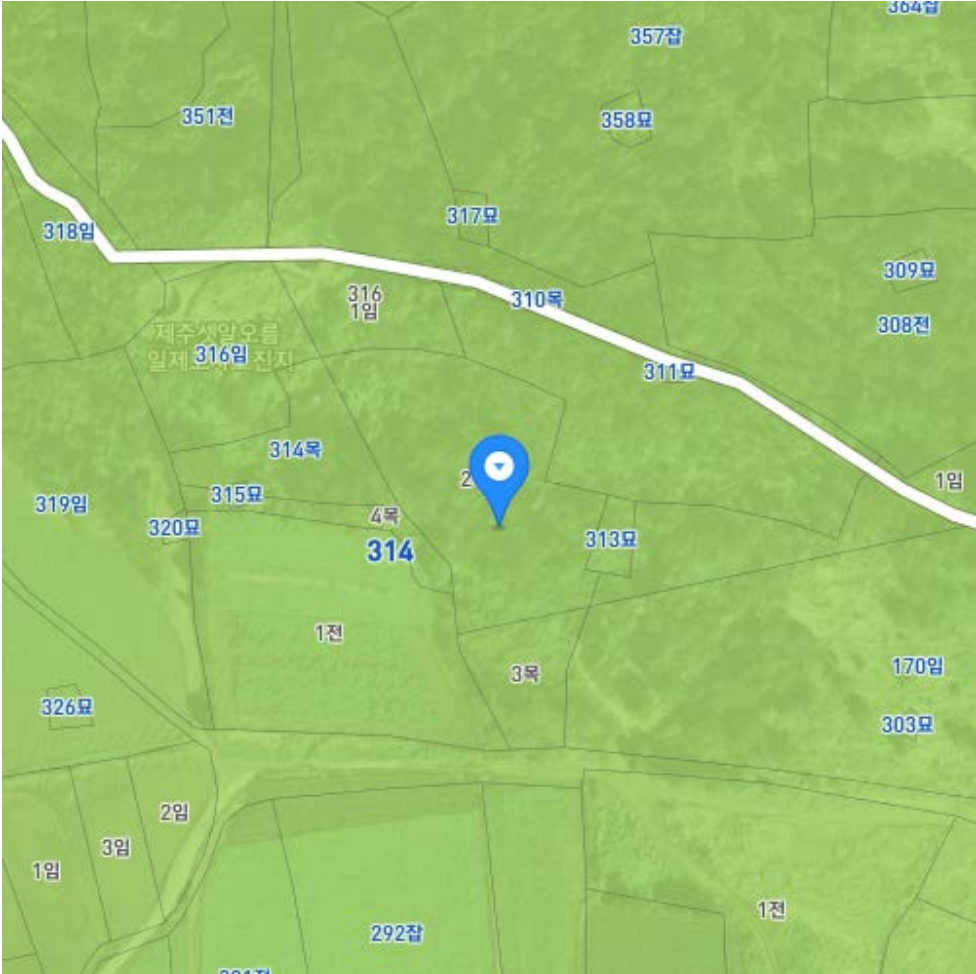
2) 문제점

-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안내판 1>의 일부 글자가 벗겨짐.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와 안내판이 오름 위에 있어 이동약자는 접근하기 어려움.
- <안내판 1>과 <안내판 2>에 나온 고사포진지의 구축시기가 다름.
- <안내판 2>에는 고사포진지 5기 중 4기가 완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는 고사포진지 5기 중 2기가 완공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어 유적지 설명이 다름.

3) 개선방안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이동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름 초입에 유적지의 설명과 전경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적지 설명을 수정, 보완해야 함.

셋알오름 진지동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4-2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05060, 126.285140</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제2차 세계대전 말기 패전 위기에 직면한 일본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구축한 해군 비행장의 부속 시설. 동굴진지는 전체 길이가 1,220m에 이르는 미로형의 대형 동굴로 입구는 6곳임. 이 시설은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비행장을 경비하고, 비행장과 항공기, 각종 탄약, 원료 등을 은폐 및 저장하는 기능을 했음. 동굴진지 구축 공사는 알뜨르 비행장 3차 확장 공사와 맞물려 1944년쯤부터 종전까지 진행된 것으로 추측됨.</p>
안내판 설명	<p>[한글]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제310호, 1943년 무렵 건립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본토 공격을 위해 구축한 알뜨르 비행장 부속 지원시설들로 구축되어 있다. 제주도내 동굴진지 가운데 동공의 크기가 가장 크다. 동굴진지의 형태는 격자 미로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내부는 전투사령실, 병사, 탄약고, 연료고, 비행기 수리공장, 어뢰 조정고, 통신실 등 중공군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시설을 동굴 속에 구축한 것은 연합군의 감시를 피하고 공중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 침략성을 보여주는 전쟁유적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p>

(약도 생략)

[영문]

Japanese-made Cave Encampment at Sesaloreum in Jeju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10, Built in Around 1943

The Sesaloreum Japanese Bunker in Jeju is a military fortification that was built by imperial Japan during the Pacific War(1937~1945) to support the Altteureu Military Airbase, from which air strikes were launched on the Chinese mainland. As the largest of all the airfield bunkers built by imperial Japan across the island of Jeju, the Sesaloreum Bunker is characterized by a maze-like structure consisting of a command post, an arsenal, a torpedo magazine, a fuel depot, barracks, hangars, and a communications room. The airfield bunker system was intended to keep Japanese military resources from observation and airstrikes by the alli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is historic sit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wartime heritage left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on Korean soil and a valuable resource for history education.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해당 없음	일제시기 유적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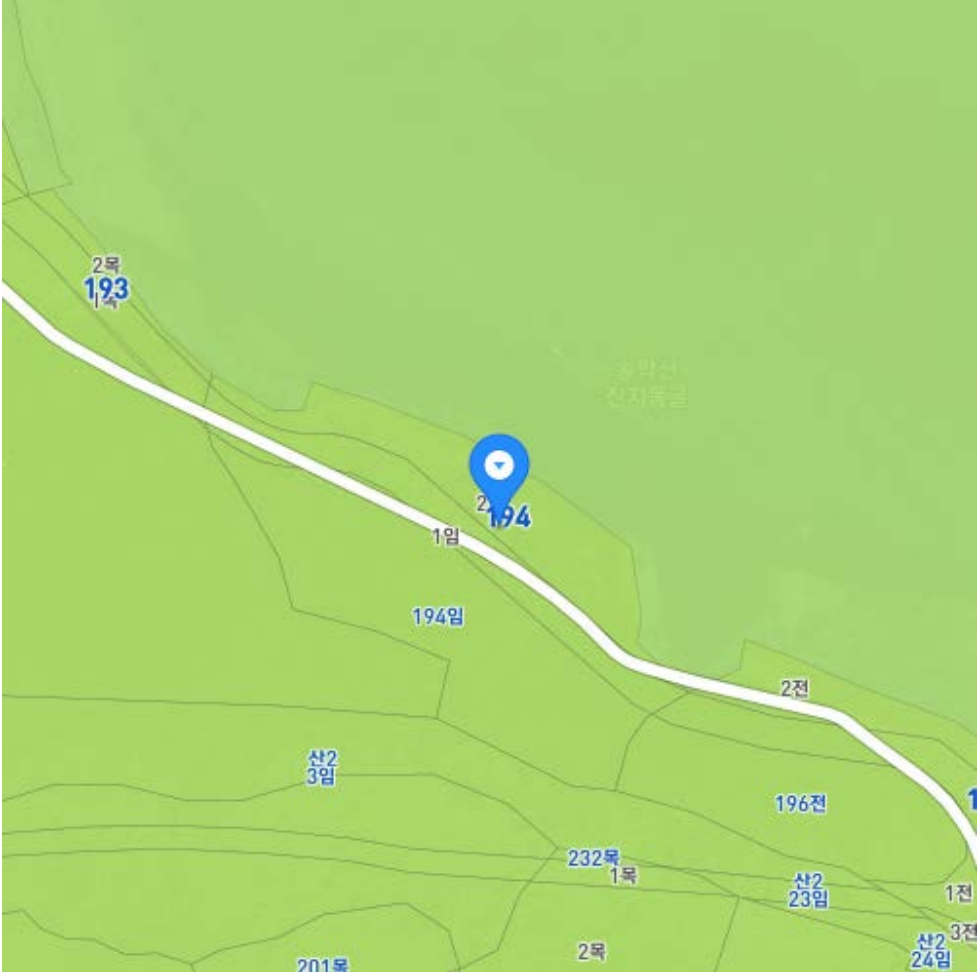
2) 문제점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가 오름 아래 있지만 길이 고르지 않아 이동약자 등은 접근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이동약자 등을 위해 접근 가능한 오름 초입에 유적지 설명과 전경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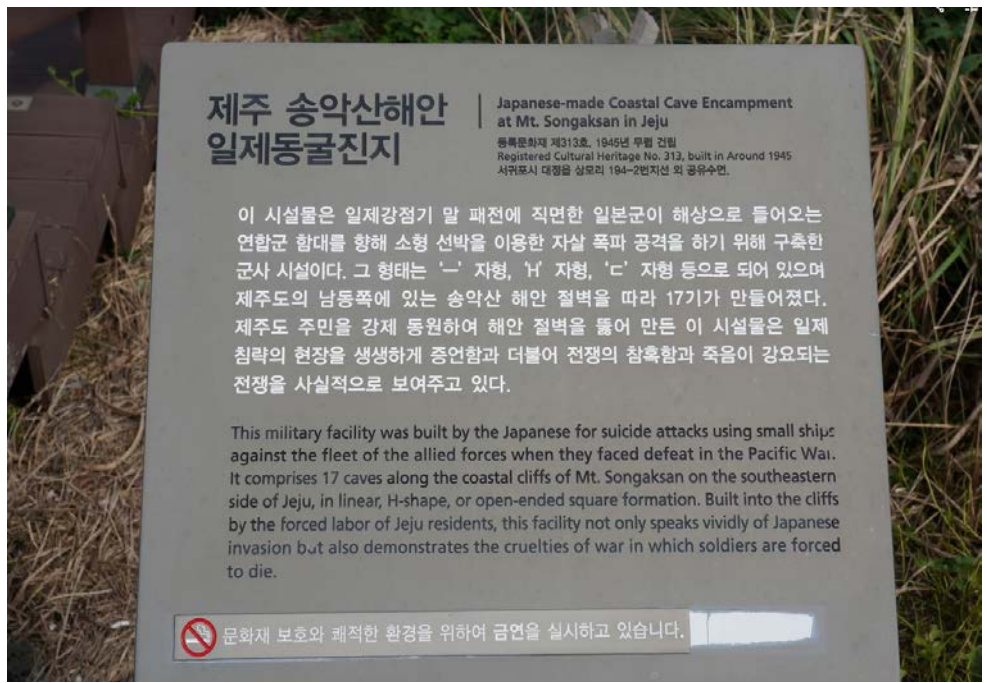
송악산 일제 진지동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94-2
위치(위경도)	<p>33.203039, 126.291592</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세계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 2월부터 구축된 일본 해군의 자살 특공부대 시설로, 일본 육군이 제주에서 준비한 결7호 작전을 위한 시설임. 결7호 작전은 해상에서 상륙하는 미군 상륙정에 잠수정, 작은 보트 등을 이용해 폭탄을 싣고 자살 공격을 감행해 일본 본토를 방어한다는 작전임. 송악산 해안 절벽을 따라 총 17기가 구축됐음. 이 시설은 일제가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구축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제주 송악산해안 일제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제313호(1945무렵 건립) 이 시설물은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연합군 함대를 향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해 구축한 군사 시설이다. 그 형태는 ‘-’ 자형, ‘H’ 자형, ‘C’ 자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남동쪽에 있는 송악산 해안 절벽을 따라 17기가 만들어졌다. 제주도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해안 절벽을 뚫어 만든 이 시설물은 일제 침략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함과 더불어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이 강요되는 전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p>

	<p>[영문] Jeju Songaksan Ilje Haean Donggul jinji (Japanese-made Coastal Encampment at Mt. Songaksan in Jeju)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13 Built in around 1945 This military facility was built by the Japanese for suicide attacks using small ships against the fleet of the allied forces when they faced defeat in the Pacific War. It comprises 17 caves along the coastal cliffs of Mt. Songaksan on the southeastern side of Jeju, in linear, H-shape, or open-ended square formation. Built into the cliffs by the forced labor of Jeju residents, this facility not only speaks vividly of Japanese invasion but also demonstrates the cruelties of war in which soldiers are forced to die.</p> 
--	--

<p>안내판 설명 2</p>

<p>[한글] 제주 송악산해안 일제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제313호(1945무렵 건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94-2번지선 외 공유수면.</p> <p>이 시설물은 일제강점기 말 패전에 직면한 일본군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연합군 함대를 향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해 구축한 군사 시설이다. 그 형태는 ‘—’ 자형, ‘H’ 자형, ‘C’ 자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남동쪽에 있는 송악산 해안 절벽을 따라 17기가 만들어졌다. 제주도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해안 절벽을 뚫어 만든 이 시설물은 일제 침략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함과 더불어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이 강요되는 전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p> <p>[영문] Jeju Songaksan Ilje Haean Donggul jinji (Japanese-made Coastal Encampment at Mt. Songaksan in Jeju)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13 Built in around 1945 This military facility was built by the Japanese for suicide attacks using small ships against the fleet of the allied forces when they faced defeat in the Pacific War. It comprises 17 caves along the coastal cliffs of Mt. Songaksan on the southeastern side of Jeju, in linear, H-shape, or open-ended square formation. Built into the cliffs by the forced labor of Jeju residents, this facility not only speaks vividly of Japanese invasion but also demonstrates the cruelties of war in which soldiers are forced to die.</p>
--



안내판 설명 3

[한글]
 다크투어리즘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약도 생략)

[영문]
 Dark Tourism
 Dark Tourism (also black tourism or grief tourism) refers to tourism involving travel to site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death, disaster and tragedy.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해당 없음	일제시기 유적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3) 개선방안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섯알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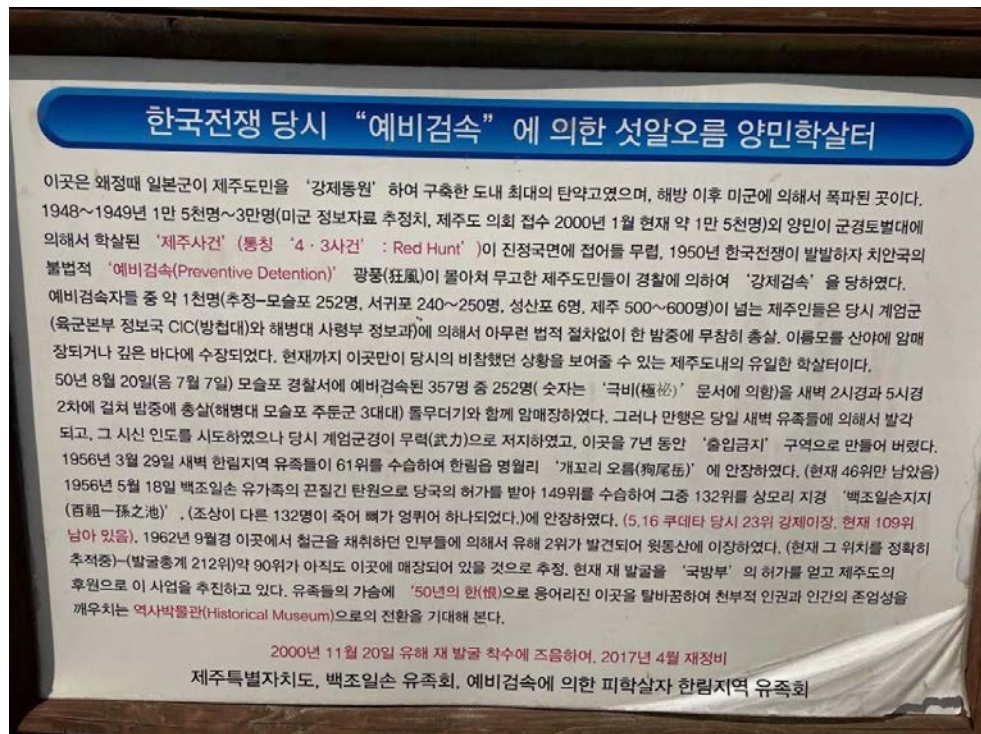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0-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0561, 126.28056</p> 
조사일	2020.9.29(화)
유적지 개요	<p>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부지역의 예비검속자 195명(대정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한 장소임.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구금했고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는 347명이 구금되어 있었음. 그 중 음력 7월 7일 (양력 8월 20일) 새벽 2시에 63명(한림어업창고 및 무릉지서 구금자), 새벽 5시에 132명(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구금자)이 셋알오름에서 학살됨.</p>
안내판 설명1	<p>[한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에 의한 셋알오름 양민학살터 이곳은 왜정때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강제동원’하여 구축한 도내 최대의 탄약고터였으며, 해방 이후 미군에 의해서 폭파된 곳이다. 1948~1949년 1만 5천명~3만명(미군 정보자료 추정치, 제주도 의회 접수 2000년 1월 현재 약 1만 5천명)의 양민이 군경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제주사건’(통칭 ‘4·3 사건’: Red Hunt’)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무렵,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치안국의 불법적 ‘예비검속(Preventive Detention)’ 광풍(狂風)이 몰아쳐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의하여 ‘강제검속’을 당했다. 예비검속자들 중 약 1천명(추정-모슬포 252명, 서귀포</p>

240~250명, 성산포 6명, 제주 500~600명)이 넘는 제주인들은 당시 계엄군(육군본부 정보국 CIC(방첩대)와 해병대 사령부 정보과)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한 밤중에 무참히 총살. 이름모를 산야에 암매장되거나 깊은 바다에 수장되었다. 현재까지 이곳만이 당시의 비참했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내 유일한 학살터이다.

50년 8월 20일(음 7월 7일) 모슬포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357명 중 252명(숫자는 '극비(極秘)' 문서에 의함)을 새벽 2시경과 5시경 2차에 걸쳐 밤중에 총살(해병대 모슬포 주둔군 4대대) 돌무더기와 함께 암매장했다. 그러나 만행은 당일 새벽 유족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 시신 인도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계엄군경이 무력(武力)으로 저지하였고, 이곳을 7년 동안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1956년 3월 29일 새벽 한림지역 유족들이 61위를 수습하여 한림읍 명월리 '개꼬리 오름'에 안장했다. (현재 46위만 남았음) 1956년 5월 18일 백조일손 유가족의 끈질긴 탄원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149위를 수습하여 그중 132위를 상모리 지경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 (조상이 다른 132명이 죽어 빠가 엉켜어 하나되었다.)에 안장했다. (5.16 쿠데타 당시 23위 강제이장, 현재 109위 남아 있음). 1962년 9월경 이곳에서 철근을 채취하던 인부들에 의해서 유해 2위가 발견되어 윗동산에 이장했다. (현재 그 위치를 정확히 추적중)-(발굴총계 212위)약 90위가 아직도 이곳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현재 재 발굴을 '국방부'의 허가를 얻고 제주도의 후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족들이 가슴에 '50년의 한(恨)'으로 응어리진 이곳을 탈바꿈하여 천부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치는 역사박물관(Historical Museum)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2000년 11월 20일 유해 재 발굴 착수에 즈음하여, 2017년 4월 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백조일손 유족회, 예비검속에 의한 피학살자 한림지역 유족회

[영문]
안내판 1-1(뒷면)에 있음



안내판 설명
1-1(1 뒷면)

[한글]
제주 4·3 유적지 첫알오름
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7-3번지 일대
이곳은 제주4·3사건이 진정될 국면으로 접어들 무렵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에 1945년 미군정에 의해 폐지된 예비검속법을

악용하여 각 경찰국에 불순분자 등을 구속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는 344명 예비검속하고 그중 252명이 당시 계엄령에 의하여 집단학살되고 (알 수 없음) 211위는 유가족들이 수습하였고 41위는 행방불명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대정, 한림, 한경 등을 관할하던 모슬포경찰서에서는 농민과 마을유지, 교육자, 공무원 우익단체장 학생 등 344명을 예비검속하고 한림어업창고와 무릉지서 모슬포 절간 고구마창고에 구금하여, 1950년 7월 16일 1차로 20여 명을 학살하고, 2차로 8월 20일 새벽 2시에 한림어업창고 및 무릉지서에 구금된 60명을 학살하였고 새벽 (알 수 없음) 조합창고와 무릉지서에 구금되었다가 희생을 당한 (알 수 없음) 수습하여 한림읍 금악리 지경 만벵디묘역에 안장하였고, 동년 5월 18일에는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되어 희생을 당한 백 (알 수 없음) 유가족들의 끈질긴 탄원으로 당국의 허가 149위를 수습하여 (알 수 없음) 17위는 인지하는 유족에 의해 개인별 인도하였지만 피아 구별할 수 없는 유해 132위는 대정읍 상모리 지역 백조일손묘역에 안장 (알 수 없음) 또한 백조(알 수 없음)행방불명된 1위를 찾기 위해 제주 (알 수 없음) 받아 2000년 9월 21일까지 증언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 여러곳을 수색하며 유해 발굴을 시도 (알 수 없음) 세월이 경과하고 (알 수 없음) 유해 발굴은 (알 수 없음)

[영어]

(알 수 없음) broke out on 25, 1950, the Jeju April 3rd Incident (알 수 없음) by the (알 수 없음) Ministry of the Home Affairs ordered each police department to arrest (알 수 없음) the law of preventive arrest abolished 1945 by the US (알 수 없음) 344 people were arres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Moseulpo police station. Among arrested citizens, 252 people were collect(알 수 없음) killed and buried (알 수 없음) soldiers. 211 edad bodies were collected the bereaved families and 41 dead bodies were missing. in light of this incident, this place (알 수 없음) scene of (알 수 없음) Hallim, and Hangyeongfell under the jurisdiction of Moseulpo police station. This police station arrested 344 citizens, community leaders, (알 수 없음) the right wing party and students for the preventive measures and cinfined them in the Hallim fishing warehouse, Mureung police (알 수 없음) temple building. 20 people were killed in July 16, 1950 at first, and subsequently 62 people, who were detained in the Hallim fishing storage (알 수 없음) killed at 2 am, on August 20, 1950, At 5 am 130 people who were detained in the Moseulpo potato storstge were cillectively killed, in this (알 수 없음) killed without legal procedures throughout the three times. After that, bereaved families in Hallim region collected 62 dead bodies who (알 수 없음) and the Mureung police substation at dawn on March 29, 1956 and they buried corpses in the Manbangdi cemetery, located in Geumak-ri (알 수 없음) same year, bereaved families of killed people who were detained in the potato storage of the Moseulpo temple made a petition tenaciously and got (알 수 없음) that they could collect 149 dead bodies, Among dead bodies, 17 corpses were delivered to their bereaved families, but 132 corpses could not be distinguished. therefore, 132 corpses were buried in the cemetery of Baekjoilson(this meaning is that the descendants of these 132 corpses were the same as one) located in Sangmori (알 수 없음) bereaved families tried to make a search for dead bodies in surrounding areas based on the comments of witnesses from September 21, 2000 to 2001 for finding 41 missing bodies under the support of Jejudo. However, they failed to discover additional corpses because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they could not find the exact location.

<p>안내판 설명2</p>	<p>[한글] 이 곳은 1차 1950년 7월 16일 해병모슬포부대 5중대 2소대 분대원과 2차 8월 20일(음 7월 7일) 해병3대대 분대장급이상 하사관들에 의해 민간인을 학살한 장소이다. 해병대 모슬포부대에서 차출된 대원들이 도착하자 중대장, 소대장이 미리 도착했고, 소대장이 총알을 나눠주었으며 중대장은 “한사람이 한명씩 총살하라”는 명령에 대원들이 일렬종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GMC트럭에서 내리는 민간인을 이곳호 가장자리로 끌고와서 한명씩 세워놓고 지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해 시신을 호 안으로 떨어지게 한 장소이다.(백조일손) (총살집행참여자 진술)</p> <p>[영문] 없음</p>



이 곳은 1차 1950년 7월 16일 해병모
슬포부대 5중대 2소대 분대원과 2차
8월 20일(음7월7일) 해병3대대 분대장
급이상 하사관들에 의해 민간인을 학
살한 장소이다.

해병대 모슬포부대에서 차출된 대원들
이 도착하자 중대장, 소대장이 미리 도
착했고, 소대장이 총알을 나눠주었으며
중대장은 “한사람이 한명씩 총살하라”
는 명령에 대원들이 일렬종대로 대기
하고 있다가 GMC트럭에서 내리는 민
간인을 이곳호 가장자리로 끌고와서
한명씩 세워놓고 지휘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해 시신을 호 안으로 떨어
지게 한 장소이다.(백조일손)

(총살집행참여자 진술)

안내판 설명3

[한글]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한림어업조합창고와 무릉지서에 예비 검속 되었다가
1950년 8월 20일(음 7월 7일)에 희생된후 1956년 3월30일 62구의 유해를 수습하고
한림면 금악리 275번지 만벵디 공동장지에 안장된 영령들 희생장소이다.
(유족회 진상규명)

[영문]
없음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한림어업조합창고와 무릉지서에 예비 검속되었다가 1950년 8월 20일(음7월7일)에 희생된후 1956년 3월30일 62구의 유해를 수습하고 한림면 금악리 275번지 만병디 공동장지에 안장된 영령들 희생장소이다.
(유족회 진상규명)

안내판 설명 4

[한글]
 불법주륙기
 1.사건개요
 1948년 발생한 잔혹한 4·3 사건이 끝날 무렵인 1950년 6월 25일 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당일 오후 2시 요시찰이 및 형무소 경비강화,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 6월 30일 구금자 처리 등의 내용을 전문으로 각 경찰국에 지시함에 따라 모슬포 경찰서에서 관내 에서는 예비검속이란 미명하에 344명을 강제 구인하여 관리해 오다 전황이 위난에 처하자 계엄사령부에 송치된 C.D급 252명을 제주시 정뜨르비행장과 대정읍 석알오름 일본군 탄약고 폭파시 형성된 물웅덩이에서 정부군에 의해 집단학살후 암매장한 사건임
 2.비극의 전말
 (1) 예비검속
 모슬포 경찰서 관내 각 지서 (한림.대정.두모.고산.저지.무릉.안덕)에서는 1950년 6월과 7월 무고한 농민, 공무원, 마을유지, 부녀자, 학생 등 344명을 구인하여

모슬포 절간 창고와 한림수협창고 및 무릉지서에서 분산수용, 경찰의 감호하여 가족과의 면회를 허용하고 지방자의 병보석을 시행하는 등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찰계장(채00)의 주관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라 A(23명) B(68명) C(144명) D(109명) 4등급으로 분류 살생부를 작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됨.

(2) 집단학살과 암매장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의 남침으로 서울을 떠난 장부는 대전을 거쳐 대구·부산으로 퇴각하였으며 낙동강 전선이 누란지세에 처하게 되자 정봉의 최종 피난처를 제주도로 잠정 결정하여 계엄사령부에 송치된 252명 중 61명이 동년 7월 16일 정부군의 인계된 20명은 첫알오름에서 학살하고 나머지

41명은 행방불명 상태인 가운데 동년 8월 20일 새벽 2시부터 5시사이 세 곳의 구금자를 순차에 따라 학살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 자택에 있던 대정면 사무소 공무원 이현필 좌용운을 비롯 정이환(청년회 총무) 장성림(연초판매) 좌용문(도정업) 이상봉(연초판매) 좌용문(도정업) 이상봉(청년회간부) 등 6명을 학살장소로 무단 강제 압송할때 이승과 저승 간 절연의 황천길에 신발을 벗어던져 족적을 알리며

첫알오름 탄약고터에 이르자 앞에 이송된 한림수협창고와 무릉지서에 구금되었던 60여명은 폭파된 탄약고 남사면에서 모슬포 절간창고에 구금되었던 130명은 웅덩이에서 모슬포 주둔 정부군에 의해 집단 학살한후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하였으며 그 비인도적인 만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군경에 의한 경비를 강화했다.

(3) DNA 검사로 60년의 한(□)을 풀다

1950년 7월 16일 41명을 집단학살한 가해자들의 함구령으로 희생자들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산방산 앞바다 수장설 등으로 억측이 난무하여 60여년 동안 망연자실 번민하던차 2007년 11월 27일 정뜨르비행장 민간인 학살장소에서 발굴한 유해의 DNA 검사결과(2010.03) 행불자 41명 중 송대길(청년회임원) 김회전(대정교교사) 등의 신원이 확인됨으로써 행방불명된 전원이 동일장소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에 동참하는 한편 양신하(백조일손유족회고문)의 적극적인 탐문 조사과정을 통하여 당시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게 되자 예비검속 첫알오름사건 행방불명유족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한편 신원확인을 못한 수많은 유가족들은 하루 속히 DNA 검사가 이루어지길 애타게 기다리며 국가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3. 시신수습 및 유해 발굴과 안장

<1차> 1959년 8월 20일 새벽 첫알오름 근처에서 소를 관리하던 대정읍 상모리 거주 유계돌씨가 학살현장을 목격하고 바다로 고기잡이 가던 상모리 이경익씨와 정공심씨에게 집단학살 사실을 알리자 이두분에 의해 유가족들에게 비보가 전해 졌으며 전갈을 받은 300여명 유족들이 학살현장에 집결하여 시신 27구를 수습할무렵 경찰들이 공포를 쏘며 무력적으로 해산을 유도하자 겁에 질린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수습했던 시신을 구덩이에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해산했다

<2차> 유족들은 상시 경찰의 감시와 연좌제에 의해 입신양명의 길이 막힌체 절치부심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중 만병디 유족들은 1956년 3월 30일(음력 2월 19일) 새벽을 이용60구의 유해를 발굴 만병디 공동장지에 안장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백조일손유족들이 4월 28일 학살 현장에서 유해 발굴을 시도하였으나 무장군경의 저지로 또다시 실패했다

<3차> 그후 유족들의 관계당국에 꾸준한 탄원과 청원에 의해 유해 발굴이 허용되자 동년 5월 18일시신이 수장된 물웅덩이에서 양수기(상모리 좌용진 소유)로 물을 퍼내어 149구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그중 치아와 옷 유품 등으로 신원이 확인된 17구는 각자의 묘지로 옮겨지고 자타식별이 되지 않은 유

해는 준비된 칠성판위에 머리뼈, 팔뼈, 다리뼈를 132구를 구성하여 대정읍 상모리 586-1번지에 안장하고 백조일손지이라 명명 했다. 한편 1961년 고철수집상들이 첫알오름 학살터 만병디 희생자발굴 장소 인근에서 작업도중 우연히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구를 발굴하게 되자 그들은 정중히

예를 갖추어 첫알오름 남사면에 매장했다고 증언하고있음 (고증자: 도의회 부의장).

3. 통계

(1) 면별 희생자 현황

지역별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애월
희생자	68명	64명	58명	33명	6명

(2)연령별 희생자 현황

연령	20세 미만	20-29	30-39	40-49
희생자	33명	122명	52명	23명

연령	50세 이상	확인 불가	계
희생자		13명	252명

서기 2007년 12월 31일 근수
서기 2015년 8월 개각수립
65년 고난의 약사
1950. 6월 ~7월. 모슬포 경찰서관내 344명 예비검속
1950.7.16. 구금자 20명 첫알오름에서 학살
41명 제주시 정뜨르비행장에서 학살추정
1950.8.20. 첫알오름에서 191명 학살
1950.8. 말. 칠석 공동묘 유족회 결성
1956. 3.30. 만병디 유족회 60여구 발굴 안장
1956.5.18. 백조일손 132구 안장하고 17구는 타소 안장
1959.5.8. 백조일손 묘역 위령비 건립
1960.5.23. 국회 양민 학살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가결
1960.8.19. 국회에 명예회복 탄원서 제출
1961. 6.15. 경찰서 주도 묘역위령비 파괴
1961.6. 말. 경찰강요로 23위 타소로 이장
1993.7.3. 백조일손유족회 창립
1993.8.24. 위령비제막 및 제1회 위령제 봉행
1994~2001. 유족회 진상규명 활동 강화
1999.5.24. 미국거주 남상휘 초청 간담회
1999.10.14. 만병디 유족회 결성
2000.5.5. 죽음의 예비검속 발간 (이도영)
2000. 8.30. 입법부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
2000~2001. 첫알오름 유해 재 발굴 시도
2000.10.14. 예비검속 제주도 연합회결성
2001.8.21. 만병디 유족회 제1회 위령제 봉행
2002.2.4. 민주당 대통령 경선자 노무현, 정동영, 이인제 묘역, 학살터 참배
2002.4.5. 23회 강제이장묘중 7위 재이장
2003.5.31. 4·3 진상보고서 공포
2006~2010. 첫알오름 학살터 성역화 사업
2007.11.13. 진화위 첫알오름사건 218명 희생자로 결정
2009.8.26. 국방부장관 이 상희 국가대표 사과
2010.8.11.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010.9.20. 첫알오름사건 행불유족회결성
2010.12.20. 첫알오름의 한 (恨) 60년사발간
2012. 5.8. 1심 (서울지방법원) 원고 승소
2014.9.18. 2심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2015.6.2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승소

[영문]

Details of the event

1. When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on June 25th, 1959, 344 innocent

civilians in the jurisdiction of Moseulpo police station were put into preventive custody and detained by the Home Office Policing Board.

2. As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faced imminent peril, the evacuating Korean government, which had retreated to Busan, planned to go down to Jeju as their final refuge. Meanwhile, police intended to tighten security by classifying those who were in preventive custody in Jeju with an arbitrary standard. 252 people who were categorized as C or D were subjected to genocide and buried secretly by police and their dead bodies were not delivered to their bereaved families.

3. On March 30th, 1956, the bereaved families in Manbangdi, Halim unearthed 60 bodies and buried them in a joint burial spot at midnight.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Baekjoilson massacre unearthed 149 bodies on May 18th, 1956 under the permission of the Korean authorities. Among them 132 unidentified bodies were buried in the cemetery of the bereaved families and a memorial monument was built with the donations from the families: 17 identified bodies which were buried in another cemetery. Baekjoilson denotes a killing of more than 100 people and refers to this specific event in Jeju.

4. After the May 16 Coup, police destroyed the memorial monument and before destroying the grave boundaries the bereaved families relocated 23 bodi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5. As for 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egislated the truth of what happened in Jeju was revealed on the 13th of November in 2007: 218 innocent civilians were sacrificed by the illegal act of the government on August 11th, 2010. 65 years later, on June 24th, 2015, the victims regained their honor right after the bereaved families won their compensation claim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gainst the government.



안내판 설명 5

[한글]
 (후면)사건개요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모슬포경찰서 관내에서 예비검속한 344명중계엄사령부에 송치된 252명을 동년 7월 16일과 8월 20일 법적절차없이 모슬포 주둔군에의해 집단학살 암매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희생자결정 : 진화위는 기본법제 23조 동법 시행령제 7조 및

	<p>위원회규칙13조에 근거 2005년 12월 1일-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2007년 2월 20일까지 조사결과 낙동강 전선이 위기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피난계획 및 제주도를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는 이유에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인정 2007년 11월 13일 218명에 대하여 희생자로 결정함.</p> <p>진화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군이 민간인을 법적절차없이 집단학살한 사건을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그에대한 책임은 군과 경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었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배상을 권고하였음.</p> <p>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 : 첫알오름 희생자 유족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 법무부장관) 예비검속 첫알오름 양민 집단학살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됨에따라 2010년 8월 11일 희생자 252명중 96명 (38%)의 유족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덕수로 정하고 동년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4차의변론을 거쳐 2012년 5월 8일 원고 1심승소 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2012 나 50027손해배상(기) 5차의 심리와 변론 끝에 2014년 9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여 피고패소 처분하자 (재판장 이승영 판사 우관재 김영식) 피고는 대법원에 또다시 상소하였음 (사건 2015 다 209750 손해배상 (기)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24일 심리 불속행 기각처리 하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 국가는 희생자 1인당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식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시하므로써 원고는 승소 하였음. 이에 우리 유족들은 65년만에 염원하던 명예 회복이 이루어 졌으므로 그 깊은뜻을 만세에 기리고자 이碑를 세웁니다.</p> <p>영령들이시어! 한맺힌 65년! 이제 긴-여정이 끝입니다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고히 영면 하소서 영령앞에 엎드려 명복을 비읍니다.</p> <p>(측면)명예회복 추진경위 2007.11.13 진화위 첫알오름사건 218명 희생자결정 2010.7.16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설명회 2010.8.3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의 2010.8.11 소송 대리인선정 (법무법인 덕수) 2010.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제출 희생자252명 중 96명 (38%) 2011.3.15 1차변론심리 2011.7.13 소송대책위원회구성 (위원장 오명수) 2012.4.13 4차변론종결 2012.5.8 1심판결 원고일부승소 2012.5.29 피고불복.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012.6.1 소송대책위원회 해체 2012.6.4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결성 위원장 양천익(위원명단을 옆면에있음)</p> <p>[영문] 없음</p>
--	---





안내판 설명 6

[한글]

여기는 대학살을 감행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유품들을 불태웠던 장소이다. 예비검속 구금장소는 협소했다. 희생자들은 생활 소지품들을 모두 트럭에 실었다.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석) 새벽 트럭에 실려가며 고향마을을 벗어나 이곳 길을 향했을 때, 그제서야 자신들의 죽음을 예측했었는지 신었던 검은 고무신들을 벗어던지며 가는 길을 가족에게 알리려 했었다. 길위에 검은 고무신들을 따라 유족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곳에서 담요, 베개, 옷가지, 허리띠, 쌀, 부식 등 희생자들의 소지품이 모두 불에 타고 있었다. 그 날의 역사적 사실을 자각함은 희생자의 원혼을 추모하는 일로서, 당시에 남편찾아 달려와 현장을 목격했던 이상숙 여사가 일금 4500만원을 지원하여 재현된 시설물이다.

[영문]

The place of the destruction of evidence

This is the place where relics were burned to destroy evidence of the massacre. The place of preventive custody was confined. The victims loaded all of their belongings onto trucks, because they had probably been lured to a larger place. After the trucks were loaded, at dawn on August 20th, 1950(the sev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the trucks brought them down this road. They perhaps predicted their deaths and they tried to leave traces along the way by throwing off their black rubber shoes. When the bereaved families came running by, following the black rubber shoes on the road, the belongings of the victims like blankets, pillows, clothes, belts, rice, and side dishes, were all burning. To realize the historical fact of that day is a way of honoring the vengeful spirits of the victims. This reenactment is supported by a 45 million won donation from Lee Sangsur, born in 1925, who came to this places and witnessed these events.

[한글2]

특지 유족 이상숙(1925년생)은 안덕면 덕수리 1944번지 전주이씨 부친 이군평씨와 모친 김해김씨 김태생여사의 2남 1녀 중 외동딸로 1945년 만 20세에 한 살 연하인 상창리 강성휴(1926년생)씨와 혼인하였다. 부군 강성휴가 안덕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에서는 예비검속령을 발령하였고 강성휴 선생은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모슬포절간 창고에 구금되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7석) 새벽 이 곳 석알오름에서

정부군에 의해 총살되었다. 이상숙여사는 부군이 학살되던 날 숨가빠 학살현장에 왔었는데, 뒤엎힌 많은 시신들 중에 첫눈에 띄인 것이 면회 때 갈아입도록 건넸던 농속에 있던 옷이었다. 시신을 거두려는 순산 군·경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대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고, 그 날부터 경비가 강화되어 이 곳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이 되었다. 날마다 시신을 거두어 오기위해 맴돌던 차 날이 가고 6개월을 넘긴 신묘년 2월 초 하늘 찌푸린 새벽, 경비군이 나오기 전에 시신을 발굴하고 안덕면 상창리 소유밭에 안장하였다. "왜 유품마저 불태웠는지....." 찢겨진 가슴안고 살아온 70년. 이제는 92세의 할머니가 된 그녀는 비참했던 그 때를 어찌 다 형언하랴 당시를 회상하며 영구불망의 돌을 세운다.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X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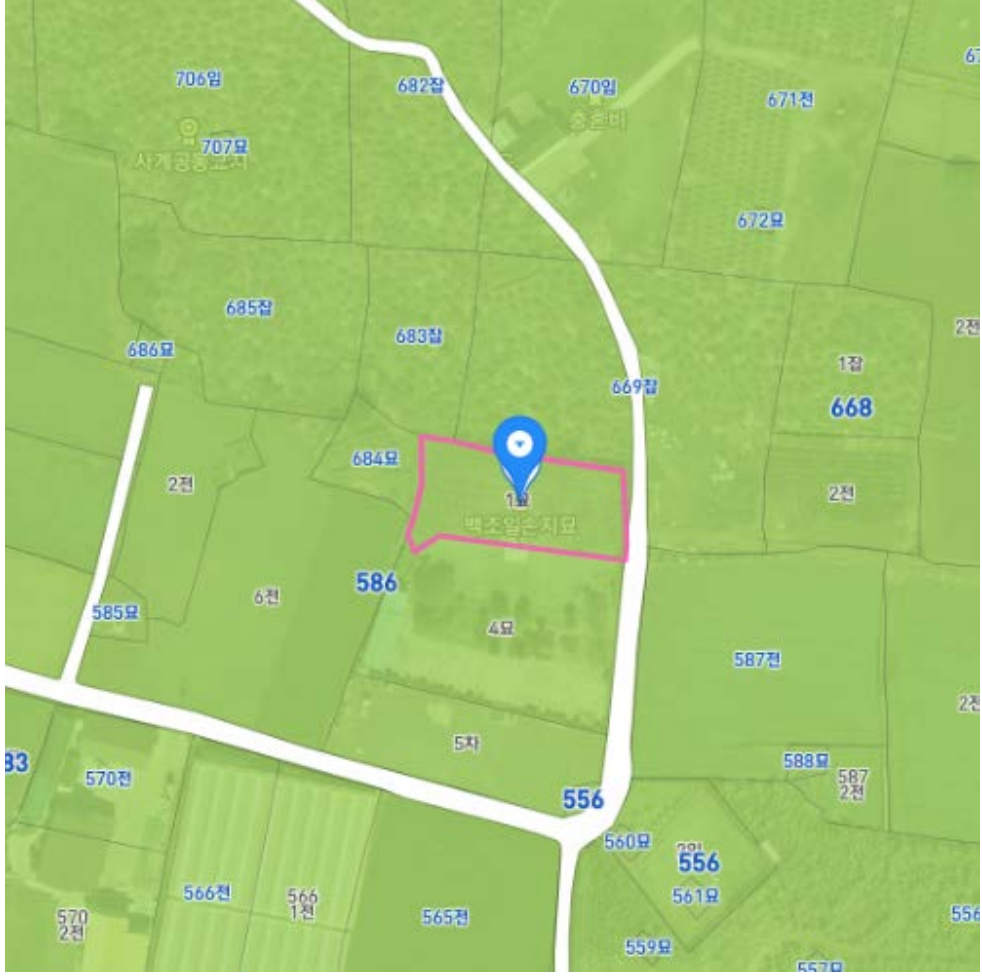
2) 문제점

- 유적지 안내판 1-1의 경우 훼손 정도가 심각함. 글씨 곳곳이 벗겨져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안내판1(1-1의 앞면)의 경우에도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첫알오름 일대에 설치된 유적지 안내판은 대체로 첫알오름 측면부 계단 탐방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약자의 경우 안내판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유적지 안내판 1-1이나 4의 경우처럼 영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탈자가 많으며 훼손 정도가 심각함.
- 유적지 4 등의 경우처럼 한국전쟁을 ‘남침전쟁’으로 표기하거나, ‘북괴군’ 등으로 묘사하는 등 평화적 관점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표현들이 있음.
- 안내판 오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영문 안내판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 첫알오름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찾는 대표적인 다크투어 유적지이니만큼 외국어 안내판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함. ‘남침전쟁’은 ‘한국전쟁’으로, ‘북괴군’은 ‘인민군’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백조일손지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586-1
위치(위경도)	<p>33.220278, 126.285656</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과 반정부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지시했음. 이에 모슬포경찰서는 사상이 불온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정면, 안덕면 등 주민들을 관할 절간고구마 창고에 가뒀다가 양력 1950년 8월 20일 새벽 5시 첫알오름에서 총살했음. 같은 날 새벽 2시 첫알오름에서는 먼저 끌려온 한림지역 예비검속 수감자들이 희생되기도 했음. 이날 희생된 사람은 모두 합쳐 210~2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p> <p>학살 이후 군경은 유가족들이 희생자 시신을 거둬가는 것조차 못하게 통제했음. 6년이 지난 1956년 5월에 이르러서야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고 모슬포 지역 희생자들의 시신을 모아 한 곳에 안장함. 이곳을 '조상이 각기 다른 일백 서른 두 자손이 한날 한시에 죽어 시신이 영커 하나의 자손으로 태어나 한 곳에 묻힌 땅'이란 의미를 담아 묘역을 '百祖一孫之地'라 명명함.</p> <p>백조일손지묘 묘역 조성 이후에도 군경의 탄압은 계속됨. 묘역을 해체시키기 위해 군경은 유족들을 회유하고 겁박하기도 함. 결국 5·16군사쿠데타 이후인 1961년 6월 16일, 경찰은 백조일손영령 추모 위령비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름.</p> <p>이후 유족들은 부서진 비석 조각들은 모두 묘역 울타리 담장 속에 넣거나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1999년 6월 다시 꺼냄. 유족들은 군사정권 때 훼손되었던 비석조각들을 지금의 위령비 옆에 전시해 놓고 '비석훼손사건 경위'의 뜻말을</p>

	세웠음.
안내판 설명	<p>[한글] 백조일손지지 이곳은 1950년대 모슬포 경찰서 관내(현재 한림읍, 대정읍, 한경면, 안덕면)에 거주하던 순박한 농민, 마을유지, 교육자, 공무원, 청년 단체장, 학생 등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구금되었던 양민이 사법적 절차 없이 정부군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 일백 서른 두위의 영혼이 영면 하신 곳입니다.</p> <p>예비검속은 비극의 씨앗 1950년 6월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자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당일 14:00시 요시찰인 전원을 구금할 것을 전국 경찰서에 지시함에 따라 제주도 전역에서는 1,200여명을 예비검속 하였는데 그중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는 347명을 검속,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창고, 각지서 등에 분산 구금하였음.(근거: 경찰문서)</p> <p>반인륜적 양민 학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이 6월28일 서울을 점령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수도를 대전을 거쳐 대구로 그리고 8월 18일에는 부산으로 퇴각하는 와중에 육군본부 정보국 제4과(CIC) 김창룡(당시대령)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경찰이 분류한 C,D급 예비검속자를 처형하기 시작하였는데 모슬포 경찰서 관내 347명중 60명은 1950년7월16일 군에 인계되어 집단 학살되었으며(장소미상)(근거: 경찰문서) 동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 2시에 63명(한림 어업창고 및 각지서 구금자 중) 새벽 5시경 132명(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 구금자 중)을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모슬포 주둔 해병 제3대대(대대장 김윤근 소령)장병에 의해 송악산 첫알오름, 파괴된 일본군 탄약고에서 집단 학살 함. (근거: 경찰문서) 한편, 제주경찰서 관내와 서귀포경찰서 관내에 구금된 선양들은 처형된 일시와 장소도 정확히 모른체 불귀의 원혼이 되었다.</p> <p>천인공노할 시체의 암매장 계엄당국은 반인륜적 학살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유족의 시체인도를 무자비하게 거부하여 비명과 절규의 외마디가 가시지 않은 선혈이 낭자한 시체위에 미리 준비된 돌덩이로 짓눌러 암매장하고 그 일대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설정 무장군인에 의하여 경비를 강화 하였음.</p> <p>시신수습과 백조일손 지지 안장 유족들의 시신 인도를 완강히 거부하던 군 당국은 부대확장 공사도중 유해가 표출되자 유족들이 요청에 의하여 시신수습이 허용되자 유족들은 1956년 5월18일(음력4월9일) 6년 가까이 흙탕물속에 묻혀 억눌리고 뒤영킨 시신의 인양을 위하여 좌용진 씨가 제공한 양수기로 물을 뿜아내고 유골을 발굴 하였으나 자타의 구분은커녕 작은 뼈는 거이 흔적이 없었으므로 132개의 칠성판위에 머리하나에 등뼈, 팔, 다리뼈들을 적당히 맞추어 132구로 구성하고 유족의 지성으로 마련한 현 묘역(428평)에 안장하여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라 명명하였음.</p> <p>묘지건립과 탄원서 제출 유족들의 정성을 모아 1959년5월8일(음 4.1)백조일손 묘역에 묘비를 건립 하였으며 1960년 4.19 학생의거 직후 허정 과도정부의 제35회 임시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된후 민,참의원 의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며 장면 민주정부 하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가 진행 되던차 1961년 5.16군사혁명의 발발로 진상조사가 중단 됨 으로서 유족들은 기나긴 세월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p> <p>군사정권에 의한 묘비의 파괴와 강제이장 5.16군사정권은 군경이 자행한 반인륜적 만행의 흔적을 없애도록 경찰에 지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61년6월15일 서귀포 경찰서장의 지휘로 모슬포지서 급사로 하여금 묘비를 파괴하는 한편 집단 조성된 백조일손묘역을 해체하도록 유족들을 강압 함 으로서 선량한 유족들은 제2의 잔인한 피해를 의식하여 23위는 야밤을</p>

이용하여 타지로 이장하였음. 그러나 전 유족의 안위와 자손만대의 화합을 추구하며 2002년4월5일 41년 만에 7위를 본 묘역으로 재 이장함.

위령비 건립과 민관합동위령제 봉행
 "맺힌 한은 풀어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해원의 뜻에 따라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파괴된 묘비의 개각수립을 비롯한 위령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였으며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모험적 의지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여 의기투합 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어 유족회가 주관하고 제주도의 후원으로 1993년8월24일 위령비가 수립되고 민관 합동으로 제1회 백조일손 영령 위령제가 엄수 되므로써 제주도민의 뼈아픈 역사의 곁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여는 단초가 되었으리라.

희생자 및 유족현황
 직업 및 직책

(표 생략)

연령별

(표 생략)

희생자와 유족와의 관계

(표 생략)

2003. 5. 31.

백조일손유족회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2

[한글]백조일손지지

<앞면>

백조일손지지

<우측면>

예비검속 범이란 일제치하인 1941년 5월 5일 제정한 조선정치범을 탄압하던 구금령으로서 1945년 10월 9일 아놀드 미 군정장관의 이름으로 법령 제11호로 폐지했다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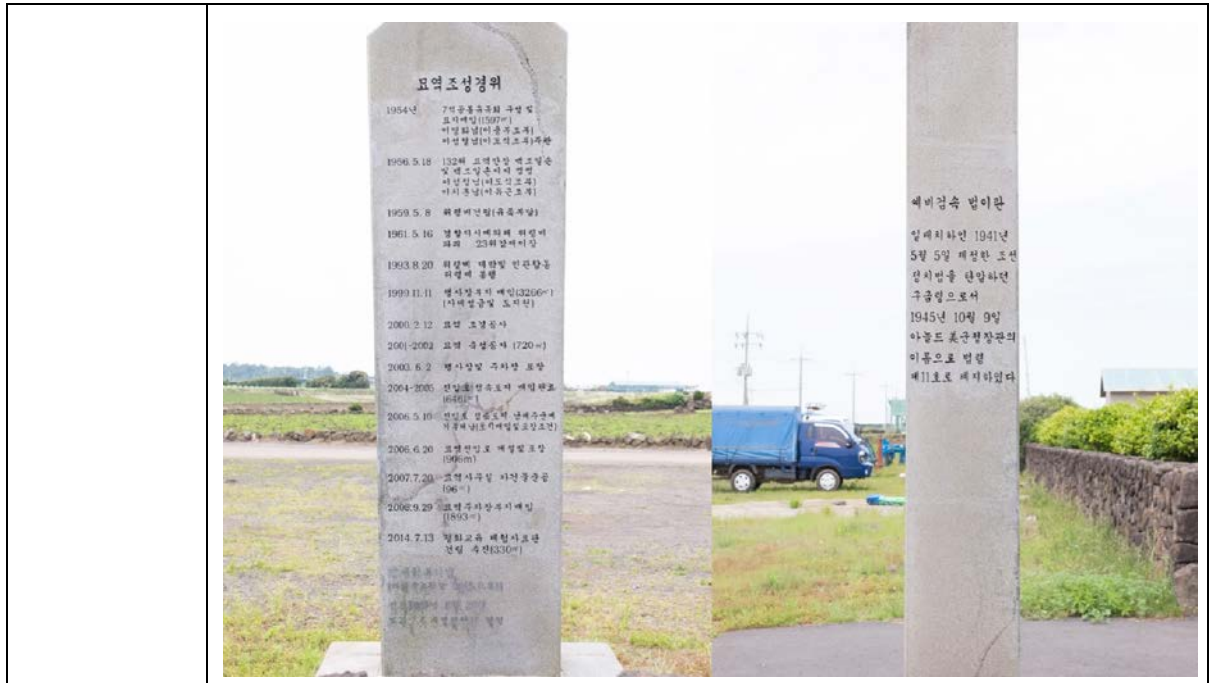
백조일손의 뜻 조상이 각기 다른 일백서른두 자손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서 죽어 하나의 뼈로 엉키어 한 자손으로 환생하다
 1956년 5월 18일
 지은이 : 이치훈, 이성철

명예회복기념
 대법승소확정(2015. 6. 24)
 2015. 8. 29
 소송참여 유족공동의연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건립

<뒷면>

묘역조성경위
 1954년 7석 공동유족회 구성 및 묘지매입(1597m²)
 이영화님(이용부조부)
 이성철님(이도식조부) 주관
 1956. 5. 18 132위 묘역안장 백조일손 및 백조일손지지 명명
 이성철님(이도식조부)
 이치훈님(이유근조부)
 1959. 5. 8 위령비건립(유족부담)
 1961. 5. 16 경찰지서에 의해 위령비 파괴 23위 강제이장
 1993. 8. 20 위령비 제막 및 민관합동 위령제 봉행
 1999. 11. 11 행사장부지 매입(3266m²)(자체성금 및 도지원)
 2000. 2. 12 묘역 조경공사
 2001~2002 묘역 축성공사(720m²)
 2003. 6. 2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
 2004~2005 진입로 접속토지 매입완료(6461m²)
 2006. 5. 10 진입로 접속토지 남제주군에 기부체납(토지매입및포장조건)
 2006. 6. 20 묘역진입로 개설 및 포장(906m²)
 2007. 7. 20 묘역사무실 가건물준공(96m²)
 2008. 9. 29 묘역주차장부지매입(1893m²)
 2014. 7. 13 평화교육 체험자료관 건립 추진(330m²)





<p>안내판 설명3</p>	<p><앞면> 백조일손영령 위령비</p> <p><우측면> 건립경위 이곳에 영면한 영령 132위는 1948년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4·3의 혼란과 뒤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1950년 8월 20일(음 7월7일) 새벽 송악산 첫알오름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입니다. 당시 유족들은 시신 인도를 애원하였으나 시대상황이 여의치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오던 중 6년 8개월이 지난 1956년 4월 8일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시신 발굴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힘을 모아 대정읍 상모리 586-1번지 483평의 부지를 매입 유해를 안장하고 정성으로 「백조일손지지」란 비를 건립하였으나 굴절된 역사는 이를 용납치 않아 1961년 6월 15일 이 비가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는 진실을 인정하는 법 30여년 만에 수립된 민주정부가 주창한 「맺힌 한은 풀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맺혀온 한의 해소와 51만 도민의 대화합을 위해 제주도의 지원으로 오늘 위령빌드 삼가 세웁니다. 1993년 8월 24일 박서동 글 라석 현민식 씀 제주도 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p> <p><좌측면> 이 빗돌 세운 뜻은</p> <p>송악산 앞바다는 어제처럼 푸릅니다 산방산 끝에 달을 절규하던 그 울음 오늘은 메아리되어 뻗속까지 스칩니다</p> <p>오순도순 모여앉아 식은밥 나눠먹던 가난한 이웃들을</p>
-----------------------	--

돌아보며 끌려가던
그 날도
하늘은 온통
오늘처럼 타더이다

6·25 포성에 놀라
잠들지 못한 밤에
견우와 직녀 만나
맺힌 情을 풀던 밤에

어쩌면
바로 칠석날
긴 이별이 되더이다

우리들 가슴에 박힌
총알을 누가 빼랴
해마다 칠월이면
아물 듯 도지는 상처
역사도
막힌 것 뚫어야
제자지로 흐릅니다

죄 지은 자 하나 없고
죄없는 자만 묻혀
백 서른 둘 뼈가 엉켜
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설움
시대를 탓하며
옷소매를 적십니다

억울한 죽음에는
꽃이 핀다 하더이다
빨간 傳說로 피어
새가 운다 하더이다
석류꽃
가슴에 피어
붉게 타게 하소서

진실을 빗돌에 새겨
참역사를 세웁니다
향 피워 두 손 모아
순간가득 따르오니
다 잊고
이 땅을 안아
고이 편히 쉬소서

늘물 고성기 글
라석 현민식 씬

<뒷면>
(희생자 명단 생략)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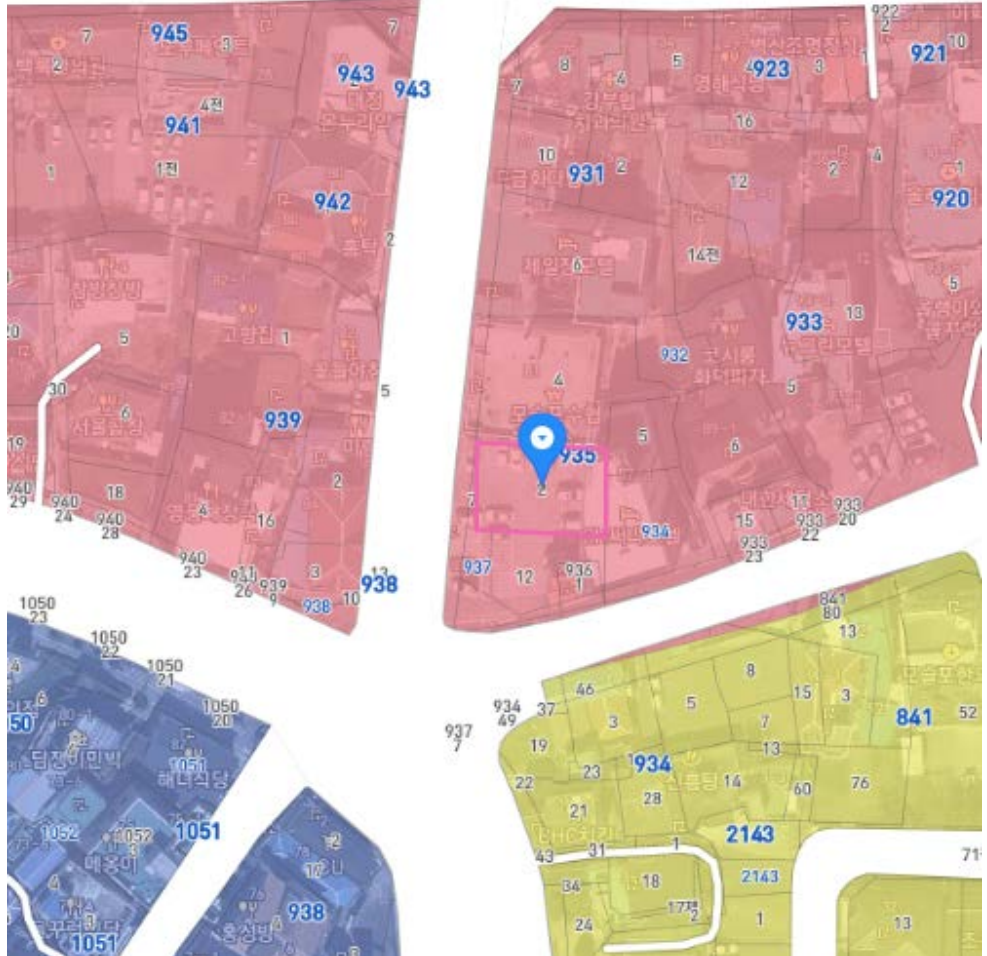
2) 문제점

- 안내판을 세운 관리 주체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제주4·3과 한국전쟁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다크투어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모슬포지서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5-2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20774, 126.252133</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모슬포지서에서는 4·3 발발 직전 경찰이 구금한 20대 청년 양은하를 구타해 숨지게 하는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음. 1948년 3월 14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4·3 발발의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함. 이 사건에 연루된 취조경관 등 경찰관 6명은 법정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p> <p>한편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정부의 ‘예비검속’ 명령을 받은 모슬포지서는 자의적으로 민간인들을 잡아들여 근처 절간고구마 창고에 가뒀다가 1948년 8월 20일 새벽 군에 인계함. 이들은 첫알오름에서 학살됨.</p> <p>모슬포지서 옛터는 당시 건물이 없어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현재 모슬포수협 남쪽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울	
기타			


2) 문제점

- 모슬포지서에서 발생한 양은하 고문치사 사건은 김용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4·3의 발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로 당시 제주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졌음. 또 한국전쟁 당시 자행된 예비검속 역시 제주4·3의 맥락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임. 그러나 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4·3 당시 모슬포지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구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 정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모대서로 68(상모리 3732-2) 인근 도로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28455, 126.259915</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전쟁 시기 신병을 훈련시키기 위해 1951년 1월 22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설치된 군사시설임. 본래 대구에서 창설되었으나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제주로 이전됨. 제1훈련소는 한때 8개 신병연대와 2개 교도연대 및 1개 하사관학교와 수송학교, 1개 육군병원 등을 거느린 제주도 최대부대였음. 1956년 해체될 때까지 많은 신병을 양성함. 현재는 정문 기둥, 지휘소 건물, 강병대 교대 등이 일대에 남아 있음.</p>
안내판 설명 1	<p>[한글]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 정문 당 훈련소는 1950년 7월 11일 경북 대구에서 당초 그 전신인 제25연대(교육연대)로 창설되었다. 그 후 동년 7월 17일 경북 편성관구사령부 제7교육연대로 창성되었다가 다시 동년 8월 1일 육군 중앙훈련소로 개칭되고 동년 8월 14일 국본 일반명령(육) 제46호에 의거 재차 경북 대구에서 육본직할로 제1훈련소로 개칭되었다. 동년 8월 21일 당 훈련소는 육본직할로부터 해편 되어 육군 중앙훈련본부에 예속 변경되고 동년 10월 25일 육군 중앙훈련본부가 해편 됨에 따라 다시 육본직할로 예속 변경되어 1951년 1월 22일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했다.</p>

1954년 9월18일 육본직할에서 교육총본부로 예속 변경되고 1956년 1월1일 국본 일반명령(육) 제223호에 의거 당 훈련소는 제주도 모슬포에서 해제되었다. 그간 당 훈련소는 창설 이래 1955년 4월30일까지 신병 배출 총 수는 약 50만 명이고, 그 중 하사관 교육을 수료한 자가 38,745명, 자동차 운전교육을 수료한 자가 7,355명에 달한다.

역대 훈련소장

초대 대령 최석 50.08.14/2대 대령 박기성 50.10.24/3대 대령 최석 50.10.26/4대 대령 유승열 50.11.12/5대 준장 이형근 51.01.09/6대 준장 백인엽 51.01.14/7대 소장 장도영 52.01.10/8대 준장 오덕준 52.08.29/ 9대(대리) 준장 권준 53.05.09/9대 중장 이용준 53.06.15

(표생략)

'강병대'라는 큰 팻말이 붙은 정문을 사이에 두고 위병소가 서있다. 바로 앞에 교통헌병이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단위에 서있고, '복장단정'이란 큰 팻말이 251헌병대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긴박한 상황과 호국의 현장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는 육군제1훈련소(강병대) 정문은 우리 모두에게 그 당시 역사를 잊지 말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자료제공 '강병대 그리고 모슬포' 편저자 김웅철, 고증 육일훈정훈동지회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2

[한글]
훈련소본부 제주도지구위수사령부 이용준 소장
강병대 옛 정문(훈련소 교도연대 정문)
강병대 탑 앞 군악대원
면회소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설렘
훈련소 연대 막사
참전국 사절단 사열식
하사관학교 지휘부 학교장 외 정교단
훈련병 사격술 훈련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해당 없음	한국전쟁 시기 유적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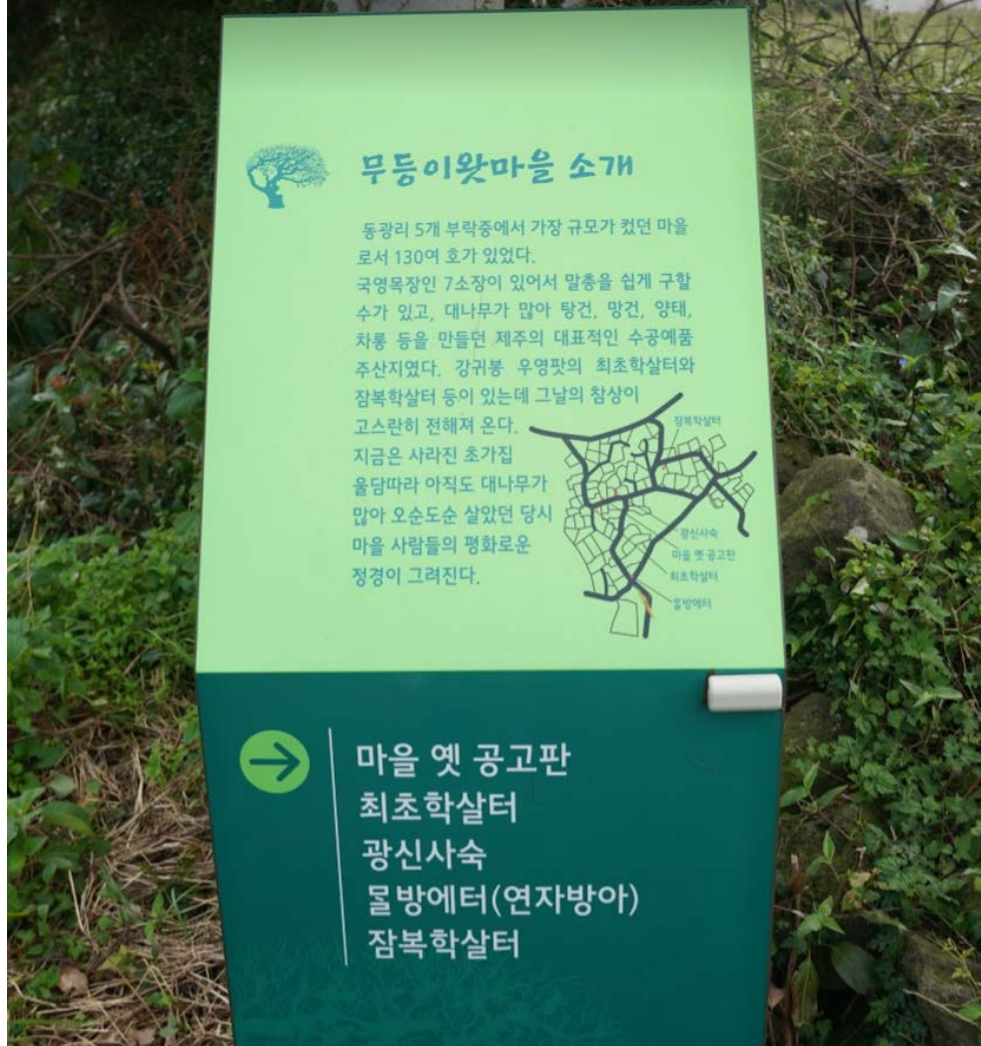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무등이왓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226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33.3102869, 126.3501716(입구)</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무등이왓은 4·3 당시 주민들이 학살 당하고 마을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마을'로 남음. 무등이왓은 1948년 11월 21일 토벌대에 의해 100명가량의 주민들이 희생되고 마을이 전소됨. 약 3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이 마을은 인근 마을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4·3 당시에는 130가구 400여 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함. 일제시기인 1939년에는 2년제인 동관간이학교가 건립되면서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이 취학했다고 함. '잃어버린마을' 무등이왓은 '동광리 4·3길(2015년 10월 31일 개통)' 코스 중 '무등이왓 가는 길' 코스 중 하나로 조성되었음. 이에 마을 입구와 마을 내에서 처음으로 학살이 발생했던 곳 등 주요 장소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음.</p>
안내판 설명1	<p>[한글] 무등이왓마을 소개 동광리 5개 부락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마을로서 130여 호가 있었다. 국영목장인 7소장이 있어서 말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대나무가 많아 탕건, 망건, 양태, 차롱 등을 만들던 제주의 대표적인 수공업품 주산지였다. 강귀봉 우영팻의 최초학살터와 잠복학살터 등이 있는데 그날의 참상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지금은 사라진</p>

초가집 울담따라 아직도 대나무가 많아 오순도순 살았던 당시 마을 사람들이 평화로운 정경이 그려진다.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2

[한글]
잃어버린마을 -무등이왓-
여기는 4·3사건의 와중인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터이다. 약 300년 전 관의 침탈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이 화전을 일궈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이래 4·3 당시 동광리에는 무등이왓 이외에도 삼밭구석, 사장밭, 조수궤, 간장리의 5개 자연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로 조, 메밀, 보리, 콩 등을 재배하고 교육열이 높아 일제 때에는 광신사숙과 2년제 동관간이학교가 세워졌다.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폐촌 후 주민들은 도너리오름 앞쪽의 큰넓궤에 숨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눈덮인 벌판을 헤매다 유명을 달리했다. 한 할머니는 그후 멧돌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다. "난 돼지 집에 숨어 살았수다. 살려줍서 살려줍서 허는 애기 놔두고 나만 혼자 살아나수다." 4·3으로 무등이왓(130호)에서 약 100명, 삼밭구석(46호)에서 약 50명, 조수리(6호)에서 6명이 희생됐다.
인가가 자리했을 대숲을 지나 아이들이 뛰어 나올 듯한 울릿길을 걸어보라. 시신 없는 헛묘도 찾아보고 유일하게 복구된 간장리 마을을 지나 큰넓궤로 발길을

	<p>돌려보라. 평화를 기원하는 외침이 들려올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p> <p>2001년 4월 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3</p>	<p>[한글] 무등이왓마을 최초학살터 1948년 11월 15일 광평리에서 무장대 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온 토벌대들이 동광리에 들이닥쳤다. 토벌대는 소개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주민들을 무등이왓에 집결시켰다. 토벌대는 주민 10여 명을 호명하여 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했는데 덜 맞아 육신이 온전했던 사람은 도망을 쳤고 나머지는 모두 이곳에서 총살당했다.</p> <p>[영문] 없음</p>



안내판 설명 4

[한글]
광신사숙
1930년에 설립된 동광리개량서당인 광신사숙이 있던 자리다. 학생들은 식민지 치하에서 배움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이후 동광간이학교로 개편되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선생으로 김봉춘, 이두옥 씨가 있었다.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5

[한글]
무등이왓마을 옛 공고판
마을의 추곡수매나 대·소사 혹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붙였던 자리다. 일제 때는 가혹한 수탈의 공출을 알리는 공고가 있었고 4·3 바로 전 해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겪었던 강탈이나 다름없는 '보리공출'을 알리는 공고가 붙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공고판을 들여다보면 당시 마을 사람들의 순한 눈빛이 보일 듯 하다.

[영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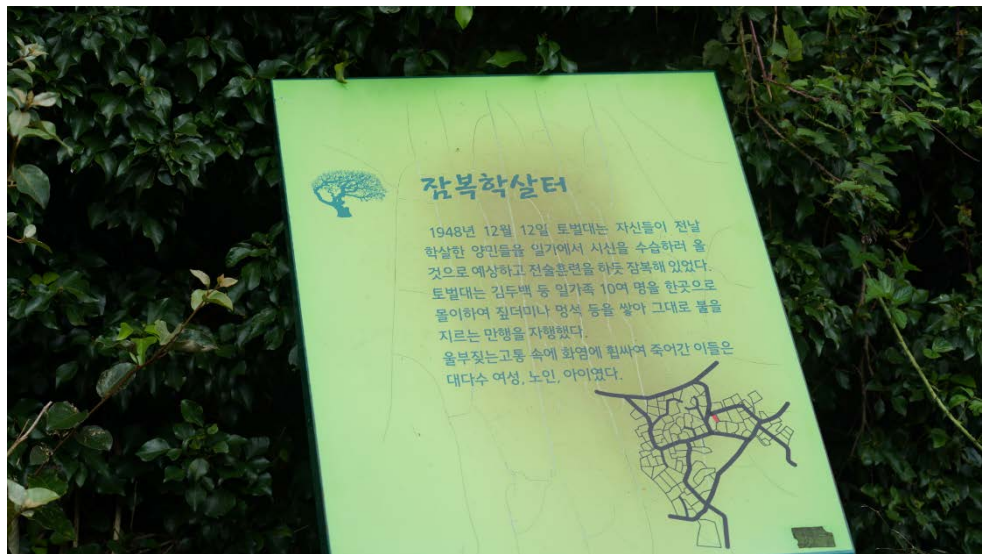


안내판 설명 6

[한글]
잠복학살터

1948년 12월 12일 토벌대는 자신들이 전날 학살한 양민들을 일가에서 시신을 수습하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전술훈련을 하듯 잠복해 있었다. 토벌대는 김두백 등 일가족 10여 명을 한곳으로 몰이하여 짚더미나 명석 등을 쌓아 그대로 불을 지르는 만행을 자행했다. 울부짖는 고통 속에 화염에 휩싸여 죽어간 이들은 대다수 여성, 노인, 아이였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2020년 9월 현재,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안내판 표면에 실금이 가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내판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유적지 및 안내판 훼손 등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삼밭구석(삼밭구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425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110534,126.3306492</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동광리 아래 동네(하동)인 삼밭구석은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약 50명의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마을이 와해된 이후 복구되지 못하고 '잃어버린마을'이 됨. 이 마을에는 4·3 당시 40~50가구 150명의 주민들이 살았음. 1948년 11월 중순 이후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전소하자 주민들은 '큰넓궤' 굴로 피신했음. 토벌대가 이 굴을 발견하자 주민들은 흩어져 영실 부근 볼레오름까지 도피했다가 토벌대에 죽거나 잡혔음. 이때 잡힌 주민들을 서귀포 단추공장에 수감되었다가 정방폭포에서 집단 총살되었다고 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삼밭구석 여기는 4·3사건 때 마을이 전소되어 없어져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삼밭구석 마을 터이다. 3백여년 전 설촌된 이후 50여 호에 1백 5십여 명의 주민들이 밭농사와 목축을 생업으로 평화롭게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마을 이름은 삼을 재배하던 마을이라 하여 마전동(麻田洞)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으니 1948년 11월 중순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방화된 후 주민들은 마을 부근 속칭 큰넓궤라는 굴에 숨었다가 다시 영실부근 볼레오름 지경까지 피신했다.</p>

이 와중에 5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안 또는 서귀포 정방폭포 등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간장리(동광리)에 성을 쌓고 살기 시작한 이후 삼발구석은 재건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개간된 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서 있는 빈 집터의 대나무만이 지나간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을로 재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비를 세운다.

2005년 4월 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2

<앞면>

[한글] 4·3사건위령비
서기 1948년 4·3사건의 슬픈사연을 통곡의 소리로 새겨놓습니다
이 비가 세워진 이곳은 약 300년전 광산김일태공께서 마전동에정착 다음
타성이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마전동은 삼을
많이 재배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4·3사건이발생하기 전에는 오십여가구가
평화롭게 한집안처럼 목축과 밭농사를천직으로알고 생활해왔는데 4·3사건이
발생하여 마을에 모든가옥은 불타없어졌고 주민일부는 억울하게 죽음을당했으며
나머지주민들은 뿔뿔이 헤어져 삶에 온갖역경을 겪었다 4·3사건 전만해도
순진하고 천박했던 중산간 마을 이곳 사람들은 고향을 빼앗긴 서러움과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슬픈통곡 소리를 먼훗날후손들이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이사연을 만천하에 알리고져 이 비를 세웁니다

[영문]
없음

<우측면>

동광리 추진위원 대표 김여수
서기 1999년 4월 일

<뒷면>

4·3사건의 희생자 근지
(희생자 명단 생략)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2020년 9월 현재, <안내판 1>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군데군데 글자가 벗겨진 부분이 있음.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안내판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수 있음.
- 안내판 오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2> 중 “4·3사건 전만 해도 순진하고 천박했던 중산간 마을 이곳 사람들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천박했던”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어휘인지 의구심이 듦.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유적지 및 안내판 훼손 등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천박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생각 따위가 얕거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 ‘질박하다’, ‘순박하다’ 등 다른 적절한 어휘로 대체해야 함.

큰넓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위치(위경도)	<p>33.319801, 126.323487</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큰넓궤는 1948년 11월 중순 마을이 초토화 된 이후 동광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임. 당시 이 굴에는 120여 명이 숨어 살았음. 1949년 초 주민들은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됨. 토벌대는 굴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년들이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굴 안으로 대피시킨 후 이불 등 숨들을 전부 모아 고춧가루와 함께 쌓아 놓고 불을 붙인 후 키를 이용하여 매운 연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함. 토벌대는 굴속에서 나오는 매운 연기 때문에 굴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총을 난사함. 그렇게 밤이 되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돌을 쌓아 놓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 철수함. 토벌대가 간 후 근처에 숨어 있던 청년들이 나타나 굴 입구에 쌓여 있는 돌을 치우고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함.</p> <p>주민들 중 일부는 한라산으로 숨어 들어갔으나 영실 부근 불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잡혀서 서귀포로 이송됨. 그 후 이들 중 40여 명이 정방폭포 부근에서 학살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큰넓궤 소재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 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p>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으로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곳은 험한 대신 넓었고,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이 굴속에서 살았다. 청년들은 주변 야산이나 근처의 작은 굴에 숨어 토벌대에 갑작스런 습격에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식량이나 물 등을 나르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굴속에서 산 지 40여 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고 말았다. 토벌대가 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이불솜 등에 불을 붙여 매운 연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부쳤다. 토벌대는 굴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총만 난사하다가 철수했다. 토벌대가 간 후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다. 그 후 이들은 한라산 영실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생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 큰넓궤 동쪽 50m 지점에 '도엣궤'가 있는데 이곳에도 향아리 파편 등 당시 생활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인근에 제주 4·3 당시 없어져 버린 마을 '삼밭구석'이 있으며, 당시 학살된 후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등만을 묻은 '헛묘'도 있다.

밥은 큰넓궤에서 하지 않았어요. 근처에 작은 굴들이 많았는데 주로 거기서 며칠에 한 번씩 해서 밥을 차룻에 담았다 먹었어요. 또 물은 삼밭구석의 소 먹이는 물을 향아리로 길어다 먹었어요. 밖에 다닐 때는 발자국이 나지 않게 돌만 딛고 다니거나, 마른 고사리를 꺾어다가 발 디뎠던 곳에 꽂아 발각되지 않게 했지요. 하동 사람들은 아랫굴에 살았고, 상동 사람들은 주로 윗굴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동 사람들은 변소가 있는 굴까지 가기 힘들어 향아리에 싹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곤 했지요.

-동광리 신원숙씨 증언 발췌

[영문]

Location: Whole area of San No. 90, Donggwang-ri, Andeok-myeon, Seogwipo-si. Keunneolgwe Cave served as a hideout for villagers from Donggwang-ri village for about two months during the Jeju April 3rd massacre. In November of 1948, when authorities conducted an operation to burn villages in mountainous areas to the ground, many villagers fled and went into hiding amongst the hills, with some managing to find this cave, Keunneolgwe. Its rugged yet wide space was ideal for villagers to live in hiding. Most children and the elderly among them stayed in the cave. Young men stayed at nearby hills and in other small caves to stand guard against sudden attacks by punitive forces, and also carried food and water. However, after hiding for 40 days in the cave, their location was discovered by the punitive forces' relentless chase. When the authorities tried to enter the cave, villagers inside lit fire to cotton blankets in order to cover the entrance with acrid smoke. The punitive forces were unable to go inside but then fired at random before withdrawing. After the forces were gone, villagers retreated even deeper into Mt. Hallasan with no definite plan. Some were shot dead by the punitive forces around Bolle Oreum (small volcanic cone) near Yeongsil Cliffs on Mt. Hallasan, while others were captured alive and massacred near Jeongbang Falls. There is another cave that was also used as a hideout for villagers called Doetgwe, 50 meters east of Keunneolgwe. There still remain a lot of relics including fragments of pots in the cave. There used to be a village called Sambatguseok in the vicinity of the cave but the village was razed during the Jeju April 3rd Masacre and corpses of villagers who were slaughtered at the time were never found; instead their clothes were buried in Heonmyo Cemetery.

We didn't cook in Keunneolgwe, instead we cooked in one of the many small caves nearby once every few days and then kept steamed rice in a bamboo container. We carried water from troughs in Sambatguseok village using pots. When going outside, we tried to step on stones so as to not leave any footprints. Sometimes we gathered bracken and stuck it in footprints to avoid detection. We couldn't defecate outside. We made a small toilet in one side of the cave. People from the lower part of the village stayed in the deeper section of the cave while people from the upper part of the village lived in the upper section of the cave. It

was difficult for those from the upper part of the village to go to the toilet in the cave, so they defecated in a pot and emptied it at once.

-Extract from testimony of Sin Wonsuk from Donggwang-ri village



<p>안내판 설명2</p>	<p>[한글] 큰넓궤 위치도 밥은 큰넓궤 근처의 작은 굴에서 했으며, 물은 삼밭구석의 소 먹이는 물을 항아리로 길어다 먹었다. (지도 생략)</p> <p>큰넓궤에서의 삶 마을목장 안 종나무 밑 큰넓궤 입구 굴 중간 중간 지점에 토벌대 방어용 돌담 흔적 당시 생활 흔적을 보여주는 옹기의 파편들 (사진 생략)</p> <p>큰넓궤 내부 유적도 큰넓궤 총 길이는 대략 180m에 이르며, 입구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동쪽으로 윗굴이 있으며, 당시 생활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지도 생략)</p> <p>[영문] Map of Keunneolgwe Reics People cooked in nearby small caves from throughs in Sambatguseok village by carrying it in pots.</p> <p>Life in Keunneolgwe The entrance of Keunneolgwe underneath the Japanese Styrax in the village ranch Traces of stone walls built in the middle of the cave and used to defend against the punitive forces Relics of earthen pots that show the traces of life at the time</p> <p>Location Map of Keunneolgwe Keunneolgwe is about 180 meters long in total. There is an upper chamber in the east side of the cave about 30-minute walking distance from the entrance. A number of relics that show the life at the time were discovered here.</p>
-----------------------	---

	<p>큰넓궤 4·3 유적지 Keunneolgwe Historic Site of Jeju April 3rd Massacre</p> <p>큰넓궤 위치도 Map of Keunneolgwe Relics 범은 큰넓궤 근처의 작은 골짜기였으며, 많은 심방구석의 소 학이는 풀을 향아리로 깊어디 막았다. People cooked in nearby small caves and drank water from troughs in Sambalguseok village by carrying it in pots.</p> <p>큰넓궤에서의 삶 Life in Keunneolgwe 대출독장 안 흉나무 및 곤설채 입구 The entrance of Keunneolgwe underneath the Japanese Ditch in the village center. 굴 중간 중간 지점에 돌벽차 만들어 흉당 흔적 Traces of stone walls built in the middle of the cave and used to defend against the Japanese forces. 당시 생활 흔적을 보여주는 불기마 고편들 Remains of earthen pots that show the traces of life at the site.</p> <p>큰넓궤 내부 유적도 Location Map of Keunneolgwe 큰넓궤 총 길이는 대략 180m에 이르며, 입구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동쪽으로 뒷굴이 있으며, 당시 생활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Keunneolgwe is about 180 meters long in total. There is an upper chamber in the east side of the cave about 30-minute-walking distance from the entrance. A number of relics that show the life at the time were discovered here.</p>
<p>안내판 3</p>	<p>[한글] 4·3 유적지 큰넓궤</p> <p>[영문] Historical Site Keunneolgwe</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큰넓궤로 향하는 차도쪽 진입로와 유적지 근방 중간진입로에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가는 사람도 유적지를 찾기 용이함. 사진과 지도 등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큰넓궤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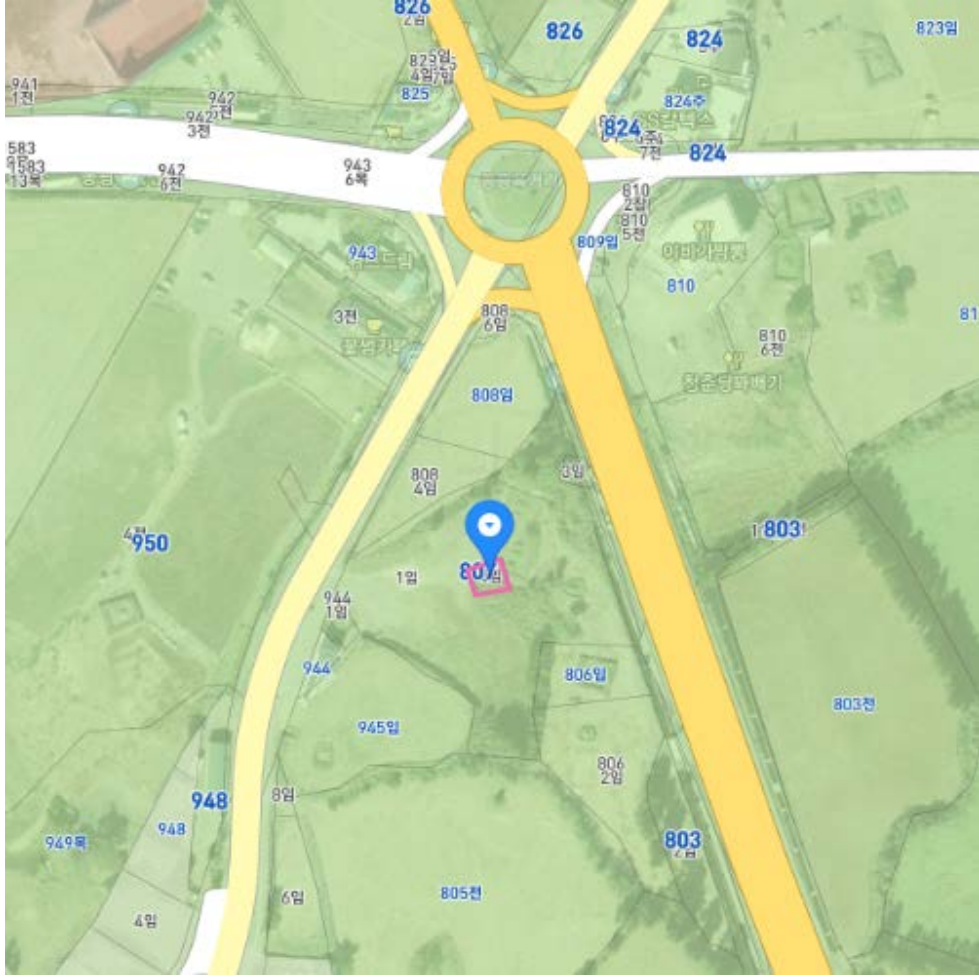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안내판이 있는 유적지 안쪽은 지형이 험해 이동약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함.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유적지 진입로에 큰넓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 이동약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임문숙 가족 헛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07-4번지
위치(위경도)	<p>33.3088782, 126.3404913</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이곳은 1948년 11월 동광리가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 된 후 큰넓궀로 피신했다가 볼레오름 지경에서 붙잡혀 정방폭포에서 희생된 임문숙 씨의 가족 묘지임. 당시 토벌대는 눈 덮인 한라산을 누비며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했음. 볼레오름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1949년 1월경 거의 붙잡힘. 토벌대는 이들을 서귀포의 한 단추공장 건물에 일시 수용했다 옥석을 가리지도 않고 정방폭포 위에서 집단학살함. 그중에는 동광리 주민들도 많았음. 그후 유족들은 시신이나마 찾으려고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정방폭포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은 바다에 떠내려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함. 결국 유족들은 유품을 묻고 그 위에 헛 봉분을 쌓아 묘지를 만들었음. 희생자는 9명이지만 2기는 합묘를 했기 때문에 봉분은 7기가 조성됐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임문숙일가 헛묘 1948년 11월 중순 이후 큰넓궀에 숨어있던 동광리 주민들이 토벌대에게 발각되자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은 자연 엄폐물을 찾아 숨거나 영실 볼레오름까지 올랐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주민들은 제대로 숨지 못했고 대다수가 붙잡혀 재판도 없이</p>

정방폭포 위에서 학살당했다.
유족들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씌어있거나 바다에 떠내려가 찾을 수 없어서 희생자 9명을 헛묘 7기로 혼백만 모셔 원혼을 위로했다. 2명은 합묘다.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2

[한글]
헛묘

소재지: 서귀포시 동광리 807-4번지

이곳 7기의 묘지(2기는 합장묘)는 이 마을 출신 임문숙 일가 9명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헛묘'다. '헛묘'는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할 때 모시고, 생전에 입던 옷이나 물건 등을 넣어 만든 분묘이다.

동광리는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던 1948년 11월 21일께 국방경비대 제9연대 군인들에 의해 방화됐다.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와 눈에 띄는 주민들을 모두 '폭도'로 간주해 학살했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군인을 피해 근처의 '큰넓궤'(궤: 작은 천연동굴)로 피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넓궤 역시 발각됐고, 주민들은 겨울철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20km 떨어진 한라산 영실 인근 '볼레오름'으로 다시 피신했다. 그러나 눈 위에 남은 주민들의 발자국을 따라 쫓아온 군인들에 의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붙잡혔다. 이 때 체포된 사람들은 서귀포에 있던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이듬해인 1949년 1월 22일 정방폭포에서 학살됐다.

동광리 주민 40여명도 이곳에서 학살돼 바다에 버려졌다. 하지만, 군인들이 무서운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일부 유족들이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정방폭포 현장에서 당시 숨진 가족들의 혼을 불러내고 동광리로 모셔와 '헛묘'를 만들게 됐다.

[영문]

Hut-Myo (Fake Tombs)

Location: 807-4, Donggwang-ri, Andeok-myeon, Seogwipo City

These 7 tombs (in 2 tombs, husband and wife are buried together) are 'Fake tombs' for the souls of 9 members of Lim Mun-Suk

family from this village. The 'Fake Tomb' is a tomb in the case the bereaved family members couldn't claim the corpse. Family members put clothes and personal belongings of the deceased in the tomb to enshrine the soul.

Donggwang-ri was set on fire by soldiers from the 9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on November 21, 1948 as part of the Scorched-earth operation. They entered the village and killed Villagers they regarded as 'rioters'. The survivors escaped to nearby 'Keun Neob Gwe'(Big Cave). However, the cave was soon Discovered and the villagers escaped by trudging 20 kilometers through knee-deep snow to 'Bolle Oreum' near Yeongshil, Mount Hall. However, most of them were arrested by soldiers who chased the villagers' footprints through the snow. The villagers were sent to the concentration camp in Seogwipo and killed at Jeongbang Falls on January 22, 1949.

Approximately 40 residents of Donggwang-ri were killed there and their bodies were thrown into the sea. However, the bereaved family members couldn't claim the corpses for fear of the soldiers. After several years, some bereaved family members made claim to their deceased family members at Jeongbang Falls and made the 'Fake Tomb' in Donggwang-ri to enshrine their souls.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일부 있음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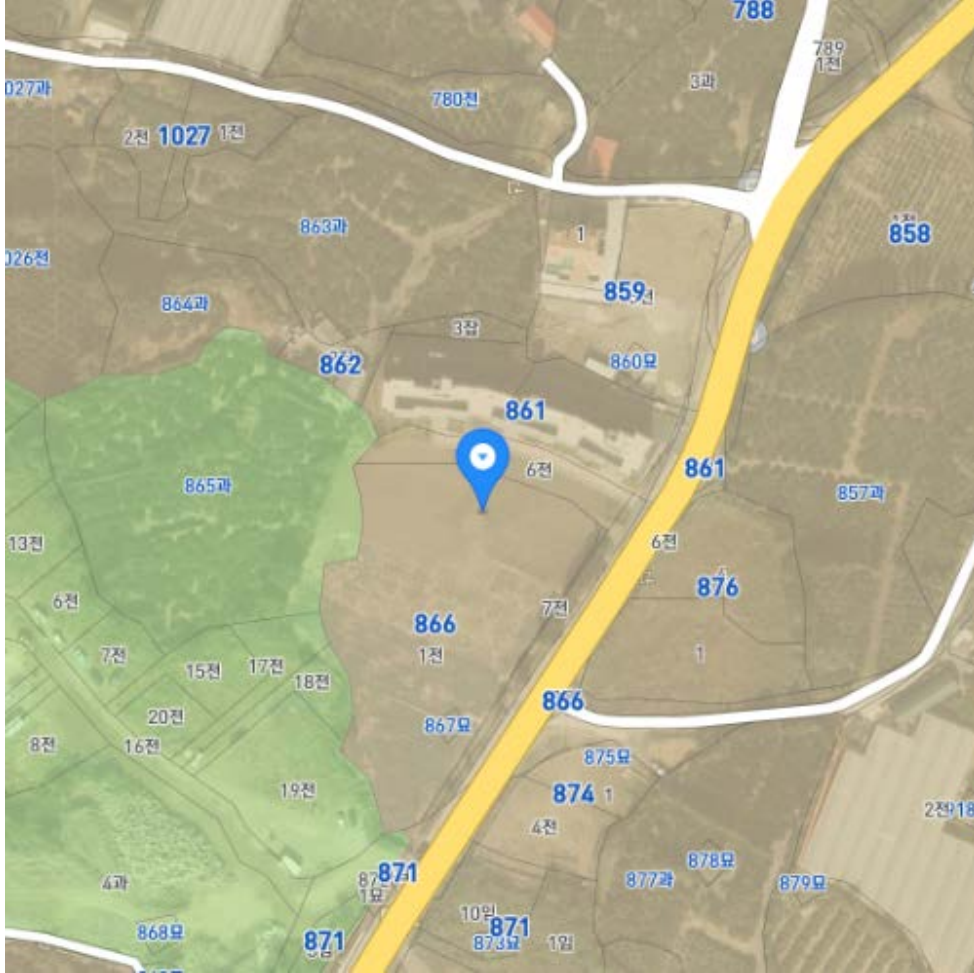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이동약자는 <안내판 2>가 있는 유적지 및 안내판에 접근이 어려움.
- 진입로에 있는 <안내판 1>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안내판 2> 영문 내용 중 “Hut-Myo (Fake Toms)”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Fake’는 ①가짜의, 거짓된, 날조된 ②모조의 ③모조품 등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안내판 1>의 경우 4·3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유적에 얽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게 내용이 구성됨.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추가 설치 시에는 유적지의 지형이 험해 이동약자 등의 출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안내판 1>이 있는 위치에 세우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안내판 1>이 있는 유적지 입구에 추가로 <안내판 2>의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입구에서부터 유적지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안내판 1>에 대한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2> 영문 내용 중 “Hut-Myo (Fake Toms)”와 관련해 부정적 의미의 ‘Fake’라는 어휘 대신 상징적 의미라는 뜻의 ‘Symbolic’이라는 어휘로 대체해야 함.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구억국민학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08(구억리 861번지), 구억리 866-1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278118, 126.283219(안내판 위치)</p> 
조사일	2020. 9. 10(목)
유적지 개요	<p>구억국민학교는 4·3 초기인 1948년 4월 28일 국방경비대 김익렬 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이른바 '4·28 평화협상'을 벌였던 곳임. 협상 내용은 1)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2)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3)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 등이었음. 이 평화협상은 성사되는 듯 했으나 며칠 후인 1948년 5월 1일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우익청년단체에 의해 일어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결렬되었음. 현재는 학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일부 지역에 아파트(리오펠리체)가 들어와 있으며, 나머지는 농경지로 남아있음. 아파트 화단에 작은 표석이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이 장소는 1948년 '4·3'이 발발하자 김익렬 국방경비대 9연대장과 김달삼 인민유격대 사령관이 '4.28' 평화회담을 했던 곳이다. '문화패 바람난장'은 이를 기억하고자 동백나무를 심고, 표석을 놓는다.</p>

2018년 3월 17일
바람난장 - 예술이 흐르는 길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안내판의 크기가 작고 아파트 화단에 세워져 있어 찾기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구역국민학교에서 시도됐던 '4·28 평화협상'의 의의와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 일이 4·3의 전개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음.

3) 개선방안

- 눈에 잘 띄는 안내판을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구역국민학교는 4·3의 역사적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였던 '4·28 평화협상'이 이뤄졌던 곳임. 이에 평화협상의 의의와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추가 설치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기획/편집	(사)제주다크투어
제작	(사)제주다크투어 아름다운재단
인쇄	세진인쇄
발행일	2021년 6월 16일
발행인	양성주
발행처	(사)제주다크투어
주소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전화	064-805-0043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제주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개정판]

(사)제주다크투어 (담당 이수정 홍보기획팀장 jejudarktours@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 064-805-0043 | www.jejudarktours.org

시민의 힘으로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주다크투어를 응원해 주세요.

회원가입 bit.ly/JejuDarkTours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